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발행·편집인 박종찬
편집주간 김종명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 82 골든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051)245-7550

제작·인쇄 사인텔 Tel. (051)245-2337

1968년 6월 1일 창간

www.kyungnam.or.kr

제427호 - 2020년 2월 7일 발행

용마의 의기 모아 '총동창회관의 꿈' 달성

현 사무국 옆 지하 1층·지상 6층의 단아한 건물 동문 860여명 기부 동참, 29년 만에 거둔 큰 결실 리모델링 후 오는 6월 20일 개관식...입주 상담 중

오는 6월 20일 6만여 용마 동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문을 연다. 이름하여 '경남중고 총동창회관'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전격적으로 매입 계약을 하고, 12월 27일 잔금지불, 12월 30일 명의이전이란 절차를 마무리했다. 매입 가격은 30억원이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지난 2018년 3월 취임하면서 시작한 동창회관 구입기금 모금 운동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1991년 4월 분부동창회가 회관 건립을 표방하고 동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던 일을 기억하면 실로 29년 만에 꿈을 이룬 셈이다.

총동창회관으로 구입한 건물은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천수요양병원이었다. 마침 소유주가 이부성(19회) 동문이었다. 현재의 총동창회 사무국이 소재한 건물 바로 옆 지하 1층, 지상 6층의 단아한 건물이다. 너비 30m 대청로변이다. 대지 115평, 건평 82평, 연건평 535평으로 지하 1층에는 최소 6대 이상의 차량

이 주차할 수 있다. 지하철 토성동역에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박 총동창회장은 "저의 진의를 신뢰하고 따라와 준 고액기부자 35명 선배님들과 금일 현재(2월 1일) 829명의 10만원 이상의 일반기부동문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기금 모금 목표금액 45억원을 찍고, 현재 48억원을 초과했다. 오는 5월 20일 기부자 이름게시판을 발주하기 이전까지 모금은 지속할 계획이다. 동문 1천명 기부 참여 목표를 달성하여 그 의미를 더욱 진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총동창회관 리모델링은 지난 1월 16일 건축업 동문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사업자 공개입찰 등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내부 개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다. <기사 3면 넘김>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새로운 '부평동 시대'를 열 회관 건물 정면 모습. 요양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용마들의 보금자리로 탈바꿈 시키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제57차 정기총회 3월 25일 오후 6시 30분 코모도호텔 개최

"총동창회관 6월 20일 개관에 최선 다하겠다"

임기 1년 더 해 완벽한 운영 시스템 만들 계획

박종찬 총동창회장 2020년 신년사



"총동창회관 오는 6월 20일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종찬(25회·사진) 총동창회장이 2020년 신년사에서 밝힌

새해 1순위 과제를 말한다. 박 회장은 경남중고 동문회의 위상에 걸맞은 리모델링과 격조 있는 인테리어를 통해 용마의 자부심을 한껏 고취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자신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관 개관을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명실상부한 '제2의 탄생' 출발점으로 만들면서, 총동창회의 '완벽한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둔다는 각오이다.

박 회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올해 총동창회가 가야할 길을 항목별로 명시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임기 2년 동안의 업무 성과들을 요약해 설명, 총동창회의 발전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박 회장은 이번 총동창회관 개관을 그동안 '숨어 있던 동문'들을 '밖'으로 불러내 동문회에 참여 시키고 소통하

면서 함께 즐기며 함께 모교를 사랑하는 뜻깊은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남고와 경남중, 2개의 모교를 갖는 동문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갖추면서 모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총동창회 조직과 관련, 회장 임기 1년제와 함께 1수석·2수석 부회장제를 신설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질 후임 회장들의 재정적 부담과 후배 기수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와 병행해서 격년제로 치

르던 '용마의 밤'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한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4천명' 과제는 올해 재도전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제작비와 발송비 등을 고려할 때 꼭 성사돼야 할 과제라고 천명했다. 현재 제작 중인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은 오는 3월 25일 정기총회 자리에서 현장판매도 할 계획이다.

박 회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주요 성과는 △총동창회관 구입 △해의지역동창회 포함 조직 체계 완비 및 흑자 재정 기반 마련 △산하단체 활성화 및 신설 편성 △총동창회 밴드 개설 및 소통 강화 △각종 행사 적자운영 탈피 등이다. <신년사 전문 7면 게재>

동창회보 제427호 증면, 40P 발간

2020년도에는 구독료 납부 4,000명 목표 달성합니다. 부산은행 101-2053-6722-04 예금주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새 지평 열 총동창회관

“용마인들의 아름다운 동행이자 정성의 기념탑이어라”

총동창회관 구입 축하메시지

오는 6월 20일 경남중고 총동창회관이 개관될 예정이다. 6만여 용마인들이 중심으로 경하할 일이다. 동문들의 마음과 정성이 한 데 모여져 이뤄낸 빛나는 성과이다. 감격스럽고 자랑스럽다. 이제 우리는 동창회 역사의 새로운 장(章)을 펼쳐려 하고 있다. 이 순간 여러 동문들의 소감과 조언, 그리고 다짐들을 들어보았다.

자랑스러운 용마인의 나눔 정신

진도영(5회) 동문



감개무량하여 용마인들이 자랑스럽고 용마인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한 동창회보에서 읽은 ‘국적은 바꿀 수 있어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많은 용마인들이 합심, 기금 45억원의 재원을 기부하여 신축 동창회관을 건립한 다니, 나는 참으로

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글귀가 연상됩니다. 우리 용마인들이 서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한결같이 나눔과 기부 문화를 실천하면서 두터운 우정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지속한다면, 용마인들의 현재와 미래에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남중고 용마인들의 우정과 행복을 위해서 후배님들이 한결같은 나눔과 기부의 ‘아름다운 동행’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열정적 노력이 하나로 묶어내

김경희(9회) 재경동창회 고문



경남중고동창회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동창회관을 마련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한 박종찬 회장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바람직한 동창회는 좋은 지도자가 만듭니다. 부담스러운 책임을 맡 사람에게 미루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첫 출발부터 열정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박종찬 회장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벤치마킹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고 꾸준히 실천한 보람입니다.

문제는 제기되었지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한 박종찬 회장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동창회관은 용마들을 하나로 묶어 엮어낸 귀한 정성이 담긴 선물입니다. 멋진 디자인을 한 박 회장과 멀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조동훈(9회) 동문이 2만6천달러(3천만원)를 기탁하는 등 참여해 주신 동문들에게 감사합니다.

열정은 운명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역경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기쁘고 용기를 주는 최고의 꿈을 꾸 용마들에게 감사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꾸어 이룩한 경남중고동창회가 큰 획을 한게 더 그었습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활 수 있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활 수 없다(신채호)’고 했습니다. 역사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편안한 만남의 장소, 명품 회관 기원

손부흥(15회) 동기회장



먼저 박종찬 총동창회장의 열정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동창회관 건립이라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박 회장의 추진력에 매료됐습니다. 그런 열정에 부응하고자 기금 모금에도 참여했습니다. 액수를 떠나 많은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경

남중고동창회의 위상도 과시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동창회관의 위치나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만족하지 못하는 동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동창회관이 동문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고, 모든 동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면 그런 불만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동문들에게 편안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50년 이상의 세대 차이를 아우를 수 있는 명품 동창회관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남중고동창회의 위상도 과시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동창회관의 위치나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만족하지 못하는 동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동창회관이 동문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고, 모든 동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면 그런 불만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동문들에게 편안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50년 이상의 세대 차이를 아우를 수 있는 명품 동창회관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동창회 발전에 획기적 변화 기대

송규정(16회·(주)원스틸 회장·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총동창회 자문위원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건물의 입지나 규모 면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멋진 회관이

동창으로 한번 맺어진 인연은 영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박종찬 회장이 중심이 돼 별도의 총동창회관을 마련

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동창회관 마련을 계기로 총동창회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과거 선배님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배들이 사회에 나아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총동창회와 각 지역동창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동창회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동창회관 건립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박 회장의 그동안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소통과 참여로 열린 동창회관 건립을

강창수(21회·대경F&B주) 회장·(학)상주학원 이사장) 총동창회 자문위원



기에 동창회관 건립이라는 카드를 제시하고, 성과를 거둔 박종찬 총동창회장께 박수를 보냅니다. 새로운 비전을

경기 침체와 교육 환경의 변화로 동창회 활동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교의 동창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시

갖고 위기에 정면 도전한다는 각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향후 건립될 동창회관은 동문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모임과 단위동문회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만나면 더욱 재미있는 동창회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임대 수익은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제에 ‘자랑스런 경남고(용마)상’ 제정과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경남중고인대회’ 신설을 제안합니다.

부산 방문 시 갈 곳 하나 더 생겨

예해덕(25회)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 동문



은 원형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안고 있는 기억들이 블랙홀처럼 빨아당기더군요. 저도 끝없이 기억 속으로 흘러갔지요.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

1989년도에 재미과학자 초청으로 모국을 7년 만에 처음 방문했을 때 모교를 오랜만에 방문하니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

같아서요. 이제 경남중고 총동창회에서 모교의 찬란한 역사를 물려받아서 새로운 기념탑으로 총동창회관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원형교실이 주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제는 총동창회관이 그 맥을 이어받아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이라 믿고, 또한 동문들의 훈훈한 마음의 교차로가 되길 바랍니다. 나도 부산을 방문할 때, 꼭 가볼 곳이 하나 더 생겨서 기쁩니다. ‘후라경남!’.robertyae@gmail.com

동문들 간 화해와 상생의 계기 되길

박명진(33회·고려개발주)·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회장) 총동창회 기획분과위원장



넉과 크고 작은 정성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동문의 열정의 결정체입니다. 총동창회가 구입한 회관용 건물은 부동

총동창회관 건립은 경남중고전 동문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곧 개관할 회관은 기금 모금에 앞장선 박종찬 총동창회장

산 가치가 높고 활용성 등 가성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총동창회관이 동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선후배간 소통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임대 수익금은 후배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랍니다. 전통 깊은 명문 모교의 역사와 정신,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맹활약을 담은 역사관으로서 애교심도 고취하길 기대합니다. 총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하며 동문들 간 화해와 상생, 단합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긍심으로 가슴 벅차”

모교의 발전과 동창회 화합 계기

허부남(37회·금화스틸 회장)
총동창회 문화분과위원장



개교 78주년을 맞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교 동창회가 드디어 동창회관을 개관하는 것은 동문의 한사람으로 뿌듯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동창회관을 갖고자 하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고 알고 있었지만 지

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박종찬 총동창회장님의 식지 않는 열정과 동문들의 크고 작은 관심과 참여가 드디어 오랜 숙원사업인 동창회관 개관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창회관 건립을 계기로 모든 동문들이 다시 한번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다지고 모교의 발전과 동창회 화합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동창회 한 단계 더 도약하길

우영환(40회·태흥이공업사 대표)
총동창회 경미회 회장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동창회관 건립 실현을 축하드립니다. 동창회의 숙원사업이 동문들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

님과 집행부, 선후배님들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창회관 건립은 경남중고 총동창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문들 간 소통과 단합의 터전이 되고, 화합과 전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 봅니다. 경남중고 동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동창회에 도움이 되는 동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진취적인 동창회 활동 각오

정 신(47회·효창수산 대표) 동기회장



피그말리온 효과! 지극히 간절히 원하고 실천하면 이루어진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회관 건립! 진심을 담아 감축드립니다. 저 또한 총동창회 미래를 위해 회관 건립을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의 밑알을 후원하게 되어 47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관 건립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명문경

남중고의 터전에 동문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창구, 미래를 위한 도약의 장소, 무엇보다도 글로벌 총동창회 그 길에 금번 회관 건립이 벅찬 계기가 되고 경남중고 미래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서 기대가 큼니다. 거듭 축하드리며 회장님을 중심으로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선후배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47회도 회장님의 리더십을 롤 모델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동창회 활동으로 선후배님들의 가교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확한 목표 아래 서로가 길잡이 돼

김지운(52회·GA코리아 지점장) 동기회장



박종찬 총동창회장님께서 2018년 취임 후 총동창회의 역사를 새롭게 쓸 중대한 과업의 하나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

하신 사업 중의 하나인 총동창회관 보유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경남중고 졸업 6만여 동문의 과제이기도 했던 총동창회관 확보를 위해 구

입기금 기부액의 목표를 정한 후부터는 좀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결속과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왔습니다.

동창회관 확보과정에서 경남중고 동문 모두가 총동창회관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서로서로의 멋진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선후배님 모두 땀 흘려 힘든 시기를 잘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용마인의 불굴의 의지와 모교 사랑 그리고 높은 자긍심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자년 새해 쥐처럼 민첩하고 영민하자”

박윤성(24회) 화백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쥐띠해, 그것도 상서로운 흰 쥐해를 맞아 새해 축화(祝畵)를 동창회보 편집실로 보내왔다. 의인화한 쥐가 흥에 겨워 춤추는 모습이다. ‘오리무중’과 ‘고군분투’로 제시된 올해의 경제 전망 속에서 총동창회관 개관을 맞는 경남중고 용마들에게는 “얼씨구” 하면서 춤추는 한해가 되길 기원했다. 민첩하고 영민하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쥐의 긍정적인 면을 닮으면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이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창회보 광고 문의 환영
Tel. (051) 245-7551~3

<1면 이어받음>
총동창회관은 우선적으로 동문을 위한 공간, 즉 동문의 사랑방, 안식처 나아가 사업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물론 모교 지원 재원의 핵심적 창출처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며 기본이다. 총동창회관은 용마장학재단의 소유로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교인 경남고와 경남중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현재 구상 중인 총동창회관 건물 활용 방안은 보면, 1~4층은 임대공간이며, 5층과 6층은 총동창회 사무국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동문에게 우선적으로 입주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예상업종은 커피숍, 식당, 당구장, 기

원, 동기회사무실, 개인병원 및 약국, 여행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설계, 인테리어설계, 지사사무실, 오피스텔, 스타트업 사무실, 일반사무실 등이다. 층별 레이아웃은 5면의 참고도면에 게재. 참고도면은 단지 1차로 구상한 도면이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동문 중 4명이 2월 5일 제안하는 도면들과 절충하여 최종 레이아웃을 결정하게 된다. 임대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 경쟁력이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동문 포함)와 장학재단이 상생하자는 의미이다. 총동창회 사무국에서는 입주 상담을 받고 있다. 연락처 051-245-7551~3

새 지평 열 총동창회관

총동창회관 건물 구입 의미

'제2의 탄생' 맞은 총동창회, '부평동 시대' 꽃 피워야

한마음 모은 에너지로 한 차원 높은 '우정의 장' 펼치길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2020년에 새로 태어난다. 오는 6월 총동창회관 개관으로 명실상부한 '제2의 탄생'을 맞게 된다. 지난 2년 동안 줄이든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이 한데 모여져 훌륭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자랑스럽다.

총동창회관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단합하고 뭉친 결과물이다. 지난 1991년 4월 동창회관의 위치 및 주관처 등을 묻는 설문조사까지 실시하는 등 '대망'을 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실행력이 따르지 못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 회의적이었고 자신감이 없었다. 그만큼 우리의 결속력과 단결력이 미약했다는 말이다.

그로부터 29년 만에 꿈을 이루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용마의 자존심과 자긍심 그리고 단결력을 이미 회관 구입기금 모금 목표액을 초과했고, 건물도 매입한 상태이지만 기부자 이름게시판 발주 이전인 5월 20일까지 모금을 계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 되는 마음의 동그라미를 더 크게 그리자는 의미이다.

동창회관은 용마 동문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다. 물론 모교 지원 재원의 중요한 창출처이다. 동문은 물론이고, 모교와 재학생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오늘의 영광은 박종찬 총동창회장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초석이 되었고, 또 이를 신뢰하고 따라준 동문들이 있었

기에 가능했다. 우리 모두는 '하면 된다'는 교훈까지 얻었다. 동문사회는 화합과 단결의 기치를 더 높이 들게 됐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그동안 정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고, 운도 따라 좋은 가격에 회관을 구입했다. 이제 그 결과앞에서 웃음을 짓고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동창회관 개관을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걸어온 동창회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절대적인 과업이다.

무엇보다도 동창회관 구입 목적이 재원 창출이 우선인 만큼 임대수익의 극대화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낙관할 수 없는 미지수의 상태이다.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는 일이다. 각 동기회와 직능단체를 비롯한 동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절실하다. 가능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둬야 한다. 건전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걸려져서 빛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동창회관 건물과 수익을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일 역시 만만찮은 과제이다.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라 보다 세심한 준비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분야 동문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자문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

동창회관 구입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가격에 구입한 만큼 약점도 굳이 찾자면 찾게 된다. 그렇다고 이를 문제시하여 동문 전체의 한마음의 결과물에 흠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교가처럼 '찬란한 옥과 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 같이 닳리고 닳린다'면 우리의 동창회관은 '명품'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후배들에게 오롯이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동창회관 개관을 앞두고 총동창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업무량이 폭주할 것이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집행부와 사무국 그리고 용마 장학회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라는 소명의식으로 순조로운 동창회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총동창회관 건물에 가상간판을 시현한 모습

총동창회관 개관 진행과정과 운영 과제

"건물 임대와 관리에 총력 쏟아야 한다"

하나하나 모두가 녹록찮아...동문 협조·관심 절실

총동창회관은 지난해 말 명의 이전까지 끝난 상태이며 개관일자를 6월 20일로 잠정 확정해 둔 상태다. 내부 실측 조사와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쳤다. 실제 리모델링 작업 기간은 4개월 남짓 남았다. 또 이 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녹록치 않은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며, 회계 처리는 누가 맡을지 등 간단치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은 리모델링과 임대사업자 선정이 선결 과제이다. 지난 1월 16일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각 층별 참여 업체 사업 제안서 공모가 지난

2월 5일 열렸다. 이와 병행해 임대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임대인의 사업 종류 및 기호에 따라 내부 구조 디스플레이가 달라지기에 그렇다. 일반인의 임대 신청이 많을 경우 동기회 사무실 등 동문 배려 공간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동일업종 복수 신청 시에는 조정 또는 공개입찰 등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총동창회관 개관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6만여 동문과 동문 가족의 관심을 끌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주목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동문들이 각출한

성금으로 마련한 동창회관에 담긴 용마의 정신을 선양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개관 행사 초청대상자 선정에서 기념품 준비, 당일 행사 진행 시나리오, 소요 예산, 홍보 등 챙겨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용마의 밤' 행사를 넘어서는 빈틈없는 준비가 요구된다. 회관 개관 홍보와 관련, 지역 일간지에 광고를 낼 계획도 갖고 있다. 동문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동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자는 의도이다.

건물 관리는 지속적인 일로서 어느 하나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결코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화재, 경비, 엘리베이터, 임대사업자, 주차, 청소, 관리비 책정 및 징수, 회계 등 관리할 일

이 무수하다. 외부 용역, 자체 처리 구분에서 담당자 선정과 임금 지급문제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기다리고 있다. 관리 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 임금 및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수입 대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 모교 지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경험 있는 동문들의 조언과 협조가 절실한 형편이다.

총동창회관 구입에 따라 기금 모금도 달라진다. 회관 구입용 기부금은 오는 5월 20일까지 받는다. 6월 20일 회관 개관 일정에 맞춰 기부자 이름게시판을 발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모금을 연장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동참시켜 용마의 기상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 이후로 접수되는 금액은 새로 도입한 수시기부시스템으로 축적되어 개인별 기록으로 남는다. 동문들의 작은 정성도 놓치지 않고 동문역사에 남기겠다는 의지이다.

“명예를 걸고 리모델링 공사, 명품 회관 만들어내자”

총동창회관 현장설명회 개최...7개 동문 업체 제안서 준비

총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설명회가 지난 1월 16일 오후 총동창회 사무국과 회관 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1차 리모델링 자료(도면 하단 게재) 배포 및 현황 설명에 이어 2차로 현장 각 층별 확인 및 질의, 그리고 3차로 의견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종합건설 및 실내인테리어 6개사, 철거전문(비계) 1개사 등 동문업체(총 7개사)가 참석하였다. 간판 전문 동문업체 1개사도 참관했다.

행사를 시작하면서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설명회 개최 취지와 중요성 및 상징성 등을

말하고 구상 중인 각 층별 용도, 제안서에 답을 개괄적인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동창회관 리모델링의 기술적 자문을 담당할 이영학(26회·건축사사무소 이사)은 각 층별로 기술적인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이 자리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어 현장 확인 및 도면 검토가 있었다. 회관 입구 및 외관 구상 설명에 이어 6층부터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료 도면과 리모델링 부분을 비교하였다. 참가자들의 질문 사항이 많은 등 관심도가 높았다. 현장 확인 후 다시 사무국은

로 이동,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화장실 위생용기, 철제샷시(창틀) 등 상태가 온전한 것은 가능한 재활용기로 했다. 또한 자재 및 집기 등은 최대한 동문가족 업체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 방식이 중요 내용으로 알려졌다. 참가동문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받고자 실내디자인 설계(평면도 제작)제안 후 입찰(공사금액 등 추가제출)방식이다. 리모델링 전체 일정은 △1차 제안서는 2월 5일까지 제출 △제안서 심사 2월 6~12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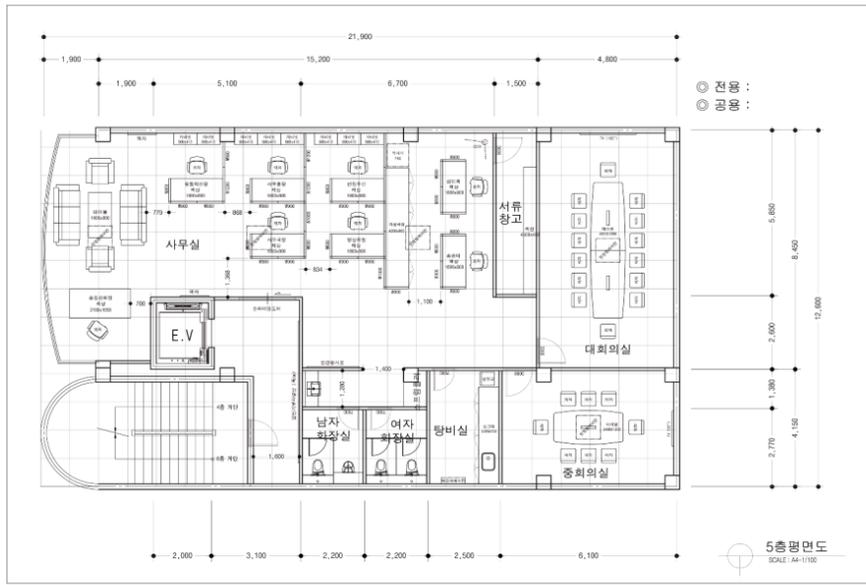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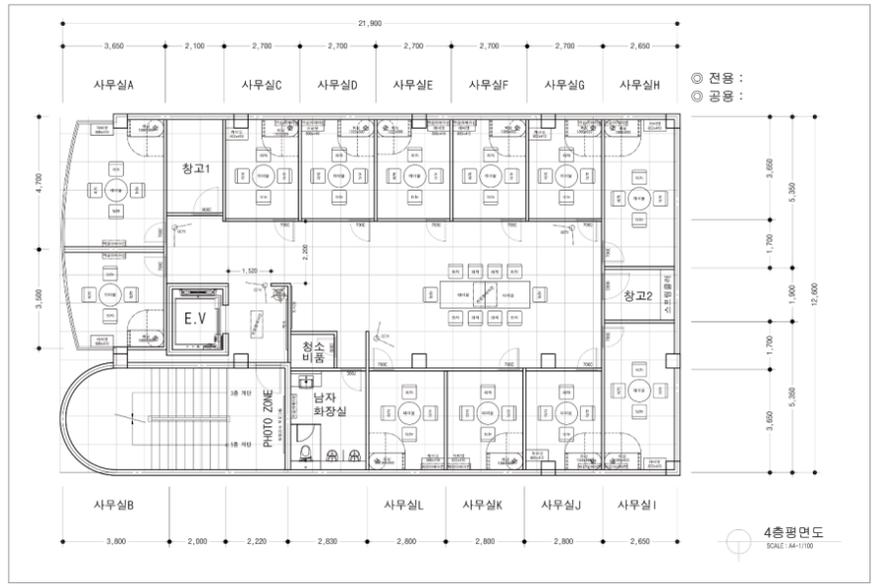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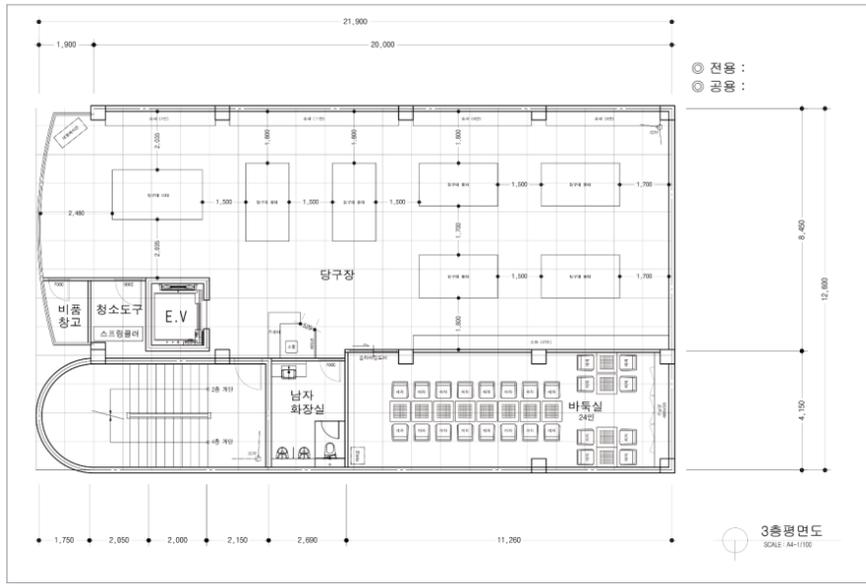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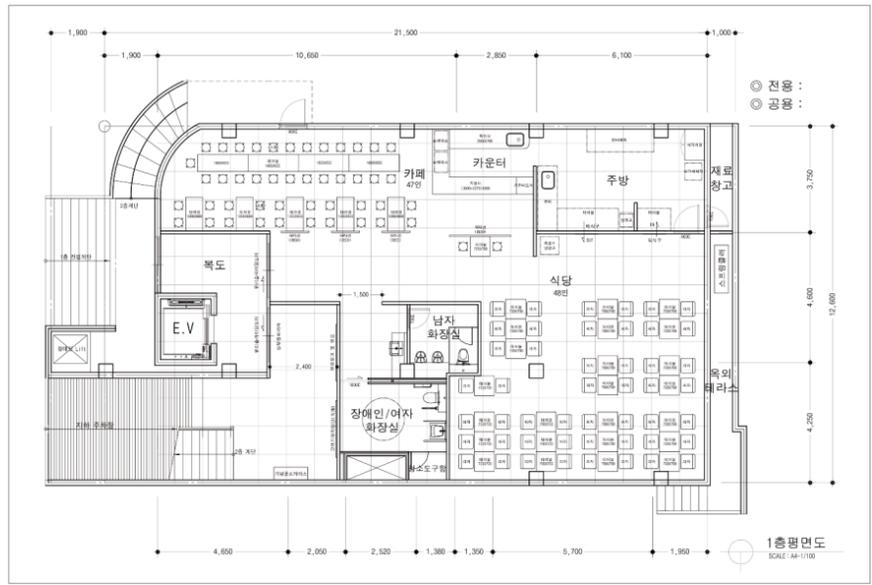
방서 확정 2월 26일 △견적서 접수 2월 28일 △업체 선정 3월 6일까지 △리모델링 공사 3월 7일~4월 30일 △개관 6월 20일 등으로 짜여졌다. 철거기간 및 이사·청소까지 고려해 총 공사기간은 7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명회를 마치면서 박 총동창회장은 “숙원사업인 동창회관 개관 작업을 동문 여러분이 맡게 된다. 명예를 걸고자 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명품 동창회관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충현(49회) 용건회 사무차장의 도움말로 작성〉



지난 1월 16일 열린 총동창회관 리모델링 현장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건물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용마들의 기부, 우정과 의리와 사랑 이야기로 승화

예상하지 못한 동문의 고액기부, 감동 더 커져 동문 사기 높여 정백수(28회·목사) 동문, 첫 노령연금 타 “의미 있게 사용” 기부 김영휘(43회) 동문, 은행 문 여는 날 무조건 찾아가 1만원 송금 새해 첫 기부 박경곤(43회), 작년 최종 기부 추봉실(17회) 동문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구입 기금 모금 운동 기한이 지난해 연말까지에서 오는 5월 20일까지로 지속된다. 이날짜는 회관 구입 기금 기부자 명단을 새길 게시판 제작발주일이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는 더 많은 동문이 기부에 동참토록 기금접수창구를 열어둔다. 이날 이후 접수분은 수시기부시스템에 축적하게 된다.

그동안 기부와 관련해 많은 미담과 사연이 쏟아졌다. 모두가 하나하나의 전설로 엮여지고 있다. 마치 역사가 흘러 흘러 장강을 이루듯 우리 용마의 아름다운 우정과 의리와 사랑 이야기가 씨줄 날줄 길게 얽혀지고 있다. 새로운 미담과 사연을 소개한다.

○...예상 못했던 고액기부는 동문들의 사기를 높여주며 모두의 자랑으로 회자된다. 지난해 11월 말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에게 경남 창원에서 ㈜동진생명연구원을 운영 중인 이경재(13회) 동문이 전화를 걸어왔다. 10월 중순 열린 13회 홈커밍데이 행사 때 만났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전화였다. 기부 의사를 밝혀 온 것이다. 박 회장은 ‘며칠 전 발간된 동창회보의 관련 기사가 마음을 굳히게 했나’라고 생각을 했다. ‘3천만원 동관’ 추가를 예상했는데 입금액은 5천만원이었다. 박 회장은 너무 기쁜 소식이라며 곧장 총동창회 밴드에 ‘33번째 고액 동관자리’ 소개했다. 이경재 동문은 “동창회관 염원

을 꼭 실현해 달라”며 신신당부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경남고 체육관에서 열린 야구부 후원의 밤 및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도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총동창회에 병원건물을 매각기로 한 이부성(19회) 동문은 박 회장에게 3천만원의 기부금을 내기로 약정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서 동기생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니 병원 건물이 총동창회관이 된다. 예사 인연 아니다. 동창회에 보다 큰 기여를 해라”고 요청하며 5천만원 기부를 권유했다. 신뢰하던 친구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 망설임 없이 “오케이”답이 날아왔다. 깊은 우정이 아니면 연출될 수 없는 장면이었다.

○...이미 3천만원 고액기부를 실천한 김경일(15회) 동문이 지난해 12월 18일 1천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전 주에 동창회관을 구입한 소식을 알린데 이은 추가기부로서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한 쾌척이었다. 수시기부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양새이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퀄리티 리모델링으로 우리 모두의 큰



이경재(13회) 동문



김경일(15회) 동문



김영휘(43회) 동문



박종찬(75회) 동문

자부심 결정체로 만들자”고 말했다.

○...1954년생인 정백수(28회) 동문은 지난해 11월 28일 722번째 동창회관 기금을 기부했다. 기부금 26만원은 생애 첫 노령연금이었다. 남천동 온누리침례교회 목사인 정 동문은 “동창회에 지금까지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라 의미 있게 써보자는 뜻에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동문은 현재 36번째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동창회관 기금 모금 과정에서 오로지 자신의 방식대로 깨끗하게 기부 약속을 지킨 동문이 있다. 매일 1만원씩 기부하는 방식이다. 주인공은 김영휘(43회) 동문. 김 동문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1만원씩을 기부했다. 일수로는 245일. 지난해 협찬금 10만원을 내 김 동문의 기부금 합계는 255만원이다.

김 동문은 은행을 매일 찾아 1만원씩 냈다. 단, 은행이 휴무인 날은 전날 미리 냈다. “자동이체하면 신경 안 쓸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를 독려하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은행을 매일 다녔다”고 그는 말했다. 김 동문은 “나중에는 저 자신과의 대결이 되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뿌듯하고 기분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송월, 영신 타월 대리점을 부평동에서 하고 있다.

○...2020년 동창회관 구입 첫 기금

기부자와 2019년 마지막 기금 기부자가 밝혀졌다. 박경곤(43회) 동문이 10만원을 기부하며 새해 첫 기부자가 되었다. 801번째였다. 2019년 마지막 기부자는 추봉실(17회) 동문이었다. 800명째로 100만원을 기부했다. 박종찬 회장이 밴드에 알린 시각은 각기 1월 1일 0시 59분, 12월 31일 오후 11시 32분이었다.

참고로 구독료 납부 1호 주인공은 김기덕(37회) 동문이다.

○...경남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종두(75회) 동문이 기금 모금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박종찬 총동창회장 통장에 75회로 10만원이 찍혔다. 797명째 기록이다. 알고 보니 박형규(43회) 동문의 아들로서 경남고 야구부 좌완 투수였다. 박형규 동문은 이날 796명째 기부금 30만원을 냈다. 모교 사랑이 대단한 부자(父子)로 각인됐다.

○...기부자가 없던 70회 동문의 첫 기부도 나왔다. 박무성 동문이 지난 1월 5일 811명째를 기록하며 10만원을 기부했다. 70회대 기수의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고 기수로 분류되고 있는 48회 기수에서 2019년 말까지 7명의 참여자가 나왔다. 김춘호 서민중 윤석권 이충훈 이형철 차원일 한병주 동문이다. 2020년 총동창회 복귀의 청신호로 여겨진다는 해석이다.

○...총동창회관 기금 기부자 최연소 기록을 77회 김건우 동문이 갈아치웠다. 75회 박종두(경남고 2학년) 동문이 기록을 보유 중이었다가 지난 1월 30일 김 동문이 823명째 기부를 했다. 김 동문은 올해 경남중을 졸업하는 기수로 보여진다.

총동창회관 계약 체결 막전막후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현 사무국 바로 옆 건물, 건물주는 19회 동문

“회장님, 30억원짜리 관장은 6층 건물인데, 동창회 사무국 자리 옆입니다. 현재 요양병원 영업 중입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의 핸드폰으로 흘러나온 수영구 남천동 소재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었다. 지난해 12월 3일 오전이었다. 박 회장은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싼 가격에...’. 박 회장은 부동산중개인에게 물었다.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이 각각 얼마지요?” “알아보고 나중에 답드리겠습니다”는 말이 나왔다.

그사이 박 회장은 카톡으로 사무국에 물었다. “우리 사무국 바로 옆에 의료시설 건물이 있나?” “요양병원입니다.” “뭇

층이나? 건물 외형은 어땠노?” “천수요양병원-주소 부산 중구 부평동 4가 51-3지하 1층, 지상 6층” “신 국장, 한번 들어가봐라. 관장겠는지? 외관과 내부 사진 찍어 보내다오. 관장은 가격에 나와 있다” (이상 오전 9시 36~58분 기록) 곧이어 건물 사진과 면적, 병실·배드 수 정보 가올랐다.

그사이 부동산중개소에서도 연락이 왔다. “토지 25억원, 건물 5억원입니다.” 박 회장은 내심 “그렇다면 관장은 가격이다”면서 발동을 걸었다.

12월 6일 오후 경남고 체육관 야구부 후원의 밤 및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박 회장은 총동창회관 구입 대상 건물 확정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며칠 사이 건물을 둘러보고 마음을 굳히고 이날 낮 요양병원 건물주를 만났다. 뜻밖에 19회 이부성 동문이었다. 연말 이전에 병원사업을 정리하려던 참이었다. 그시점에 다른 이와 건물 매매 흥정이 오갔다. 거의 계약체결 직전 단계까지 와 있던 중이었다. 박 회장은 동창회관용이라 설명하고 구두계약을 맺었다. 이 동문의 부인과도 약속을 나누며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 자리서 이 동문은 박 회장의 권유로 동창회관 기금 3천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한편 이 요양병원 건물을 지은 사람이 박용일(16회)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중고 동문과는 뗄 수 없는 숙명적인 연을 지닌 건물임이 자명하다.

박 회장의 이야기를 들은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그 병원은 내가 잘 아는 건물이다. 이부성 친구는 동기들에게 병원

매각을 맡겼다. 동창회관 건물로 권하고 싶었지만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봐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잘 되었다. 며칠 전만 해도 34억원에 흥정이 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동문에게 전화를 걸어 동창회관 기금 기부금을 5천만원으로 올리도록 권유했다. 흔쾌히 수락하는 답변이 날아왔다.

지난해 11월 초 동창회보 426호에 총동창회관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고 홍보를 했다. 몇몇 건물이 추천됐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다. 다소 우려하던 박 회장은 직접 나서기로 했다. 45억원대 규모로는 관장은 지역의 총동창회관용 건물을 사기가 힘들었다. 부지를 매입해 신속할 작정을 하고 수소문도 했다. 그러나 그만큼 금액으로는 연건평이 제대로 나오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차에 이 동문의 요양병원이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2월 13일 오후 계약체결이 이뤄졌다.

박종찬 총동창회장 2020년 신년사 전문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4천명 재도전...축쇄판 제4집 3만원에 판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2018년 3월 7일 취임 이후 약 2년간 우리 동문회는 정말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퇴임연설 제목 'Yes we can yes we did'와 같이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첫째, 총동창회 자력으로 모교와 가까운 부평동 대청로 대로변에 6층짜리 동창회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창회관 구입 목망이 1991년에 표면화 되었으니 실로 29년 만에 소원 성취했습니다. 860여명의 동문이 동참하는 단결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총동창회관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둘째, 매년 3월 총동창회의 새 조직표를 발표하면서 재경동창회를 포함한 국내 각 지역동창회 및 해외지역동창회의 회장과 사무국장 등을 총망라하여 동문들에게 알렸습니다. 특히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를 직접 방문하여 총동창회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 조직을 활성화했습니다.

셋째, 경야회, 용마바둑회, 용마골프회가 새로 선임된 회장 조직 하에 재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9개 지

구동창회 완성과 40회 이후 기수로 구성된 경미회(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의 출범은 걸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총동창회 밴드를 개설해서 해외 동문 포함 1,5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대형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시간 선후배간 의견을 교환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공지사항이나 국내외 지역동문회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연회비를 납부하는 임원들로 구성된 집행부를 통해 흑자 재정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회장 연회비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중추역할을 하는 분과위원장의 기수별 고른 분포를 통해 조직과 재정을 보강했습니다. 또 회장과 같은 기수의 후원모임인 운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여섯째, 동창회보 구독료 수금 4,000명 목표에 대해 3,412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동창회보는 최근 들어 기존 24면에서 32면으로 증면,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용마의 밤 행사, 기별야구대회와 용마골프대회 등에 많은 동문들이 적극 협찬하여 대회별 적자 운영을 탈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관 구입기금 모금운동을 통해 기부문화가 동문회내

에 축적된 점은 큰 소득입니다. 기부금 축적 결과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브론즈급에서 5억원 이상의 다이아몬드급까지 8등급으로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압축한 지난 2년간의 실적에 덧붙여 올해의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창회관을 6월 20일에 개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회 위상에 맞는 리모델링과 격조 있는 인테리어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회관의 마무리를 위해 제 임기를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개관행사 소식은 부산일보, 국제신문의 전면광고를 통해 동문회에 나오지 않는 동문들도 방문하고 싶어지는 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총동창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여 개인적인 재정 부담을 줄여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수석부회장(차기회장)과 2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 자리를 신설하여 취임 전부터 선후배와 사전 교류를 통해 취임 후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사정에 따라 한 기수에서 2명까지 회장 배출 길을 열어 이전의 회장 임기 2년 제도를 보완합니다.

셋째, 동창회보 301호부터 400호가

지를 압축해서 인쇄한 회보축쇄판 4집을 1,000부 발간해서 3월 25일 제37대 회장 취임식을 겸하는 정기총회에서 권당 3만원에 현장 판매하겠습니다.

넷째, 동창회보의 더욱 알찬 편집을 위해 '구독료 3만원 납부 4,000명'에 재도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호회 및 직능단체의 2차 활성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즉 경야회의 완전한 변신, 고교대항 골프대회 및 바둑대회 정기적 출전, 용마코스 지원, 새로운 직능단체(상공인·교수·의사 동문모임) 설립 등을 통해 선후배간 친선도모와 협조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섯째, 2년마다 12월에 개최되던 용마의 밤 행사를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해서 동문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2개의 모교를 갖는 동문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가사의 교가를 제창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경중(구 토성중 포함)과 경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모교 내에 설치된 조형물들의 재배치, 경고 실내야구연습장의 대보수 작업, 경중에 YS홍상 설치 등 현안을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중고총동창회장 25회 박종찬

'시드니·오클랜드 동창회 활성화 '햇불'

박종찬 총동창회장, 현지 방문... 동문 결속 효과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2019년 해외지역동창회 방문 마무리행사로 지난해 12월 16~28일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박 회장은 시드니와 오클랜드 지역동창회를 방문, 총동창회와 소홀했던 소통의 창을 재건하고, 이 지역동창회의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시드니지역동창회 방문은 12월 17일 이뤄졌다. 오랫동안 동문 간 만남이 단절됐던 이곳 동창회는 이번 박 회장의 방문으로 재건의 기치를 들었다. 박 회장은 "한 끼의 저녁식사와 2차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팔빙수 한 그릇을 나누는 짧은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자주 보고 지내자고 약속까지 할 정도로 깊은 정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서 총동창회관 구입 희소식과 최근 동문회의 단합 소식 등 바람직한 변화에 대해 설명하여 참가 동문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이번 모임은 브리즈번에 거주하는 장세영(27회) 동문이 주선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현지 동문참석자(11은 부인 동참)= 김두용(18회) 채천석(11) 이익수(11) 김인균(이상 22회), 강문철 이승호(이상 30회).

○...박 회장은 12월 27일 오후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그랜드 밀레니엄호텔 2층 일식당 KATSURA에서 이 지역 동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현지는 마침 여름휴가시즌이라 참석 동문은 많지 않았다. 모국의 총동창회장의 최초 현지 방문 소식에 많은 동문들이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박 회장은 "현지 동문들에게 모교와 동문회 소식을 소상히 전달했다. 특히 일일이 금도금 배지를 달아주자 동문들은 무척 감격했다"고 밝혔다.

오클랜드지역동창회는 분기마다 모임을 갖는 등 건실한 지역동창회로 존재하고 있다. 10세대에서 40세대까지 잘 조화된 분위기였다. 총동창회에서 회기를 제작해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박 회장은 23일 저녁 진인태 동기생을 휴가일정 사정으로 별도로 만나 식사를 하며 모국 소식을 전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 내외가 권두성 동문과 함께 호주 시드니(사진 위)와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방문해 현지 동문들을 격려하고 동문회 활성화를 당부했다.



◇현지 동문 참석자=박성규(13회) 정강홍(11·15회) 이왕봉(회장+1·29회) 박봉수(33회) 하병갑(37회) 김산(김성혁)(사무국장·41회) 김성민(45회).

○...이번 12박13일의 일정에는 권두성(38회) 기획분과위원장이 박 회장을

보필하며 현지 동문들과 만남의 정을 더욱 깊게 했다. 권 동문은 세계 최초 번지점프의 장소인 AJHakett 다리 위 43m 높이에서 몸을 날리면서 '경남중고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를 외쳤다고 한다.

2020년 신년 포부

“오라, 느껴라, 즐겨라! 우리의 우정을”...숨은 친구찾기 매진

2020년의 신년 포부 · 인사말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동기회장, 동호회 회장 몇 명을 동창회보 지면에 초대했습니다. 개인적 새해 설계나 인사말, 동문회를 향한 바람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면 사정상 일부 내용은 축약해서 게재합니다.

하루 생활 목표 설정에 실천
○조성재 18회 동기회장



새해 아침은 언제나 희망으로 설레게 한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 지금부터 1년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 하루 생활 목표를 설정했다.
- ①하루 종일 웃자.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 보며 웃는다.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웃는다. 음악소리에 맞춰 웃는다. 운동하며 웃는다. 혼자서 그냥 웃는다.
- ②여유시간에는 음악을 듣자.
- ③열심히 책을 읽자. 서점을 자주 방문하고 좋은 책을 잡는다.
- ④야외에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자. 무조건 걷는다.
- ⑤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자. 올해는 영어 외에 중국어 또는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다.
- ⑥충분한 수면을 취하자.
- ⑦동문들과 자주 만나자. 술 대신 커피를 마신다.

동문 위한 새해맞이 시 ‘예쁨’ 선사
○채행윤 23회 동기회장

예쁨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니가.

뭐라고!
자신있게 묻고 있잖니.



♡♡♡♡♡♡♡♡♡♡♡♡♡♡
자신 있는 자기 믿음의 새해!

회관 리모델링 기쁜 마음으로 일조
○이영학(26회) 용건회 회장

출신학교 동문의 위상은 제대로 된 동창회보 발간과 동창회관 운영 여부에 달렸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올해 동창회보 발간 52년 궤적 위에 독자적인 동창회관 보유라는 새로운 역사를 그



려 나갑니다. 매우 뜻깊은 202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공동체의 결속력과 정성의 결과물인 동창회관 보유는 엄두를 낼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목표였습니다.

총동창회관 구입 기금 모금을 펼친 지난 2년의 과정을 보면서, 45억원 목표달성의 의미를 넘어 우리 동창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뚜렷이 느꼈습니다. 한마음이 된 동문들의 정성을 모아서 ‘오랜 숙원’을 해결한 박종찬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활기찬 노력의 결실에 찬사를 보냅니다.

동창회관리모델링은 동창회의 활성화와 결속 강화, 모교 장학지원을 위한 임대수의 극대화, 방문객에 ‘격조 높은 동문회 위상’ 부여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용건회 회원 모두는 동문들이 하나가 된 이 기세를 몰아 기쁜 마음으로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동창회 유관 동호회와 적극 교류
○안청홍(29회) 등대회 회장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모든 등대회 회원이 참여하는 분과별 동호회 모임에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총동

창회 산하 유관 동호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펼칠 것을 희망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동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등대회 회원들의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등대회 상징인 등대회보를 올해는 2~3회 정도 발행, 동문 여러분의 동정 소개 및 원활한 상호 교류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신규 회원들이 소개되어 더욱 풍성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금년도에는 해운 향만 물류업계의 현안과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모교 야구부·총동창회 발전 동력 될 터
○이문열(29회) 덕형리그 회장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동문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덕형리그는 야구를 좋아하는 동문들이 각 기수

별로 한 팀을 만들어 풀리그로 경기를 진행하는 동호회입니다. 올해는 참가팀이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경남고 운동장에서 선후배 간

의 불꽃 튀는 페넨트레이스가 펼쳐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덕형리그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단일 중·고교 야구 동호회라 자부합니다. 이 같은 자부심과 긍지가 모교를 빛내고 모교 야구부와 총동창회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기회 활성화 위해 최선의 노력
○장원익 37회 동기회장



우선 자랑스런 경남고 총동창회의 요람인 회관 개관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37회 동기회는 현재 다

방면에서 소모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기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동기회장으로서 올 한해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통하여 오고 싶고, 즐겁고, 많이 참여하는 동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40년 전통의 명성 되살리려 헌신
○조용철 38회 경야회 회장



어느덧 경야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재와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하였고, 경남고 야구를 위한 도움의 활동

도 계속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회원 간 소통불능으로 인해 한동안 활동이 뜸하였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믿음과 신뢰 속에 함께 소통함으로써 경야회의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 경야회는 앞으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해 경남고 야구부를 위해 끊임없는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선후배간의 신뢰와 소통 속에 더욱 더 발전하는 경야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경남고 야구부 후원의 밤 행사에 찬조해주신 박종찬 총동창회장님 이하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여 주저하는 동기 위한 대책 마련
○김영휘 43회 동기회장

우리 43회는 2019년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동기의 협조와 도움으로 30주년 행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 동기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 2020년대 시작이란 아주 의미 있는 해를 맞아 모든 동기들의 적극적 참여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참여를 망설이는 동기들을 위해 이벤트성 정기모임과 동기회 내의 소모임을 적극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동기회 활성화가 총동창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자년 올해 모든 43회 동기들의 가정에 평화와 하는 사업 변창하길 바랍니다.

올해 졸업 30주년, 거듭나는 해 될 것
○안병규 44회 동기회장



경자년 새해는 총동창회와 졸업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저의 동기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경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열심히 생활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명문 경고인의 자부심은 저희가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 30주년 행사가 앞으로 선후배님들과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주시는 회장님과 남다른 애정으로 경남중·고등학교 동창회를 빛나게 해주신 선후배님들에게 저희 44회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임을 대표하여 다짐 드립니다.

각종 소모임 통해 끈끈한 우정 다지자
○김정현 50회 동기회장



우리 50회 동기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50회 동기는 각 소

모임 활동을 활성화 시킬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동기들이 그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의 근황과 옛 추억을 소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고, 그로 인해 동기회의 끈끈한 우정을 다지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색해서 참가하지 못했던 동기들이 부담없이 나와서 소모임 등산, 야구, 당구, 골프 등 각종 모임을 중심으로 스스럼없이 어우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최선을 다해 동기를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창회 소식

“함께 가자” 5월 20일까지 회관 기금 모금 지속



총동창회 고문·자문위원·부회장 합동 신년모임을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정기총회 3월 25일 코모도호텔, ‘용마의 밤’ 12월 3일 롯데호텔 개최 총동창회장 임기 변경·수석부회장제 거론...회보 구독료 납부율 올려야

경남중고 총동창회 고문·자문위원·부회장 합동 신년모임이 지난 1월 10일 오후 서면 월강일식집에서 개최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오후에는 동광동 청수장에서 운영위원 신년모임이 열렸다. 두 행사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보고, 검토되었다. 동창회관 구입 경위, 기금 모금 실적, 새해 주요 행사 일정, 모교 지원 상황 등 총동창회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문·자문위원·부회장 합동 신년모임에는 고문 2명, 자문위원 7명, 부회장 8명, 총동창회 사무국 5명이 참석했다. 운영위원 신년 모임에는 8명의 운영위원, 총동창회 사무국 5명이 자리했다.

〈고문·자문위원·부회장 합동 신년모임〉

1월 10일 모임에서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관 구입과 리모델링에 관해 보고하고, 구입 과정의 스토리를 소개했다. 동창회관 기금 모금은 이날 현재 고액기부자 35명과 일반기부자 815명을 기록했으며, 모금 운동은 기부자 이름게시판 발주 이전인 오는 5월 20일까지 지속해, 동참 동문의 수를 늘린다고 밝혔다.

새해 주요 행사 일정과 관련, 이사회 및 제57차 정기총회를 3월 25일(수·4일에서 연기) 코모도호텔에

서, ‘용마의 밤’ 행사는 12월 3일(목) 롯데호텔에서 가지며, 용마골프대회는 5월 중 실시키로 하되 용마골프회에서 주관토록 한다고 보고됐다.

1월 17일로 예정됐던 집행분과위원장회의에서 논의할 사안들이 사전에 이 자리서 설명 되었다. 분과위원장회의에서 심의할 내용은 총동창회장 임기(2년제→1년제, 기수 연임제 도입) 변경, 수석부회장제 도입, ‘용마의 밤’ 행사 매년 개최 등이다.

박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관장의 선임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 초기 관장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위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창회보 구독료 수금 4천명 재도전,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 발간 작업, 모교 80년사 발간 계획의 불투명성, 그리고 박 총동창회장의 해외지역동창회 방문 성과도 거론됐다.

이 자리서 용마장학회 이사진 변경이 예고 됐다. 송규정(16회) 자문위원을 총동창회 상임고문으로 추대키로 했다.

특히 이날 박 총동창회장은 경남고의 긴급지원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덧붙여서 2019년 경남중고 지원 내역(확정)이 보고됐다.(*상보 및 관련기사 10, 11, 27면 게재, 총동창회 지원내역 동창회보 426호에 게재)

이날 참석자들은 ‘동창회관 운영’이라는 ‘새 시대’의 출범에 즈음 보다 성숙된 동문회가 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리자면서, 진로에 걸림돌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회장 임기 1년제 변경에 대해 우려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임이 가능하고, 수석부회장의 역할 찾기가 제대로 실현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답이 나왔다.

한편 이날 공식회의에 앞서 송규정 자문위원을 비롯, 선배 기수 순으로 건배사를 하면서 동창회 발전을 위한 덕담이 쏟아졌다.

◇참석자=△고문-이용흠(19회) 이병찬(23회) △자문위원-송규정(16회) 남진현(19회·위원장) 이재호 최점수(21회) 광두희 노상우 박흥규(이상 24회) △부회장-이승호(29회) 서하수(30회) 이병태(31회) 류장근(33회) 장인화(35회) 양호진(36회) 이양걸 전삼록(이상 41회) △사무국-박종찬(총동창회장) 옥동훈(25회·사무총장) 김종명(29회·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사무국장) 윤원욱(39회·영상편집위원).

〈운영위원 신년 모임〉

1월 8일 25회 동기생들로 구성된 운영위원 신년 모임에서는 이틀 뒤 열릴 고문·자문위원·부회장 합동 신년모임에서 보고할 내용이 사전 브리핑 형식으로 다뤄졌다. 회의 내용은 앞서 기재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동창회관 기금 일반모금에 25회가 180명에 육박한다. 25회의 단합이 불가사의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동기생들의 협조와 성원이 고마울 따름이다.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동창회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석자=△운영위원-김길수 김상수 김익수 박세철 서병수 오양득 이대우 제영성(이상 25회) △사무국-박종찬(총동창회장) 옥동훈(25회·사무총장) 김종명(29회·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사무국장) 윤원욱(39회·영상편집위원).

한편 이날 모임에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서면 월강일식집에서 4/4분기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서 박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관의 수익사업과 기부자들의 명단 새기는 방법 등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조언과 아이디어를 부탁했다. 또 총동창회관 개관을 계기로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들은 경남중 출신 동문들의 총동창회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개진했다.

◇참석 운영위원=김길수 김익수 김종현 박세철 손기천 오양득 이명철(이상 25회).



지난해 11월 15일 4/4분기 운영위원회 참석자들 모습.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지난 1월 8일 운영위원회 신년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총동창회 소식

경남고 정독실 책걸상, '용마 사랑'으로 해결

천신일(15회) 동문 구입비 기부, 감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전에 기숙사 가구 기탁... "재학생들 본받아 기부자 되길"

경남고와 총동창회가 고심 중이던 과제 하나가 용마의 사랑과 우정으로 풀렸다. 서울 거주 천신일(15회) 동문이 또 한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경남고는 신설 정독실용 책걸상 90조(2,500만원 상당) 구입 비용 조달을 위해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에 'SOS'를 쳤다. 여기에는 야구부 야외훈련장 보수공사비 9,480만원(부산시교육청 지원 3,000만원 제외분) 지원 요청도 있었다. (상세 내용 27면 게재)

책걸상 비용에 대해선 총동창회가 독

지를 찾아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일이 여의치 않았다. 집행분과위원장회의에서 각 기수 분담으로 결론을 냈고, 밴드상으로도 알림이 나갔다. 이 와중에 천 동문이 비용 전액 쾌척 의사를 밝혀왔다. 총동창회는 일부 기수(15, 34, 54회)가 보내온 기부금을 되돌려 주었다. 총동창회는 야외훈련장 보수공사비는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각각 50%씩 나눠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지만, 재경동창회는 거부했다. 천 동문은 "15회 동기회장(손부흥 동

문)이 보낸 (책걸상 비용 기수별 각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동문 전체가 번거롭겠다 싶고, 또 독지가가 없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아 내가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수혜를 받은 재학생들이 이를 본받아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자신도 기부자가 되는 선순환의 아름다운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 동문은 이전에도 기숙사용 가구 일체(1억5천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모교와 동문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의리, 성공한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그의 기부행위에 녹아 있다. 천 동문은



경남고 정독실 책걸상 비용 일체를 쾌척한 천신일(15회) 동문.

한국의 석조유물 수집과 환수에 땀과 혼을 바쳐온 인물로서 서울 성북동에 '우리옛돌박물관'을 개관, 운영해오고 있다.



집행분과위원장 신년 모임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결속을 다졌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회칙 개정 초안 검토... 더 다듬는다

총동창회장 임기 1년제·수석부회장제 추진

집행분과위원장회의

집행분과위원장 신년모임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면 월강일식집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 주요 내용은 동창회관 구입 경위 설명과 각종 사업 실적보고, 정기총회 보고 사안에 대한 사전 논의 등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고문·자문위원·부회장 합동 신년모임에서 거론된 내용(9면 기사 참조)을 포함하여 경남고 지원 요청에 대한 대책, 회칙 수정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총동창회는 2019년에 경남중 2,250만원, 경남고 7,030만원 등 총 9,280만원을 지원했다(동창회보 제426호에 내역 표출 게재). 보유재원 총액은 29억원에서 동창회관 구입 기금 모금액을

포함하여 48억원으로 늘어났다. 경남고는 지난해 12월 중순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에 지원 요청서를 각각 보냈다. 야구부 야외훈련장 보수공사 예산 9,480만원과, 정독실 책걸상 구입 예산 2,500만원(조당 27만원×90조=2,430만원)을 지원 요청했다. (관련기사 11, 27면 게재)

이 자리서 총동창회가 제의한, '야외훈련장 보수공사비를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50%씩 부담' 방안이 추진됐다. 지난 1월 8일 재경동창회 경발위에 '제의 공문(사진)'을 보냈다. 하지만 재경동창회는 지난 1월 21일자 공문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책걸상 비용은 독지가를 찾았으나 나타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 각 기수 분담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다행스럽게 책걸상 비용은 천신일(15회) 동문의 쾌척으로 해결하게 됐다.

이날 모임에서 회칙 개정 초안이 검토됐으며, 정기총회 이전까지 더 다듬어서 제출하기로 했다. 회칙 변경 주요 내용을 보면, 총동창회장의 임기를 2년제에서 1년제로 변경하고 수석부회장제(1수석, 2수석)를 두기로 했다. 또 집행분과위원장회의를 집행위원회라 변경

용마장학회 이사회, 회관 구입 승인

부동산임대사업 등 정관 신설...감사 2명 교체키로

경남중고 용마장학회 이사회(이사장 안강태·11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면 월강일식집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총동창회관 구입에 따른 장학회의 승인과 이에 따른 정관변경, 장학회 감사(2인)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 2020년 장학회 예산서 심의가 주요 내용이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11명의 이사 중 안강태 이사장을 비롯, 이용흥 남진현(이상 19회) 이병찬(23회) 박성철(29회) 손영태(31회) 박명진(33회) 임태영(40회) 이사가 참석,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먼저 장학회 정관을 변경했다. 정관 제4조 2항에 수익사업 개시를 명시하고, 1항 부동산 임대사업(신설), 2항 기획·광고대행업(신설)을 명시하였다. 이로써 장학회 기본재

산이 16억2천800만원(2003년 3월 3일)에서 23억7천200만원이 증액돼 4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어서 부산 중구 부평동 4가 51-3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을 총동창회관용 건물로 30억원에 구입함을 승인했다. 추가 예상 지출 금액을 10억원(이전등록비, 내부 리모델링비 등)으로 산정했다.

세 번째 의안으로 임기 만료 감사 2명(김태우·27회, 서민석·30회)에 대해서는 전원 교체하기로 의결했다.

끝으로 2020년 장학회 예산서를 심의했다. 2020년도에 △경남고 야구부 지원 3천500만원, 우수학생 장학금 500만원, △경남중 야구부 지원 1천500만원, 우수학생 해외탐방 1천만원 등 총 6천500만원 예산안을 책정하였다.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용마장학회 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하고 부분별 호칭은 '○○담당 부회장'으로 칭하기로 했다. 재정편에서는 각종 연회비 내용을 명시했다. 고문단에 '상임고문'을 두기로 했다. 송규정(16회) 자문위원의 상임고문 위촉안이 이날 통과됐다.

또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이 이 자리서 초대 동창회관장으로 선임되었다. 무급으로 임기는 2년이되 연임 가능하다.

다. 이사회 동의 사항이다. ◇참가자=△집행분과위원장-박성철(29회) 김현태(30회) 류명석(31회) 김법영(33회) 박진용(36회) 권두성(38회) 신동훈(38회·신규) △사무국-박종찬(총동창회장) 옥동훈(25회·사무총장) 김종명(29회·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사무국장) 윤원욱(39회·영상편집위원)



재경, “경남고 훈련장 보수비 분담 못한다”

“사업 영역에 해당 안 돼”...총동창회 분담 제안 거부 경남고 지원 대폭 줄어 들고, 경남중 아예 지원 않아

경남중고 총동창회가 재경경남중고 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에 제의한 ‘야구부 야외훈련장 보수공사비 50%씩 부담’ 방안이 좌절됐다. 재경경발위는 지난 1월 8일 총동창회가 보낸 공문에 대한 답신(사진)을 지난 1월 21일 보내 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안이 ‘사업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야외훈련장 보수가 ‘모교 발전’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재경경발위 답신에는 2019년 사업실적을 참고로 기술했다. ‘장학금 조로 약

1.97억원, 학교 지원비 조로 약 5천만원, 합계 약 2.5억원을 지원했다’고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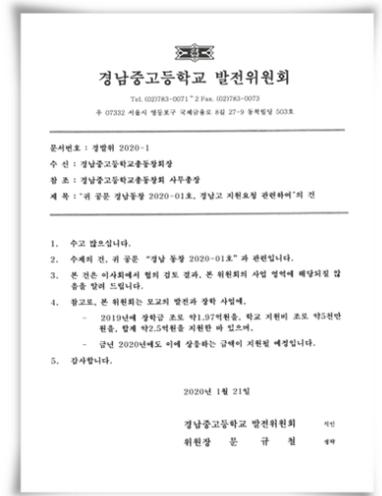
경남고에서 제공한 재경경발위의 2019년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수 신입생 장학금 300만원 △학년 관리 자 지원비 800만원 △서울대 합격 학교 지원 성과급 1,000만원 예상 △장기근속 교사 해외탐방비(1월 14일부터 5일간) 1,500만원 예상 △학교 홍보 물품비 1,500만원 상당 물품 △기숙사 컴퓨터 5대 지원비 400만원 상당 물품으로 총 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경의 경남중에 대한 지원은 없다.

경남고의 자료대로라면, 재경경발위가 지원했다는 장학금은 재경 대학생 장학금을 말한다. 모교 지원보다 재경 대학생 지원에 더 비중을

두었다. 모교 발전보다 재경 대학생 들어오기에 지원의 무게가 쏠려 있다. 모교발전기금의 원래 모금 취지에 벗어났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 재경경발위의 모교 지원 규모는 현격히 줄어들었다(그래프 참조). 2018년 11월 재경측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남고 지원금 현황 자료를 내놓았다. 연도별 총액을 살펴보면, 2013년 1억7천864만원, 2014년 1억717만원, 2015년 1억480만원, 2016년 9천128만원, 2017년 6천645만원, 2018년 4천973만원이다. 2018년 말 총동창회는 재경동창회의 긴급 요청으로 2천730만원을 경남고에 추가로 지원까지 했다.

이에 비해 재경경발위가 재경대학생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대폭 확대되었다. 동문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천182만원, 2014년 7천550만원, 2015년 1억167만원, 2016년 9천702만원, 2017년 1억1천503만원, 2018년 1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는 2억원에 육박했다. 모교발전기금 수익금이 어디에 우



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한편 재경측의 ‘경남중고발전위원회’ 명칭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동문이 많다. 재경경발위가 자체 회관 기금 모금을 하면서 주체를 ‘경남중고발전위원회’라 함으로써 동문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총동창회의 회관 기금 모금에 적잖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은 재경측은 경남중고발전위원회 명칭에서 ‘재경’이라는 소속을 분명히 밝힐 것과 경남중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음을 고려, ‘중’자를 제외시켜 ‘경남고발전 재경위원회’로 개명할 것을 요구했다.



제14회 동창회장기 용마바둑대회 개막식 정경.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제7회 용마당구대회 개막식 모습.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반상19로의 왕자’ 최강부 28회, 일반부 40회

용마바둑대회 부활...57명의 용마기사들 대결전

제14회 동창회장기 용마바둑대회가 지난해 12월 15일 서면 부전기원에서 열렸다. 총 57명의 동문이 선수로 출전, 반상19로(盤上十九路)에서의 수담(手談)을 즐겼다. 또 후보와 응원단 등 20여명의 동문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가 선수별 선수단 수는 13회 6, 23회 3, 24회 6, 25회 3, 28회 15, 29회 9, 31회 9, 40회 3, 연합팀 3명이다. 이날 이기섭 프로8단이 경기심판으로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에 개막식을 갖고 곧바로 경기에 들어가 오후 5시 30분께 최종 승부가 가려졌다. 최강부 우승은 28회, 일반부 우승은 40회가 차지했다. 13회에 특별상이 돌아갔다.

이날 김대욱(29회) 용마바둑회 회장은 “바둑모임이 최근 몇 년간 침체기였는데 이제 다시 용마바둑대회를 흥흥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하고 “바둑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총동창회관에 20평 규모의 기원을 계획 중이다. 바둑판 30개 배치가 가능하다. 모교를 돕기 위해 유료이되 쾌적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번 대회에 1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원했다.

◇시상내역=▲최강부-△우승 28회(이관선 김용섭 박래섭) △준우승 13회(이상삼 김일수 조원석) △장려상 29회(이영태 김대욱 강성훈) ▲일반부-△우승 40회(고승성 이성대 강강국) △준우승 28회(소유남 전학명 김정유) △장려상 24회(김동운 김인철 박성표) ▲특별상 13회(구덕건 장위추 신하근)

25회, 24회 누르고 용마당구대회 패권

김옥권, 이인구, 임상택, 한봉재 동문 ‘한마음 스트로크’ 성공

경남중고 총동창회장기 쟁탈 제7회 용마당구대회가 지난해 11월 30일 다빈치당구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 15개 기수 21개팀이 자웅을 겨뤘다. 이날 행사는 각 기수별 응원단을 포함, 2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는 성대한 잔치가 되었다.

이날 우승을 거머쥔 기수는 25회였다. 25회팀은 지난해 우승팀 24회를 제치고, 지난 2회 대회 우승 이후 다시 정상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우승팀 25회 출전 선수는 김옥권, 이인구, 임상택, 한봉재 동문이다.

이번 대회 준우승은 24회A, 3위는 30회, 4위는 27회팀이 각각 차지했다. 패자전 1위는 43회, 2위는 24회B팀에게 돌아갔다. 하이런상은 배진국(43회) 동문이 동타(8개)를 기록한 김학주(24회)

동문의 ‘통큰’ 양보(규칙상은 선배기수가 획득)로 수상했다.

이날 노상우(24회) 용마당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당구대회가 동창회의 멋진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당구대회에 40회 이후 기수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기별야구대회와 같은 장년부·청년부 경기는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협찬금품=노상우(24회) 용마당구회장 100만원, 김중광(23회) 고문 50만원상품권, 23회 당구회 10만원, 24회 동기회 50만원, 24회 당구회 50만원, 손세영(24회) 10만원, 25회 당구회 고급규대 3세트, 26회 당구회 20만원, 38회 동기회 떡(간식).

기부자 리스트

2019년 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협찬 기여도 명단 (500만원 브론즈급 이상 기부자는 별도 명단)

※붉은 숫자는 회관구입기금 모금에 참여한 금액

Table with 20 columns: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Rows list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s across 12 groups.

기부자 리스트

2019년 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협찬 기여도 명단 (500만원 브론즈급 이상 기부자는 별도 명단)

※붉은 숫자는 회관구입기금 모금에 참여한 금액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25회	이찬형		30	26회	왕정일	100		28회	정성목	200		30회	서복현	100		32회	박인정	12		34회	김종만	20	30
	이창훈		100		이경호	100			정영주	50			서재원	30			김종인	12					
	이태근		20		이규생	70			정해영	100			서하수	200	100		박종건		10		김태훈		50
	이학준		50		이상원	200	100		최연욱		50		석대식	30			박종규	100			류장근	100	50
	이한식		20		이순철	50			한명재	200			송영환	100			박해성		10		류홍영	30	
	이환기		50		이영덕	100			한수범	50			송한식	30			박희암	12	10		박성병	10	
	임무홍		100		정거돈	100			허남식		30		신범주	30			배정우	12			박태원		10
	임상택		50		정국근	100			허영철	200			신영주	30			서규영		10		백수현	50	
	임창운		100		정익교	100			권오영		50		신윤환	30			서동균	12	10		서재영	100	
	장대락		50		조만석		75		김기영	50			안종화	100			서수교	100	20		송종현	100	
	장선근		30		조일제	50			김도태	30			오경태	10			서태교	100	30		신용준	10	
	장세훈		100+50		최수일	50	50		김부겸		30+200		왕순모	30			성오용	12	10		이윤조		50
	전선태		10		최의수		20		김석윤	30	10		유영록	10			송은정	12			이형근	50	20
	전영주		10		한원우	100			김성문		100		유재일	10			손영태		100		정인실	10	
	전영훈		10		하주근	50			김영기	10			윤기승	50			손정수	24			최영두	12	
	전원배		50		김민수		10		김용채		100		윤종순	30			손진기	12	10		한상봉	100	
	정동철		30		김병옥		30		김인술	100			이광봉	30			신상하	12	10		황규태		100
	정무동		30		김병호		100		김정암	100			이광희	20			신수열	12	10		구동희		10
	정수성		30		김용태	150	100		김종명	30	100		이기환	100			심규열	12			김두섭		50
	정재봉		50		김진회	100			박동일	50			이명건	30			심재홍	12			김상진		10
	제영성		100+50		김태우	300	100+50		박동혁	200			이영준	30			심중식		10		김중근		30
	정철수		100		류재길	25	10		박상길	100			이인길	50			안기수	24	10		김현용		10
	정호성		50		백민호		10		박인평	50			이한수	20	10		안우현	60			백운창		10
	조경일		30		서기룡		10		배진영	100			이환기	30			오용환	120	31		변성수		10
	조대우		100		유영호	15	100		사공운곤	30	10		인준승	20			오호철		10		손병걸		30
조동진		10	윤문태		10	서석철		20	임영수	50		옥치호		10	오상민	30							
조병욱		30	윤석건		10	서영학		10	임영호	30		유영준		10	옥재명		20						
조양일		30	윤종락	10		송희태	50		장영조	30		윤정수	20	10	문형철		10						
조익		50	이상열		10	양승오	100		정영호	100		이민재		10	이상운		10						
조인래		20	이요섭	30		오세용		100	정승진	30		이석우	12		이성엽		100						
좌상봉		100	이현	10	10	윤종경	150		정채화	60		이승진	12		전재병		10						
주재길		50	이홍걸		10	윤형근	50		정해석		20	이정근		10	조선		30						
최경호		10	조용수	150	50	이경호	100		천성일	10		이재웅	24		조시형		30						
천석수		20	최인성		30	이문열		100+100	최상호	50		장건호	12	10	채선정		10						
최광수		50	최휴진		100	이성열		30	최영규	20		장성수		10	최대한		50						
최동하		100	한수길	200		이승호	100	100	최재봉	100		장성호	12	10	최태원		10						
최차환		50	김관세	100		이종포	50		최진권		10	장재훈	12	10	현승복		10						
최태동		20	김기태	300		이현률		50	추태영	10		장평우	300	10	황인철		10						
최한석		20	김만종	300		임광열	100		하규영	100		전증욱		10	김동인	10							
최현림		10	김명영	200		임상흔	50		하전근	10		정문	120		김병수	10							
탁준길		30	김명준	100		전장화	100		허영재	30		정용정	50		박동렬		100						
하대중		100	김부윤	100		장만	100		황철민	100		정인화	12		박창제		10						
하동문		10	김상정	100		정길	100		고영호		10	정정남	132		서석		20						
하만진		30	김용석	110		정성훈	100		공광욱	50		조성근	12	30	안병남		50						
하성룡		100	김정유	200		조승제	100		공종렬	12		조영기	24	10	이남기	10							
한봉재		30	김종섭	100		최기훈		10	권해철	12		조현우	12	10	손기철		10						
한석정		200	김종성	250		최문성		30	김경영	12		천장호	12		안종일		30						
한준석		100	김준배	100		최영식		20	김광수		10	최경우	32		이복근		20						
허실권		20	김준연	200		황유명	30	50	김기정	100		최봉근	12		이호성		10						
허영형		50	김형진	250		강석철	30		김대식		20	최상규	12	10	황용순	10							
허우성		30	김홍중	100		권영인	30		김만	100		최재선		10	권태휘		10						
허택		100	노태욱	100		권용택	50		김명우		10	최재호	12		김영훈	100	100						
황철		20	박석환	100		구을석	10		김병기		10	최진섭	200		김정현		300						
황곤태		20	박영규	100	100	김경수	30		김부영		10	최해영	12		김종오		10						
황호선		100	박재훈		20	김기섭	100		김상수		10	최효식	60	10	김종백		10						
26회	강영병	200		28회	박종기	50	100	31회	김성수	300		33회	김성수	300		36회	하명수	30		37회	김철원	100	100
	강의규		100		박진화		20		김기수	10			김시현		10		하학열	120			김현철		100
	권종대	100			배효진		20		김기업	50			김영수		10		한광규	12			류형우		20
	김두천	100			서영대	150			김백수	30			김영철	12	10		허일현	12			박철중		20
	김민철		30		송명석	20			김상직	10			김원태		10		김대식		100		손광성		10
	김우갑	50			안풍		10+100		김성복	10			김의석		10		김상권		100+50		신승렬		30
	김종우	200			엄보용	100			김세일	30			김재술	60			김상범		10		이동희	30	10
	김태권	10			엄재홍	200			김승대	10			김정덕	12			김창범	20			이성호		10
	김태웅		10		옥상곤	200			김옥성	10			김정택	12			박영욱	30			이학수		10
	김형	200			옥준원	100			김재수	30			김종호	120			박성철		100		임서룡		10
	김호응	200	100		윤경섭	200			김정태		50		김진국	120			박운대		10		임창섭	10	10
	박경수		100		이경포	200			김종진	30			김태근	100			이득우		100		정갑영		10
	박근석		20		이만수	200	100		김종희	100			김태근	100			이병준	100			정인석	30	
	박권병	200			이만재	100			김창근	30			김판덕	12			임채균		30		정윤희		100
	박장현		50		이민우		20		김해곤	200			김현주	12			장기호		30		조경호		10
	박효대		300		이병호		10		명효준		10		김현울	12			정용운		50		지동섭		10
	배용호	50			이승하	100			박동욱	50			김형수		30		최춘호	100			최상도		50+10
	성재일	200			이원웅	100			박원호	100			남경수		10		허규	10			홍의창		30
	성재업	50			이철행		20		박재백	30			남철우	60			허재창	30			강성옥		30
	손영수		20		이하백		10		박정태	30			마병진		10		계동원	30			강용하		10
	송동준		10		임상규		30		박철우	100			문성일		10		김기산	70	10		강태우		10
	양준영	50			임재덕	100	100		배승한		30		박경수	200	200		김윤성		100		권혁상		10
	엄윤섭	100			정백수		26		서민석	60	100		박석기	100			김재선	100			김기덕		10

기부자 리스트

2019년 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협찬 기여도 명단 (500만원 브론즈급 이상 기부자는 별도 명단)

※붉은 숫자는 회관구입기금 모금에 참여한 금액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기수	이름	발전기금	2019년 기여
37회	김기동		20	39회	김천술		10	40회	이동현		30	41회	최호열	10	42회	권성기		10	43회	김동현		10	
	김길영	20			박용한		10		이병완		20		최교용	30		권진근		10		김석훈		10	
	김동욱		10		박인석	100	100		이상백		30		허치회	50		김규태		10		김영환		100	
	김원범	10			박종국		10		이승배		10		홍동훈	30		김대기		10		김정현		10	
	김인평		10		박준근		10		이영철	10			홍석우	50		김동욱		10		박종현	100	100+50	
	김형권		10		백기현		10		이정삼		10		강경국			30	김문희			10	백광선		30+40
	김형기		30		안승진		10		이종인		50		강승완			10	김백권			50	백송현		10
	문병호		10		양정교	10			이창근		10		강인호			10	김부규			10	서석진		100
	박용진	50			여동섭		10		이태근		20		곽창우			30	김태영			50	안기범		10
	박철우		10		윤원욱		50		이태욱		10		김광철			10	김태준			10	이상구		10
	송성철		10		이영수	10			임태영		100		김동원			10	김희택			10	이종환		10
	송형환		10		정순환		10		장갑구		35		김병재			10	나병관			10	정윤호		10
	신수룡		10		정우영		10		장명재		10		김세용			10	문정기			10	조기준		10
	신우진		10		하순호		50		장정욱		30		김수용			10	백경택			10	최용호		10
	양귀수	10			한성호	10			정경두		10		김순근			100	서용택			10	황국현		20
	양순남		10		고영민		20		지승렬		100		김원주			10	신정일			30	구민석		10
	윤태현		10		권병서		200		최석우		100		김영태			30	안명기			10	김동주		10
	이수환		10	김경환		100	최신일		50	김재용		100	오영훈		10	김영권		10					
	이용한		100	김근영		30	최용석		100	김정연		10	윤경한		10	김영재		10					
	이호진		10	김대영		20	최치언		30	김현오		10	윤성곤		10	박보순		10					
	장동한		10	김동근		10	한수열		110	남화정		10	이동수		10	송상민		10					
	장원익		100	김병주		200	황성현		10	문지성		30	이성민		100	신석진		10					
	정성윤		10	김봉철		10	강병오	10		박기열		10	이재광		10	신현식		10+50					
	정순용		10	김성진		30	강석희	10		박동식		100	이태환		10	오성진		100					
	정재호		10	김승환		100	강 훈		10	박일수		10	장윤성		10	이건영		10					
	조성각		10	김영진	10	50	김기영	10		손삼식		10	정효영		10	정유석		100					
	조영규	20	10	김용철		10	김범성	20		신봉준		100	최원석		50	최우영		10					
	조현주		10	김중철		200	김봉준	30		안정일		10	하성용		10	김민철		100					
	조현철		10	김진		30	김신욱		10	여인환		10	홍이준		30	김지운		100					
	채일권		10	김진우		10	김영철		50	오기석		10	강백중		10	김현진		10					
	천웅찬		10	김창민		10	김인수		100	유경상		30	고달우		20	정길수		30					
	최규철		10	김춘강		30	김정태		100	윤종득		10	김세준		10	정상중		10					
	최재형		10	김태한		10	김찬원		20	이승훈		10	김응태		30	최형주		10					
	탁낙준		10	문태영		10	김형률	50	10	정용중		100	배준수		200	김권우		10					
	하주용		10	박광용		10	남관희	30		정홍준		10	성상용		10	김상욱		50					
	홍병일	10	20	박근성		50	류지섭	30		조명준		200	이승택		50	문희규		10					
	홍원석	10		박무성		10	박정기	20		진진우		10	전유수		10	박성영		10					
황태윤	10	10	박기엽		10	백선민	10		김성수		30	정민호	10	10	우재준		10						
각동열	10		박훈재		100	백정훈		100	김영선		10	김춘호		20	이원준		10						
김경곤		100	배병훈		100	변영호	10		김영희		255+10	서민중		10	강기범		100						
김문철		10	배영진		30	신동진	20		김진수	42		윤석권		10	김경원	10							
김원철		10	배진수		20	안광근	10		이용상	10		이충훈		10	고강인		10						
김현민		100	변태경		50	유수호	10		박형규		30	이형철		10	김영빈		10						
류인식		10	서정민		20	육옥성		10	송대성		10	차원일		10	박신우		10						
박이현		50	서주현		50	윤성보	20	10	이상현		10	한병주		10	이재필		10						
박정민		10	성봉진		20	윤성한	10		최성필	40		김덕호		10	제재철		10						
38회	박준표	20	성태진		200	이경석	50		김성준		10	김태훈		10	조중완		100						
	백승온		10	손균호		50	이경호	30	10	안병규		100	박시원		10	이종원		10					
	신동훈		30	신영석		10	이양걸	200	100	우도균		100	서인석		10	손정현		10					
	오희진	10	100	안성호		10	이정삼		20	이승철		10	신종국		10	김현윤		10					
	이수명		30	안용태		100	이종민	10	10	전광렬		100	예병삼		10	김덕형		30					
	이종명	300		염점철		100	이주하	30		강동호		20	이동훈		10	김시준		20					
	이태훈		10	예진원		100	이준석	10		구자삼		20	이충현		10	서지범		10					
	조석태		100	옥진형		10	임병호	10		권우일		30+50	임기환		10	성범석		10					
	조용철		20	윤경학		50	장윤호		10	김종현		10	정일권		20+150	황유광		10					
	39회	김도경	20	이강욱		10	장익조	10		손창오		10	제민진		10	오경준		10					
		김병기		10	이공환		10	전삼록		100	장성익	50		최유탄		10	지우준		10				
김영부			10	이광		200	정필상	10		조태성		20	최진영		10	정민기		20					
김윤홍		30		이 기		100	조원호	10		조청래		20	하성우		10	75회	박종두		10				
김종엽			100	이남주		30	천성원	10		최재근		30	홍민호		10								
김진호		20		이남훈		10	최영준		100	하인수		10	구민수		10								

단체 발전기금	17회 마산동기회(100만원)	21회 동기회(4,710만원)	24회 동기회(4,500만원)	25회 동기회(6,470만원)	26회 구형회(100만원)
	27회 동기회(2,740만원)	LA지역 27회 동기회(400만원)	30회 울산동기회(450만원)	34회 동기회(1,000만원)	37회 동기회(200만원)
	41회 산악회(30만원)	44회 동기회(500만원)	47회 동기회(300만원)	김해지역동창회(300만원)	용마회(190만원)
	사하지역동창회(300만원)	교통공사용마회(100만원)	뉴질랜드동창회(50만원)	샌프란시스코지역(50만원)	시카고지역(107만원)
회관 기금	동기회	13회 동기회(200만원)	24회 동기회(1,000만원)	32회 동기회(1,000만원)	33회 동기회(350만원)
	지역	43회 동기회(1,000만원)	50회 동기회(100만원)	53회 동기회(100만원)	
	직능/동호	거제지역동창회(100만원)	김해지역동창회(150만원)	창원지역동창회(100만원)	통영지역동창회(100만원)
	해외	경미회(200만원)	경친회(100만원)	구형워커스(100만원)	현대자동창동문회(100만원)
	용마코스(100만원)	25회 쌍백회-부산(200만원)	33회 산우회(100만원)	경야회(200만원)	생우회(100만원) 용건회(132만원)
	LA(25회) 예해덕-100만원	워싱턴(25회) 오태관-30만원	후쿠오카(27회) 한창현-50만원	애틀랜타(37회) 서동욱-30만원	기독교동문회(50만원)
	미안마(30회) 하진근-10만원	호치민(39회) 정진훈-10만원	밴쿠버(42회) 김성민-50만원	독일(42회) 박영철-30만원	

2020년도 입금자 (1월 21일 현재)	25 신성기	300	25 조판제	10	26 최성수	10	27 김지원	10	30 박정태	20	31 안중수	10
	32 문우식	20	32 민길식	10	33 김기산	10	34 이진호	500	36 김관용	100	37 문진형	10
	41 윤성한	10	42 윤영덕	10	43 김종식	10	43 박경근	10	44 조청현	10	45 김상수	100
	52 한중현	10	70 박무성	10								

기부금 영수증 필요없는 분은 부산은행 101-2053-6720-01 경남중고동창회 박종찬 /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부산은행 029-01-030712-1 (재)용마장학회 안강태

기부자·협찬 리스트

총동창회관 구입기금 고액 기부 내역

(9회) 조동훈 3056만원	(11회) 오완수 일억원	(13회) 이경재 오천백만원	(15회) 김경일 사천만원	(16회) 송규정 오천만원	(17회) 최만식 오천만원
(18회) 김길제 오천만원	(19회) 이부성 오천만원	(19회) 이용흠 사천만원	(20회) 박용덕 삼천만원	(21회) 손석보 3064만원	(22회) 유재진 육천만원
(23회) 김영기 일억이천만원	(23회) 김중광 삼천백만원	(24회) 박용규 오천만원	(25회) 김진철 육천만원	(25회) 박중찬 일억원	(25회) 서병수 삼천만원
(28회) 백영호 삼천백만원	(29회) 김대옥 육천만원	(29회) 박성철 삼천이백만원	(30회) 윤성덕 육천만원	(30회) 최우철 일억오백만원	(31회) 박중호 삼천만원
(31회) 홍성수 삼천백이십만원	(33회) 김법영 사천만원	(33회) 박명진 일억원	(35회) 장인화 삼천만원	(36회) 박진용 삼천만원	(37회) 허부남 오천만원
(38회) 권두성 칠천만원	(39회) 박근태 삼천만원	(40회) 우영환 삼천만원	40회 동기획 3535만원	(44회) 탁정환 삼천만원	(47회) 정신 삼천만원

2019년도 주요 행사 협찬 집계

- 범례 : *야=기별야구대회(9/29~10/26) *골=용마골프대회(5/9)
*축=회보 축쇄관 *광=동창회보 광고(422~426호)
- 단위 : 만원
- 읽기 순서 : ▲기수=△이름/합계금액/(종목별 협찬 내역)

- ▲11회=△안강태 100(골 100)
- ▲16회=△송규정 200(골 100+축 100)
- ▲18회=△김길제 200(광 200)
- ▲19회=△남진현 100(야 50+골 50) △이용흠 100(골 50+축 50)
- ▲20회=△박용덕 100(골 100)
- ▲21회=△강창수 100(축 100) △전우성 200(광 200)
- ▲22회=△유재진 100(축 100)
- ▲23회=△김영기 100(축 100) △이병찬 50(골 50) △이상수 200(광 200) △이수백 200(광 200)
- ▲24회=△노상우 50(골 50)
- ▲25회=△김익수 100(골 50+축 50) △김정학 30(축 30) △김종현 80(야 50+축 30) △김진철 200(골 100+축 100) △박세철 80(골 50+축 30) △박중찬 500(야 200+골 200+축 100) △손기천 50(골 50) △송영근 100(골 100) △송정규 50(골 50) △오양득 50(골 50) △이명철 80(골 50+축 30) △장세훈 50(골 50) △제영성 50(야 50)
- ▲26회=△박장현 50(골 50) △조만석 75(광 75)
- ▲27회=△김태우 50(축 50)
- ▲28회=△노영현 50(축 50) △백영호 50(축 50) △안풍 100(야 20+광 80)
- ▲29회=△권오영 50(야 50) △김대옥 550(골 500+축 50) △김부겸 200(야 200) △박성철 150(야 50+골 50+축 50) △이문열 100(야 100)
- ▲30회=△김현태 100(야 50+골 50) △윤성덕 150(야 50+축 100) △윤인태 30(축 30) △최우철 100(축 100)
- ▲31회=△류명석 30(야 30) △박중호 150(야 50+축 100) △손영태 100(축 100) △홍성수 100(축 100)
- ▲32회=△김상권 50(야 50) △이종휘 130(야 50+골 50+축 30)
- ▲33회=△김법영 150(야 50+축 100) △박명진 100(축 100)
- ▲34회=△이진호 150(야 50+골 50+축 50)
- ▲35회=△안병남 50(광 50) △장인화 100(축 100)
- ▲36회=△박진용 100(야 50+축 50) △최상도 10(야 10)
- ▲37회=△이용한 100(골 100) △허부남 250(야 100+골 50+축 100)
- ▲38회=△권두성 100(축 100) △조용철 20(골 20)
- ▲39회=△박근태 60(야 30+축 30)
- ▲40회=△우영환 150(야 50+축 100)
- ▲43회=△김영휘 10(야 10)
- ▲44회=△탁정환 300(야 50+축 50+광 200)
- ▲45회=△권우일 50(야 30+골 20)
- ▲47회=△정신 100(야 50+축 50)
- ▲49회=△정일권 150(광 150)
- ▲50회=△박중현 50(축 50) △백광선 40(야 10+축 30)
- ▲51회=△신현식 50(축 50)
- ▲23회 동기획 50(광 50)
- ▲42회 동기획 100(야 30+골 70)
- ▲43회 동기획 40(광 40)
- ▲44회 동기획 50(골 50)

*총액=7,915만원(각 항목별 합계=△기별야구대회 1,570만원 △용마골프대회 2,310만원 △회보 축쇄관 2,590만원 △동창회보 광고 1,445만원)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0년 2월 4일 작성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0명	2019년 협찬
No	가수	이름	금액
1			

루비	3억원이상	0명	2019년 협찬
No	가수	이름	금액
1			

사파이어	2억원이상	0명	2019년 협찬
No	가수	이름	금액
1			

에메랄드	1억원이상	5명	2019년 협찬
No	가수	이름	금액
1	11	오완수	1억원
2	23	김영기	1억2천만원
3	25	박중찬	1억원
4	30	최우철	1억5백만원
5	33	박명진	1억원

플라티넘	5천만원이상	12명	2019년 협찬
No	가수	이름	금액
1	13	이경재	5,100만원
2	16	송규정	5,000만원
3	17	최만식	5,000만원
4	18	김길제	5,000만원
5	19	이부성	5,000만원
6	22	유재진	6,000만원
7	24	박용규	5,000만원
8	25	김진철	6,000만원
9	29	김대옥	6,000만원
10	30	윤성덕	6,000만원
11	37	허부남	5,000만원
12	38	권두성	7,00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18명	2019년 협찬
No	가수	이름	금액
1	9	조동훈	3,056만원
2	15	김경일	4,000만원
3	19	이용흠	4,000만원
4	20	박용덕	3,000만원
5	21	손석보	3,064만원
6	23	김중광	3,100만원
7	25	서병수	3,000만원
8	28	백영호	3,100만원
9	29	박성철	3,200만원
10	31	박중호	3,000만원
11	31	홍성수	3,120만원
12	33	김법영	4,000만원
13	35	장인화	3,000만원
14	36	박진용	3,000만원
15	39	박근태	3,000만원
16	40	우영환	3,000만원
17	44	탁정환	3,000만원
18	47	정신	3,01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6명	2019년 협찬
No	가수	이름	금액
4	12	남기용	1,000만원
5	15	손부홍	1,500만원
6	15	한해수	1,000만원
7	17	이세복	1,000만원
8	17	최성호	1,000만원
9	19	황태원	1,000만원
10	20	김형오	1,000만원
11	20	허규판	1,000만원
12	21	강창수	1,500만원
13	21	전재호	1,000만원
14	22	김학균	1,000만원
15	22	박재상	2,000만원
16	22	장성덕	1,000만원
17	22	장성복	1,000만원
18	22	허범도	1,000만원
19	26	박상호	1,550만원
20	27	박치호	1,000만원
21	28	노영현	1,300만원
22	30	김현태	1,100만원
23	30	정경목	1,000만원
24	33	이순환	1,000만원
25	33	최웅남	1,100만원
26	38	정재형	1,0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30명	2019년 협찬
No	가수	이름	금액
1	8	김봉길	500만원
2	17	김동수	500만원
3	17	윤성욱	500만원
4	17	조증언	500만원
5	19	김봉호	600만원
6	19	장홍의	600만원
7	20	김태영	500만원
8	20	박병철	500만원
9	25	김익수	500만원
10	25	송정규	500만원
11	25	이명철	600만원
12	26	김상현	500만원
13	26	박재욱	500만원
14	26	하원규	500만원
15	27	문두찬	600만원
16	28	구영소	500만원
17	28	이원철	900만원
18	28	최강호	500만원
19	29	이석호	500만원
20	30	윤인태	550만원
21	30	이학수	700만원
22	31	남기태	700만원
23	31	류명석	600만원
24	31	오민일	600만원
25	31	이병태	600만원
26	31	정철수	500만원
27	32	이종휘	500만원
28	34	이재완	550만원
29	34	이진호	700만원
30	64	표종빈	500만원

*본 리스트는 동창회관구입에 사용되는 기금에 기부한 동문들만을 대상으로 금액별로 분류한 현황도표를 알립니다.

지역·지구동창회

SR강화 신년회 '5분 자기소개' 큰 호응

송년회는 호텔서...103명 참가 '파워' 과시

남부산지구동창회

남부산지구동창회 신년회가 지난 1월 15일 오후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동창회장이 예고했던 대로 단 순한친목도모를 넘어 SR(Social Relation)을 강화, 비즈니스 네트워킹 연결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 중 5명의 회원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 스스로를 마케팅했다. 첫 소개자로 이 회장이 나서 재 활용·고철업을 설명하고 '작은 인연이 큰 인연으로 발전'된 자신의 실례를 들려주었다. 윤인태(30회·전 부산고법원장·변호사) 동문은 사회생활 속 분쟁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말하고, 약정·계약 시에는 반드시 문서로 명확하게 기록한 증거를 남길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정현(36회) 동문이 아스팔트업, 박진용(36회) 동문이 안과병원 운영, 조정래(45회) 동문이 타일·도기, 최상배(45회) 동문이 전기모터부문의 직업을 각각 소개했다. 이 같은 동문 개인 직업 소개 프로그램이 회원간 소통을 더 활성화하고 서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2차 맥주 파티는 윤인태 동문이 찬조했다.

◇참석자=최재환(25회)임상규(28회)김종명 박인평(29회)윤인태(30회)김태균 박성철 이규봉 이동영 이종휘 장기호 하세종(32회)조선(34회)김정현(36회)김태성(38회)이상학 최보식(39회)한수열(40회)정용중(42회)조정래 최상

배(45회)감기환(47회)이충현(49회)김석훈(50회)오성진(51회)장지훈(55회)서진석(56회).

한편 남부산지구동창회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광안리 호메르스 호텔 연회장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16회 동문(이종철·전 남구청장)에서부터 74회 동문(최준용·롯데 자이언츠 1차 지명까지) 40개 기수 103명의 동문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지구동창회로서 호텔 연회장 행사는 처음이었다.

이종휘 회장은 인사말에서 "외형적으로 큰 발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부터는 인간관계와 친목도모 위주의 모임을 넘어서 SR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가능토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지구동창회의 발전이 총동창회의 발전과 직결된다. 남부산이 좋은 모델"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16회부터 54회까지 전 기수 참가와 참가 인원 100명 이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전자는 박 총동창회장이 '사비 100만원 후원'으로 내건 제안이었다. 이 자리에 22회 기수가 빠져 '100만원 후원'은 없었던 일이 되어 박 총동창회장은 50만원 찬조 봉투라면서 건넸다. 그러자 23회 하길룡

동문이 "22회로 입학, 23회로 졸업했다"고 밝히며 전체 기수 참석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를 수용하며 "사실 봉투에는 100만원이 들어 있었다"면서 감동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100명이 넘는 참가자가 기수 순으로 소개되었다. 특히 74회 최준용 동문이 아버지 45회 최재근 동문과 함께 참석해 인사, 큰 박수를 받았다.

2부 행사에서는 여성 3인조 밴드 일렉디바의 축하공연에 이어 동문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이 열렸다. 여자분장한 32회 정현옥 동문이 사회를 맡아 송년회 자리는 웃음의 바다가 되었다.

한편 남부산지구동창회는 이날 박종찬 총동창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총동창회는 지원금 30만원을 전했다.

◇참석자=이종철(16회)정량부(17회)장기영(18회)남진현(19회)조병국(20회)최점수(21회)하길룡(23회)곽두희(24회)김동진 박종찬 오양득 옥동훈 전용태 최재환(25회)박종국(26회)최휴진(27회)김용석(28회)김종명 박인평 정길(29회)정해석(30회)류명석(31회)김광기 김종성 김종주 김태홍 김형수 백영태 이규봉 이웅길 이종휘 정현옥 정용운 조준



남부산지구동창회 신년회 모습.

현(32회)장정석(33회)조선(34회)정운성(35회)김정현 김창일 김철원 박진용 송준호 신승렬 정병기 정윤희 최상도(36회)김성일(37회)김태성 김태호 신동훈(38회)박용한 박인석 윤원욱 이상학 최보식(39회)강강국 배병훈 안성호 최신일 한수열(40회)이양걸 전삼록 조용락 추교용(41회)김현오 박동식 심철보 안정일 정용중(42회)강병규 김영휘 정영민(43회)김경진 배봉건 조청현(44회)손창오 조청래 최상배 최재근(45회)신정일 최원석(46회)배준수 성상용 최경훈(47회)조민수(48회)신종국 이충현(49회)김석훈(50회)오성진 정유석 최우영(51회)김도훈 정상중(52회)문희규 박성영 성진우 송승윤 이원준 이진수 황명수(53회)고지형 정준섭(54회)최준용(74회) 〈기사 17면 넘김〉



100명이 넘는 참석자 수를 기록한 남부산지구동창회 송년회.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우정과 저력 확인한 오래간만의 모임

중부산지구동창회, 회장배 당구대회 개최키로

중부산지구동창회(회장 임무홍·25회) 2019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국제시장 평양갈비(31회) 서동균 동문 운영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50여명의 동문이 참석, 중부산지역 동창회의 저력을 과시했다.

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래간만의 모임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기쁘다. 또 한해를 보내면서 털어버릴 것은 다 털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고 말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조직 강화를 통한 중부산지구동

창회의 활성화를 바란다"고 말하고, 총동창회관 구입 경위와 활용 방안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임철호(24회) 고문이 동문들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건배사를 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구사 경생(구독료 사천부가 경남중고를 살린다는 의미)이란 건배사로 박수를 받았다. 이 자리에 김용원(28회·변호사) 동문이 처음 참석, 주목을 받았다.

이날 중부산지구동창회는 2020년부터 중부산지구동창회장배 당구대회 개최 건을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안풍(28회) 부회장이 중부산당구클럽 회장을 맡았다.

총동창회는 이날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총동창회에서는 박

총동창회장을 비롯, 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이 참석했다.

◇협찬 내용=임철호 20만원, 임무홍 20만원, 장세훈(25회) 10만원, 안풍 20만원, 오문세(35회) 20만원. 2차 경비 임무홍 회장 찬조.

◇참석자=임철호(24회)서보민 임무홍 장세훈(25회)이영학(26회)김용원 안풍(28회)정순길(30회)서동균 조종철(31회)김태홍 송승익(32회)오문세 정명섭 정상영(35회)김종오 김창일 박진용 성귀호 이규진 이송준 전영목(36회)김형권 손봉상(37회)김성호 박진우(38회)이정삼(40회)안광근(41회)김세현 박동식 신봉준 이영도 황승표(42회)김대영 김영휘 박승삼 배진국 엄흥국 오일남 이정렬 이진배(43회)김형준 이부교 진성재(44회)육한수(46회)곽정택(47회)양현진(54회).



중부산지구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 모습.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강서지구동창회 송년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5회 삼총사 "동창회관 모금 우리도 동참"

강서지구동창회 상기중·임성업·진도영 동문 기부식

경남중고 강서지구동창회(회장 김택영·26회) 임시총회 및 송년회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성원아트홀에서 열렸다. 5회 원로동문을 비롯,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김택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말을 맞아 좋은 일만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고 말하면서 동문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총동창회관 구입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번 구입하게 된 총동창회관은 '행운의 건물'이라고 생각한다. 새역사의 장에 동문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동창회보 구독료와 관련, 박 총동창회장은 "연내 4천명 달성은 힘들 것 같다. 내년에 재도전해보자"면서 동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승억(24회·전 부무청장) 강서지구동창회 고문은 이 자리서 박 총동창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참가 동문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5회 졸업생 세 동문의 동창회관 기금 전달식이었다. 상기중(89세), 임성업(92세), 진도영(91세) 동문이 주인공. 이날 진 동문만 참석했다. 3명이 각 30만원씩 각출해 모은 90만원을 이 자리서 진 동문이 박 총동창회장에게 전달했다. "기금 모금

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총사와 조카 사이인 구민수(50회) 동문과 오경준(68회) 동문이 함께 마련한 총동창회관 기금을 전달했다.

손부흥(15회) 고문은 건배사에서 참석자 배가운동을 요청하면서 경자년 새해 동문 가정의 행복을 빌었다.

이날 강서지구동창회 집행부가 마련한 회칙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1부 행사는 응원단장 출신인 신종국(49회) 동문의 후라경고 퍼포먼스로 끝을 맺었다. 2부 행사에는 경품 추첨이 있었다. 이어서 치맥 2차 자리를 가졌다. 총동창회는 지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현금잔조=김택영 회장 50만원, 백영호 부회장 30만원, 손부흥 고문 30만원, 이승억 고문 20만원, 이수관 사무국장 10만원, 예영일(28회) 10만원, 정재형(38회) 10만원, 최영(40회) 10만원, 백창봉(41회) 10만원, 남부산지구동창회 10만원,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 10만원, 사하지구동창회 10만원.

◇물품잔조=공광욱(31회) 마른김 10속, 김성준(44회) 비누·삼푸세트 6개, 황명수(53회) 전복 3박스·어묵 1박스(특대 20봉), 구민수(50회) 황성주 두유세트 5개, 김영권(51회) 남성화장품세트 5개, 이병훈(32회) 고급볼펜 70개, 이진수(53회) 고등어 2박스(이상 무순)

<16면 이어받음>

◇찬조내역(무순)=△박종찬(25회·총동창회장) 100만원 △김종현(25회) 30만원 △이종휘(32회·남부산지구회장) 100만원 △김정현(36회·남부산지구 부회장) 50만원 △한수열(40회) 기내용 가방 2개, 해운대 골든튠호텔 주중 숙박권 1매 △이진호(34회) 10만원 주유상품권 2매 △김영진(40회) 10만원 △정윤성(35회) 50만원 △정용중(42회) 이가한우 5만원 상품권 2매 △조청래(45회) 20만원상당 비데 1개 △우영환

(40회·경미회 회장) 30만원, 도끼(4만원 상당) 12개 △안원철(32회) 30만원 △박인석(39회) 30만원, 혈관건강 검사권(동맥경화도검사 및 경동맥초음파) 10만원 상당 5매 △이충현(49회) 더베이101 상품권 5만원 2매 △박진용(36회) 10만원 △추교용(41회) 30만원 △이종철(16회) 10만원 △장기영(18회) 화장품 2개 △최점수(21회) 고급 보드카 1병 △사하지구 동창회 10만원 △동래·금정지구동창회 20만원 △강서지구동창회 10만원.

조직 안정화 바탕, 2020년 도약 의지 다져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 "동문 '재능 정보' 공유하자"

경남중고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회장 이윤조·33회) 2019송년회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면 아리한정식에서 열렸다. 정기모임을 겸한 이날 행사에 50여명의 동문이 참석, 신설 지구동창회로서 안정적인 궤도 진입을 보였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월 창립해 많은 동문들의 참여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 부산의 중심지역 지구동창회로서 내년 4월 창립 1주년 때까지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더욱 많은 동문이 모임에 참여하는 등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유중인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옥동훈(25회) 사무총장이 격려사를 했다. 옥 사무총장은 이 자리서 총동창회관 구입 계약 소식을 전하고, 건물 활용 아이디어를 동문들이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서 최고참 이춘기(8회) 동문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이 잘 돼야 한다'는 취지의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했다. 최웅남(33회) 동문은 동문간 재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1부 행사 후 김법영(33회) 의료분과위원장이 후원한 응급의료킷이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전달됐다. 2부 행사에서는 경품추첨과 유희의 시간이 진행됐다.

이날 총동창회는 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참가한 각 지구동창회에서도 10만원씩을 협찬했다.

◇행사 협찬=오익희(21회) 10만원, 제영성(25회) 20만원, 문두찬(27회) 화장품세트, 김법영(33회) 투썸플레이스 선물·응급의료장비(50개), 최웅남(33회) 30만원, 박진용(36회) 10만원·안과 VIP검진권(5장), 박정민(38회) 화장품세트, 신동훈(38회) 의류선물세트(3개), 박인석(39회) 20만원·혈관건강검진권(5장), 백기현(39회) 초량어묵선물세트, 강진구(57회) 한성집 식사권(2장).

◇참석자=△부산진·연제지구 집행부-이윤조(33회) 회장, 제명환(36회) 부회장, 김병기(39회) 사무국장, 손창오(45회) 사무차장 △총동창회-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편집주간, 김법영(33회) 의료분과위원장, 신승렬(36회) 사무국장, 박진용(36회) 봉사분과위원장, 박근태(39회) 동호분과위원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지구동창회-▷강서지구 이수관(38회) 구민수(50회) ▷남 부산지구 조청래(45회) 김석훈(50회) ▷동래·금정지구 박정민 김경곤(38회) ▷사하지구 류명석(31회) 박성철(32회) ▷해운대지구 정운희(36회) 김태호(38회)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이춘기(8회) 문두찬(27회) 조광제 한봉철(28회) 김태훈 노경호 박대중 주기훈 지창근 최웅남(33회) 유승민 이용희(34회) 김창일 이동희 임창섭 정병기 최상도(36회) 김진영 신우진(37회) 김원철 신동훈(38회) 박용한 박인석 백기현 이상학 정진해(39회) 지창근(40회) 문상현(41회) 신봉준 이영도(42회) 정신(47회) 이형철(48회) 김정현(50회).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 송년회 정경.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알림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1,200페이지)

정기총회 현장 판매합니다

권당 3만원(배송비 별도)

연락처 : 경남중고 총동창회 사무국
Tel : (051)245-7551~3 Fax : (051)245-7750

금정산성 산행과 족구로 굳어진 단결

동래·금정지구동창회

경남중고 동래·금정지구동창회(회장 정용운·32회) 2019송년회가 각 지구대항 족구대회를 겸해 지난해 12월 21일 산성마을 물레방아집에서 열렸다. 이날 사전행사로 금정산 남문쪽 케이블카 도착지에서 물레방아집까지 1시간여 산행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금강공원 입구에 등반행사에 참가한 10여명의 동문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랐다. 세밀이라 참여 인원은 다소 적은 편이었다. 일행은 도중에 휴정암에 들러 촬영을 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답소를 나누며 걸었다. 낮 12시 무렵부터 산행 동문들과 곧바로 행사장에 참가한 동문들이 합류, 식사를 하며 답소를 나누고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연말에 귀한 시간낸 만큼 즐거운 시간을 갖자”면서 “2019년의 나쁜 일들은 족구로 다 차버리고 금정산 정기를 받아 경

자년 새해에는 좋은 일 많이 생기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세밀에 동문간 단합과 화합을 이루는 귀한 자리이다.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고 말했다. 옥동훈(25회) 사무총장은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는 송구영신의 덕담을 건넸다.

이 자리서 동래·금정지구동창회는 이상화(25회)전임 회장과 이문열(29회)전임 수석부회장에게 지구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기려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벌어진 족구대회에서는 동래·금정, 사하·남부산, 부산진·연제+기타 지구, 해운대+총동창회 사무국 등 4개 팀이 토너먼트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동래·금정지구가 우승, 사하·남부산지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산성 행사를 마치고 여흥이 남은 동문들은 당구게임을 벌였다.

총동창회는 이날 지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동래·금정지구동창회가 송년회와 족구대회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협찬 내역=해운대지구동창회 15만원, 남부산지구동창회 20만원, 부산진·연제지구 10만원, 사하지구동창회 10만원, 정용운 20만원, 이상화 20만원, 이문열 20만원, 김기열 5만원, 박세철 20만원, 박종기 10만원, 동래·금정지구 상금 5만원, 42회 상금 5만원.

◇참석자=△동래·금정지구 집행부-정용운(32회) 회장, 이상화(25회)·이문열(29회) 고문, 이웅길(32회)·이훈(33회) 부회장, 박정민(38회) 사무국장, 김경곤(38회) 대외협력국장, 김종엽(39회) 재무국장, 김현우(42회) 조직국장 △총

동창회-남진현 자문위원장, 옥동훈 사무총장, 김종명(29회)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지구동창회-이종휘(32) 남부산지구동창회장, 이윤조(33회)·김병기(39회)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장·사무국장, 정윤희(36회)·김태호(38회) 해운대지구동창회장·사무국장, 신동훈(38회) 사하지구동창회 사무국장 △동래·금정지구동창회-김기열(23회) 박세철(25회) 박종기(28회) 김준복 주기훈(33회) 김원철(38회) 백기현(39회) 문병운(39회) 강인호 여인환(42회).

3차지구회장단 모임, 동문회 활력 자임

사하지구동창회 주최... “총동창회에 일조하는 조직되자”

경남중고 총동창회 산하 부산지역 내 지구동창회 제3차 회장단모임이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사하구 하단오거리 장방식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장단 모임은 사하지구동창회에서 주최하였다.

2019년 들어 신설 지구를 비롯, 각 지구동창회의 활성화 노력이 돋보였던 차에 각 지구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컸다. 이 자리에서 각 지구동창회는 자체 지구의 활동상을 점검하고, 2020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진로 모색과 정보 교환을 하였다.

먼저 이날 주최측 최승호(36회) 사하지구동창회장은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취임 이후 동창회가 생동감 있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했다. 최 회장은 “사하지구동창회가 요즘 다소 침체했다. 하지만 3,300여명의 동문이 거주하는 ‘세계 최고의 지구단위 동창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저력을 갖고 있다. ‘한번 하자, 하면 하는 곳’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활성화의지를 밝혔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총동창회 차원에서 볼 때 이 자리가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면서 각 지구동창회의 활성화를 기원했다. 이어 박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관 구입 모금이 순

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새해 1월 10일까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말했다. 또 동창회보 구독료 4천명 납부 목표와 관련, “무리한 발상이었지만, 납부율을 5% 정도 올린다면 못해낼 일도 아니다”면서 동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무홍(25회) 중부산지구동창회장은 지구동창회의 설립 내력을 이야기하고, “각 지구동창회는 일종의 ‘야전군’ 조직이다. 총동창회 활성화에 일조하는 조직이 되자”고 역설했다. 임 회장은 참여 활동 중인 시민단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몽골에 앰블런스 6대를 기증하고 돌아왔다면서 몽골산 보드카 1병을 협찬



지난해 11월 8일 열린 총동창회 산하 부산지구동창회 제3차 회장단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합 파티’를 치르고 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했다.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동창회장은 “사하지구의 회원 수에 자극을 받았다. 동래·금정지구도 더 많은 가족, 동문 모시기를 고뇌하고 있다. 좋은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동창회장은 “제4회 지구동창회 회장단 모임을 주최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송년회를 격조 있는 행사로 준비 중이다. 많은 참가를 바란다. 모범적인 남부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장은 “올 3월 결성 이후 나름 잘 운영되고 있다. 앞서가는 지구동창회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동창회장은 지구동창회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자랑스러운 경남중고 동창회를 만들자”고 다짐을 했다.

이날 강서지구동창회에서는 이수관(38회) 신임 사무국장이 참석, 소속 지구의 근황을 소개했다.

이날 뒤풀이 행사에서는 단합과 화합을 위한 각 지구동창회 대항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뒤풀이 경비는 박 총동창회장이 찬조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사하지구동창회에 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허부남(37회) 사하지구동창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행사 참가자에게 과자를 선물했다.

◇참석자=△총동창회-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서부원(18회) 자문위원,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중부산지구동창회-임무홍(25회) 회장, 박이현(38회) 문화국장 △남부산지구동창회-이종휘(32회) 회장, 한수열(40회) 사무국장 △동래·금정지구동창회-정용운(32회) 회장, 김경곤(38회) 대외협력국장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이윤조(33회) 회장, 김병기(39회) 사무국장 △해운대지구동창회-정윤희(36회) 회장, 김태호(38회) 사무국장 △강서지구동창회-이수관(38회) 사무국장 △사하지구동창회-최승호(36회) 회장, 류명석(31회) 명예회장, 정윤성(35회) 고문, 허부남(37회) 수석부회장, 신동훈(38회) 사무국장, 이진배(43회) 재무국장.

재경동창회장에 서기석(26회) 전 헌법재판관

수석부회장에 하창우(27회) 전 대한변협회장



법재판관이 제23대 재경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수석부회장에 하창우(27회·오른쪽 사진) 변호사가 선임됐다.

서 신임회장은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 수석부회장은 서울법대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지방법원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경남중고 재경동창회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20년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기석(26회·왼쪽 사진) 전 헌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2020년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등을 지냈다.

재경동창회 올해 첫 이사회
최태준(33회) 신임 감사 선임
재경동창회 2020년 1차 이사회가 지난 1월 3일 오후 토다이 반포점에서 열렸다. 재경동창회 부회장과 동기회·직

능·동호회 임원 등 55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차기 재경동창회를 이끌 서기석(26회) 수석부회장의 회장 선임, 최태준(33회) 동문의 신임 감사 선임과 송지훈(42회) 감사의 유임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운대지구동창회 2019년 송년회 정경.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북부산지구동창회 송년회 참석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2019년 성과 다져 새해 더욱 달리자”

해운대지구동창회, '장족의 발전' 감사의 축배 들어

해운대지구동창회(회장 정윤희·36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센텀시티 소재 후다닭춘천닭갈비 식당(43회 김성수 동문 운영)에서 2019년 송년회 및 결산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해운대지구 동문들을 비롯, 각 지구동창회 임원들과 총동창회 사무국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윤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동문 회원들의 큰 성원으로 해운대지구가 장족의 발전을 했다. 회원수도 늘었고, 동문 상호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했다고 자부한다. 감사한 한해였다. 경자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참여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외유 중인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남진현(19회) 지문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함께 달려 온 1년, 지금 이 순간 돌이켜보니 보람찼던 것 같다. 2020년 경자년에도 더 힘차게 달리자”고 말하고 동문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했다.

이 자리서 옥동훈(25회) 사무총장은 동창회관 구입 경위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내년 2020년에도 총동창회의 발전에 동문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태호 사무국장이 고급 불펜 1자루씩, 김법영(33회) 총동창회 의로집

행분과위원장이 응급의료장비 1세트씩을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3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참석한 타 지구동창회는 각 10만원씩 협찬했으며, 사하지구동창회는 10만원을 송금해왔다.

◇참석자=△총동창회-남진현(19회) 지문위원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지구동창회-이웅길(32회) 동래·금정지구 부회장, 김현우(42회) 조직국장, 김정현(36회) 남부산지구 부회장, 김석훈(50회) 사무차장, 김병기(39회) 부산진·연제지구 사무국장, 여동섭(39회) 기장지구 사무국장 △해운대지구 집행부-정윤희(36회) 회장, 김태호(38회) 사무국장, 김성수(43회) 사무차장 △해운대지구 동창회원-배대결 윤기갑(이상 13회) 김화옥(14회) 장기영(18회) 박광용(25회) 조만석(26회) 박종기(28회) 최영식(29회) 박상국 박태종 유희철 이석희 이호인 최웅남(33회) 박철웅 최해협(34회) 박진용 윤경준 이송준 최태섭(36회) 박상현 이수환(37회) 권순홍 이수명(38회) 박용한 최보식(39회) 김승원 문상현 이명재(41회) 조정현(44회) 서진석(56회)

화명·사상 동문 '융합 묘수' 과제 부각

북부산지구동창회, 54회 3명 참가 등 조직 미래 밝아

북부산지구동창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송년회를 겸한 정례모임을 화명동 낙동강오리알 식당에서 가졌다. '수능한파'에도 아랑곳 않고 1,2차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최초 참가자(윤종진·41회, 조종완·54회)가 2명인데, 54회 동문 3명이 참석, 조직의 미래를 밝게 했다.

박창제(35회) 북부산지구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장직을 맡아 걱정도 많았으나 선배들이 많이 도와줘 오늘에 이르렀다. 너무 감사하다.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동문들을 만나서 기쁘다. 지구동창회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인적자원이 풍부하도록 지구 내 동문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길 바란다. 화명지역과 사상지역이 뭉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총동창회 현황인 회관 구입 모금과 동창회보 구독료, 동창회보 축쇄관 발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박 회장은 “내년에는 예산을 축소할 계획이다. 각 지구동창회는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서 참가자들은 각 기수별로

인사와 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18회 박선동 동문은 “여기 오면 기가 살아나 건강해지는 느낌”이라 말했고, 동기인 장기영 동문은 “동문들을 만나 반갑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 내년에는 이 식구가 배로 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동창회장은 “북부산지구와 자매결연 차원의 공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뒤풀이 행사(48회 이현우 동문 운영 ‘짚신 매운 찜갈비’)에서 북부산지구동창회의 구호가 새롭게 제시됐다. ‘선배님을 공경하고, 후배님을 배려하자’였다.

이날 총동창회는 지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뒤풀이 경비를 찬조했다.

총동창회에서는 박 총동창회장과 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편집위원이 참가했다.

◇참석자=박선동 장기영(18회) 이종휘 김중주(32회) 강문실(34회) 고현봉 박창제 안병남 정상영(35회) 김경곤(39회) 윤종진(41회) 최현덕 한수성(44회) 신중국 이충현(49회) 이건영(51회) 고강인 오세빈 조종완(54회)



지역·지구동창회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 송년회에 32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 새해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 북가주지역동창회 신년회 참석 동문들 모습.

과감한 세대교체...조성우(36회) 동문 새 회장

남가주지역동창회 집행부, 후배 기수 참가율 높여 재건 발동

경남중고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로스앤젤레스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1회 최성근 동문을 비롯, 32명의 동문과 몇 명의 부인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충권(22회) 회장은 남가주지역동창회의 재건과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의 과감한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 참가 동문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자리서 조성우(36회) 사무국장이 새로운 회장에 선임됐다. 30, 40, 50회대 기수의 참가가 저조해 동창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혁신적 조치가 요구되었

던 것이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박병철(20회) 동문은 선물을 기부했다.

◇참석자=최성근(1회) 김태준 탁영채(이상 9회) 김만욱(10회) 배준한 Daniel 조(조동준·이상 11회) 김무영 성왕표 지인수(13회) 이종구(14회) 이상모(15회) 조만철(17회) 강창호(18회) 손태환 심명섭(19회) 남명우(20회) 천병규 하병래(21회) 안희석 이서희 이충권 차한열 황선호(이상 22회) 강운종 예해덕(이상 25회) 김경인 지흥석(27회) 김태완(29회) 이민희(32회) 방성연(34회) 신광우(35회) 조성우(36회).

신년축하회서 동창회관 기금 각출

북가주지역동창회, 더 많은 동문 발굴 활성화 가치

미국 북가주지역동창회는 지난 1월 13일 샌프란시스코 동쪽 인근도시 프리몬트의 한 식당에서 신년회를 가졌다. 이만호(19회) 동문이 찬조한 모임에서 동문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병호(11회) 지역동창회장은 "경자년 새해 동문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많은 동문들을 발굴해 동창회를 활성화시키자"고 말했다.

북가주지역동창회는 오는 4월 골프대회, 8~9월 중 야유회를 개최할 계획

을 세웠다. 이날 참가 동문들은 총동창회의 동창회관 구입 모금에 조금이라도 보태 동참하자며 즉석에서 기부금을 각출했다. 함께 기부금 1천달러는 송금기로 했다.

◇참가자(1은 부인 참가)=조동훈(9회·100달러)+, 박병호(11회·200달러)+, 윤성희(12회)+, 정조웅(14회)+, 이만호(19회·100달러)+, 정갑식(100달러), 양경현(200달러), 김수라, 김정(이상 21회) ◇불참자 중 기부자=장한교(14회·200달러), 김선명(16회·100달러).

애틀란타서 '후라 경고!' 감동 송년회

동문 15명 부부동반, 학창시절로 돌아가

경남중고 미국 애틀란타지역동창회가 지난해 12월 7일 애틀란타 둘루스 소재 명가원 한식당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총 15명의 동문이 부부동반으로 참석,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임을 마치면서 모두 함께 '후라 경고!'와 교가를 제창했다. 마치 학창시절로 돌

아간 듯한 감동의 마무리였다는 전언이다.

◇참가자=서충원(14회) 박영원(17회) 김태진(19회) 박동철 이윤남 이정규(21회) 김현길 홍기태(22회) 김우갑(26회) 최병주(28회) 안근식(29회) 추태명(30회) 권건오(32회) 최호성(34회) 서동욱(37회).

뉴욕지역동창회, 송구영신의 만찬 가져

미국 뉴욕지역동창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뉴저지 동방그릴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13명의 동문과 부인 9명 등 22명이 참석해 송구영신의 의미를 새기며 동문들의 건강과 행복, 더불어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참석자=박기환(12회) 손갑수(13회) 미동명(15회) 김중운(19회) 김형수(20회) 김동환 송하중(이상 22회) 김도명(24회) 김정필(25회) 김치갑(26회) 조형선 장대원(이상 27회) 김기홍(30회).



미국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참석 동문들이 만찬을 즐기고 있다.



미국 애틀란타지역동창회 송년회 참석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양회 '소수정예' 참석 단출한 신년회

양산지역동창회(경양회)는 지난 1월 16일 오후 화화양산중앙점에서 신년회를 가졌다. 이날 박경수(31회)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 불참하는 등 '소수정예' 동문들만 참석, 단출하게 행사를 치렀다. 참석자들은 각자 신년 구상을

이야기하고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이날 박 회장이 미리 준비한 가정용품 세트 선물이 참석자들에게 전달됐다.

◇참석자=김성수(35회) 구동주(38회) 하순호(39회) 최병호(41회) 윤상훈(44회) 정길수(52회).

한편 경양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소정식당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참석자=박경수 한영오(이상 31회) 김성수 서성수(이상 35회) 하순호(39회) 최병호(41회) 김신현(43회).



양산지역동창회 신년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우정을 만끽하고 있다.



창원 신임 회장에 김정암(29회) 동문

‘용마대상’ 김우홍(22회), ‘공로상’ 심광섭(21회) 동문 수상

창원지역동창회 ‘용마의 밤’ 개최

경남중고 창원지역동창회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에서 열렸다. 이날 창원지역동창회는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정영주(28회·정영주안과원장) 전 회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김정암(29회·김정암내과원장·사진) 동문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창원지역동창회는 지역 차원에서 매년 ‘용마의 밤’ 행사를 치러오고 있다.



김 신임회장은 “임기 동안 동문 화합과 단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임하는 정 전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동문들의 협조로 대과 없이 임기를 마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우홍(22회) 동문이 용마대상을 수상했다. 심광섭(21회) 동문이 공로상을, 심덕수(26회) 동문이 행운대상을 각각 안았다.



창원지역 정기총회 겸 ‘용마의 밤’ 행사 정경.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회장의 장도를 축하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관 모금 현황과 건물 매입 과정 등을 설명하고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 총동창회에서 박 회장을 비롯,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옥동훈(19회) 사무총장,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일진(31회) 동문, 울산지역 회장 선임

임시이사회 개최... “더 단합되고 즐거운 동창회 만들 터”
경남중고-부산중고 제1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울산지역동창회(회장 권기택·28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1월 29일 오후 옥동개미집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이사회 첫 번째 안건인 차기 회장 선출에서 최일진(31회) 동문이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최 차기회장은 수락인사에서 “조금 더 단합되고, 즐거운 동창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기회장은 현재 울산 제일중학교 앞에서 현대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인 2020년 신년회 일정은 시간과 장소 등 모든 사항을 차기 회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스크린골프, 당구 등 소모임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울산교통방송 편성국장으로서 발령을 받은 정윤희(36회·해운대지구동창회장) 동문이 신고 인사를 했다. 이날 1차 비용은 권기택 회장이, 2차 비용은 최일진 차기회장이 찬조했다.

◇참석자=조광수(13회) 권기택(회장) 이승렬(이상 28회) 박해성 최일진(이상 31회·차기회장) 김인수 이복근 이효성(이상 35회·현대자동차동문회장) 강창수 박성만 정윤희(이상 36회·해운대지역동창회장) 김대영(41회) 정영인 이현(이상 44회) 전치덕(59회).

이에 앞서 경남중고-부산중고 울산지역동창회 제1회 친선골프대회가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울산 보라CC에서 개최됐다. 부산중고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양 동창회 소속 선수 36명 등 38명이 참석했다.



울산지역동창회 임시이사회에서 새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됐다.

소박한 정충...경비 아껴 회관 기부 정성

김해지역동창회, 자주 만나니 우정도 도타워져



김해지역동창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는 두터운 우의가 오롯이 드러나는 자리가 됐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경남중고 김해지역동창회 제35차 정기총회가 송년회를 겸하여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김해시 어방동 바다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선후배 간의 각별한 우의를 증명하듯 이날 회의 자료는 매월 개최한 행사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 소규모 행사도 잇달아 있다. 자주 만나니 그만큼 정도 깊어지는 모양새이다. 이날 총회에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차의수(29회) 김해지역동창회장은 개회사에서 “취임 당시 모교와 총동창회에 도움이 되고, 동문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초심을 내내에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기총회 장소를 호텔이 아닌 식당에서 갖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소박하고 간소하게 차려 비용을 아꼈다. 이 돈을 작은 정성이지만 총동창회관 구입에 보탬

이 되고자 한다”면서 기부금을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에게 전달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김해에 오면 가족적 분위기를 느낀다. 동문 간 잘 어울리는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에서 총동창회관 구입 과정을 설명하고, 동문들의 입주를 요청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날 총동창회 격려금 30만원에다 사비 20만원을 더해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많은 동문들이 협찬 금품을 내놓아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김해지역동창회는 올해 1월 1일 예년처럼 해돋이행사를 가졌다. 김해 명산 분성산 해은사에 집결해서 경자년 첫날의 해를 맞으며 한 해의 소원을 빌고,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

대전·세종지역동창회 송년회

차기 회장 임형택(32회)·수석부회장 박태원(33회) 동문 선임

대전·세종지역동창회(회장 김정택·31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대전 유성구 온천면목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차기 임원진 구성, 기수별 인사말, 근황 소개 등으로 이어졌다.

차기임원은 회장 임형택(32회), 수석부회장 박태원(33회), 사무국장 박종국(39회), 재무국장 김중운(47회) 동문 등

으로 구성됐다.

◇참석자=김동순(8회) 강수성(18회) 김덕수(19회) 김성수(21회) 조대우(25회) 서현수(26회) 남문경 임재덕 정법동(이상 28회) 염명배 이종포 임무택(이상 29회) 김정택 심재구(31회) 임형택(32회) 박태원 윤태성(33회) 박종국(39회) 임병호(41회) 김중운(47회) 박경호(49회) 이덕(51회).



대전·세종지역동창회는 송년회 자리에서 차기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주목 동호회

덕형리그 15개팀 110경기, 대장정 막 올라

2020년 대표자회의 “세계 최고 걸맞은 예 존중을” 2019년 납회식 병행, 52회 우승 영광·51회 준우승

세계 최고의 동문 야구리그로 주목 받고 있는 덕형리그가 지난 2월 1일 2020년도 리그전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지난해 총 13개팀 83경기에서 올해는 15개팀 110경기를 치른다. 오는 12월 5일 결승전을 치르고 장기레이스의 막을 내린다. 신규 가입팀은 44, 53, 54회 야구단이다.

덕형리그는 지난 1월 8일 오후 보수동 동화반점에서 2020년도 대표자회의 및 2019년도 납회식을 가졌다. 지난해 우천으로 일정이 불가피하게 늦어져 해가 바뀌어 납회식을 갖게 됐다. 이날 참가팀 대표자들은 지난해 리그전의 성공적 폐막을 축하하고, 올해 리그전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원했다. 특히 이 자리서 참가 선수 상호간 ‘예(禮)’를

존중하는 리그 전통을 세울 것을 결의했다.

이문열(29회) 덕형리그회장은 이 자리서 “지난 한해 리그를 치러온 참가팀 회원과 경기 진행을 잘 이끌어온 리그

집행부 동문들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올해는 더 많은 팀이 참가했고, 더 많은 경기가 치러진다”면서 “덕형리그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리그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땀은 물론이고, 참가팀의 리그규칙 준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산보고에 이어 신규 가입팀

의 환영인사 그리고 2019년 성적 시상 이 있었다. 2019년 팀 우승의 영광은 52회가 차지했다. 준우승 51회, 3위 47회이다. 이 자리서 임창섭(36회) 사무국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신임 사무국장은 김경곤(38회) 동문이다.

2019년 성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팀 수상=△우승 52회 △준우승 51회 △3위 47회.

- ◇개인 시상=△최우수선수상 하상윤(52회) △우수 투수상 하상윤(52회)
- △감독상 한중현(52회)
- △다승 박훈재·6승 △방어율 박훈재(40A·282)
- △타격상 1위 김동연(51회·630) 2위 김한교(36회·622) 3위 김태성(38회·619)
- △감투상 감동익(51회)
- △미기상 박남수(47회)
- △공로패 임창섭(36회).



덕형리그 2020년 대표자회의 겸 2019년 납회식에서 올해 리그전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원하며 단합을 다졌다.

‘용마의 자부심’ 충만한 즐거운 송년회

경미회, 화합의 잔치...우영환 회장 임기 1년 연장

풍성하고 여유롭고 깔끔했다. 자부심과 자신감이 충만했다. 한마디로 즐거웠다. 경남중고 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의 2019년 송년회 모임을 평가한 말이다. 경미회 첫 송년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면 흥유단 차이나이스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40회부터 53회까지 50명 가까이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미래를 짊어질 용마들이 화합과 결속을 위한 한마음 축제를 벌였다.

지난해 봄 경미회를 출범시키고 초석을 다져온 우영환(40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경미회가 총동창회의 지원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크게 성장했다. 2020년에는 이를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자”면서 “나름대로 송년회 준비를 많이 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이 자리서 옥동훈(25회)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축사를 했다. 옥 사무총장은 동창회관 구입과 정 등을 설명한 뒤 “조직을 신설하여 활성화 하는데 힘이 많이 든다. 경미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우영환 회장을 비롯, 임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치하하고 새해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당부했다.

배병훈(40회) 경미회 부회장은 “경남중고라는 한 지붕 아래서 동문수학한 우리들이다.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전통을 잘 이어가자”고 말했다. 박형규(43회) 부회장은 “이 좋은 자리에 좋은 분들과 연말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면서 건배사로 ‘비행기(비



즐겁고 유쾌했던 경남중고 미래발전협의회 송년회는 총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듯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전을 가지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를 외쳤다.

이날 경미회 행사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찬조로 꾸민 잔치상을 차렸다. 4개 분과별로 찬조 금품이 쌓여 참석자들은 17가지 이상의 선물을 안고 돌아갔다. 또 분과대항 장기자랑도 펼쳐져 상금도 시상됐다. 총동창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경미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윤영진·분과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한 구

수회의에서 우영환 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장기로 결정했다. 조직의 순항을 위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데 만장일치했다.

경미회 사회공헌분과(위원장 최영준·41회)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등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경미회는 2020년 첫 정기모임을 오는 2월 6일 오후 6시 용호동 ‘이가 한우’에서 갖는다. (관련기사 33면)



용마산악회(회장 김법영·33회)는 지난해 12월 8일 2019년 납회 산행으로 산청 둔철산을 다녀왔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용마산악회, 83명 참가 납회산행

둔철산 다녀와...31회 단체 대상 수상

용마산악회(회장 김법영·33회)는 지난해 12월 8일 2019년 납회(4차) 정기산행(총 217차)으로 산청군 둔철산(823m)를 다녀왔다. 83명의 용마와 가족이 참가했다. 산행하기에 좋은 날이었다. 기암괴석과 다양한 폭포를 구경했다.

이날 2019년 산행 결산 시상식이 열렸다. 단체시상에서 대상 31회, 최우수상 41회, 우수상 22회가 각각 차지했다. 수상기수는 시상금을 산악회에 기부, 박수를 받았다.

2020년 용마산악회 첫 정기산행은 3월 8일 부산군교 산으로 예정돼 있다.



주목 동호회

“한국 항만산업의 ‘등대’...큰 자부심”

등대회 46차 정기총회, 산하 동호회 활성화 추진

경남중고 출신으로서 해양·항만·수산업계에 종사하는 동문 직능단체인 등대회(회장 안청홍·29회) 제46차 정기총회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일부 지구동창회 및 직능단체 임원 등도 초대되었다. 14회에서 54회까지 83명의 동문이 참석, 성대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안 회장은 인사말에서 등대회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창립 시부터 소식지 ‘등대회보’를 매월 발간해오고 등대회를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등대’와 같은 위상으로 일궈온 선배동문들의 열정과 희생에 찬사를 보냈다. 안 회장은 “등대회보는 지속적으로 발간한다. 학술세미나도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등대회 산하 동호회의 활성화와 함께 총동창회 산하 유관 동호회와의 교류를 추진, ‘열린 등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동창회가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동창회관 구입 모금액

이 47억원을 돌파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회장 임기를 1년 더 하면서 총동창회관 개관 테이프를 끊겠다”고 말하고 “최근 들어 10대 기수 선배들의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빠져나가던 선배들이 돌아오고 있다. 동문회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등대회는 이날 매년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등대인상’에 오문세(35회) 부회장을 선정, 시상했다.

이 자리서 윤우근, 김화옥(이상 14회) 김경재(19회) 남기석(20회) 주우실(22회) 백창영(23회) 김성권(24회) 등 등대회 원로 선배들이 소개됐다. 이날 행사에 박종찬 총동창회장,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옥동훈(25



등대회 정기총회가 지난해 12월 4일 회원 등 동문 83명이 참석하는 등 성대하게 거행됐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회) 사무총장을 비롯, 김용원(28회) 변호사, 이문열(29회) 덕형리그 회장, 최상규 31회 동기회장, 이종휘(32회)·한수열(40회) 남부산지구동창회장·사무국장, 조선(34회) 용마언론인클럽 회장, 정윤희(36회) 해운대 지구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해룡회(해양대 교수 동문 모임)의 신한원(27회) 이기환(30회) 정지원(38회) 동문과 동서대 한철환(38회) 교수 등이 참석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안청홍 회장을 비롯, 등대회 회원들의 많은 찬조가 있었다.

“제 역할 다하며 마음은 열정으로...”

용마언론인클럽 송년회, 송규정(16회) 동문 협찬하며 덕담

부·울·경 용마언론인클럽(회장 조선·34회) 2019송년회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남천동 송원일식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송규정(16회)·(주)윈스틸 회장) 총동창회 자문위원 등 게스트를 포함 20명이 참가, 조직의 중량감을 더했다.



용마언론인클럽 송년회에서 송규정(16회) 동문이 참석자들에게 신년덕담을 해주고 있다.

조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 많은 선배님들이 도와줘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네고 “총동창회관을 좋은 가격에 매입해서 기쁘다. 새해엔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협찬한 송 자문위원은 격려사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변수가 많다. 어려울수록 우리 동문들은 제 역할을 다하자. 사회의 변방에 있지 말고 중심에 있길 바란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마음을 열정으로 채워달라”고 후배 동문들을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각자의 한해 사회와 새해에 거는 소망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참 기수 몇 명의 이야기를 요약 소개한다.

이용흠(19회)·(주)일신설계 회장) 총동창회 고문은 언론의 올바른 역할을 강조하고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용마언

론인클럽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은 “힘든 한해였다. 나쁜 것은 훌훌 털고 내년이 복된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열(23회) 동문은 “내년 경자년은 역학적으로 볼 때 심상찮은 해이다. 자존심을 세우면서 깨끗하게 살아가자”고 역설했다. 이상룡(24회) 동문은 언론인클럽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이만수(28회) 전 회장은 “언론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해야 한다”면서 언론인의 기개를 주문했다.

이날 2차 자리 경비는 이만수 동문이 부담했다.

◇참석자(게스트 포함)=송규정(16회) 남진현 이용흠(19회) 김기열(23회) 이상룡(24회) 이만수(28회) 김종명 최영식(29회) 김재철 정해석(30회) 최상규 배정우(31회) 정용수(32회) 이석희(33회) 조선(34회) 정윤희 박철중(36회) 강병균(38회) 이태욱(40회) 김경진(44회)

재부고교동문 연합합창제 참가

용마코러스, 정기연주회 이어 또 ‘큰 무대’에

제3회 재부 고교동문 연합합창제가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부전교회 공연홀에서 열렸다. 경남고 용마코러스(단장 장춘식·20회, 지휘자 조성빈·47회)를 비롯, 경남여고 동래여고 부산여고 금성고 등 5개 고교 동문 합창단이 참가했다. 동래여고 옥샘합창단이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고교 교직원과 동문들이 관객으로 참가했다. 800여 객석이 꽉 찼다. 각 합창단의 실력도 예전에 비해 큰 성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원 31명으로 구성된 용마코러스는 이날 ‘그대 이름은 내 사랑이라 하지요’ ‘남향전경’ ‘브라보 마이 라이프’ 3곡을 연주하고, 연합공연으로 ‘남촌’ ‘대장간의 합창’ ‘경복궁타령’을 불렀다. 용마코러스의 단독 연주 3곡은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12일 제3회 정기공연 때 불렀던 곡들이라 익숙했다.

이 행사는 합창을 통한 고교 동문 간의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잔치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



제3회 재부 고교동문 연합합창제에서 공연을 마친 용마코러스 단원들이 박종찬 총동창회장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다. 동창회 차원의 지원과 그에 부응하는 합창단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관객동원 역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날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과 옥동

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이 경남고 객석을 지켰다.

민선 초대 부산시체육회장 장인화(35회) 동문

“동문들 작은 힘 보태고 참여할 때 동창회 발전”

-부산시 체육회 민선체제의 초대 회장으로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소감을 말해 달라.

▲향후 부산의 체육계를 이끌어갈 첫 번째 리더를 선택하기 위해, 체육인들이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고 선택한 이번 선거는 한 마디로 체육인의 승리입니다. 그동안의 오랜 정치적, 행정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오직 체육인의, 체육인에 의한, 체육인을 위한 체육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선체제의 초대 회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당선이란, 노력의 결실이 경남 동문의 자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 78.5%나 되었다.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체육계 모든 분의 진심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부산의 체육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매일 직접 문자를 보낸 제 진심을 받아주셔서 대의원 456명 중 391명이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체육회의 미래에 대한 열망을 진심으로 제게 보여주셨고, 그 열망이 다시 저를 진심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78.5%라는 득표율로 이어졌습니다.

-언론에 체육회를 사단법인화 한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걸림돌은 없는가?

▲부산시 체육회는 관에서 민간으로 그 책임과 권한이 이관되었습니다. 외형적인 독립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 경제적 독립을 통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공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무관청인 부산시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부분이 남아 있지만, 이는 딱히 걸림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얼마든지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아주 '깨끗한 선거'로

민선 초대 부산시 체육회장직은 '열정의 용마' 자리였다. 지난해 12월 27일 치러진 부산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장인화(35회·동일철강(주) 회장·(주)화인 베스텔 대표이사 회장) 동문이 전체 선거인단의 78.5%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다. 오래전부터 체육계의 리더로 활동해와 '준비된 스포츠 경영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장 동문의 이번 쾌거는 경남중고 동문의 또 하나의 자랑이 됐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체육인들과 진심 주고받은 ‘깨끗한 선거’가 78.5% 득표율 낳아 후배들, 구체적으로 꿈 설계…그 꿈을 향한 걸음 멈추지 않기를”



민선 초대 부산시체육회 회장직을 맡게 된 장인화 동문은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체육인들과 소통하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 모범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선거 운동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가 진심만 주고받았을 뿐, 금권이 개입되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도 후보자인 저도 체육회의 미래와 발전 방향 말고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 제가 만났던 모든 체육인을 통해 그분들이 진심으로 열망하는 체육회의 미래를 보았고 가슴으로 서로가 공감했기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었습니다.

하루 한번 공약 안내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답 문자를 보내고, 전화 통화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당선 후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에 규칙대로 교과서적인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끝까지 모범적이고 깨끗한 선거의 완성에 앞장선 우리 체육인들과 부산시 체육회의 미래는 더욱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회장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립하려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최적의 운영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북

안은 있는지?

▲우선 '민선체육회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 예산의 약 0.2% 정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0.5%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부산시 예산의 일정 범위를 체육회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화를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기반을 만들어서 추가로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배움에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운영에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체육인들과 소통하면서 시민 건강증진, 전문체육인 육성, 체육인 권리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최적의 운영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귀를 열겠습니다.

-그동안 체육계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소개를 한다면?

▲2003년 부산 육상연맹 부회장을 시작으로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 대한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협회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대한체육회 이사로 선임되면서 체육 행정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총동창회관 구입에 고액기부(3천만원)도 하는 등 모교와 동문 사랑이 깊은 줄 안다.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 한다면?

▲관심과 참여가 우선입니다. 모든 동문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작은 힘이라도 함께 보태고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둔다면 동창회가 발전하는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신 동문회 집행부와 회장단의 노력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기업 경영과 체육회 일로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삶의 좌우명을 소개해 달라.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으로 매 순간을 새롭게 바라보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죠. 저 역시 기업 경영과 체육회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하는 짬짬이 '조금 더 나아지고 새로워졌는가?' 를 반문하며 스스로 채찍질합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꿈을 꾸라!'. 그 꿈의 크기나 내용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꿈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그 꿈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꿈 안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길 바랍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며,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지?

▲건강관리에 별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봅니다.

스포츠는 모두 좋아합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스포츠 관련 이슈나 기사를 수시로 찾아보는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그를 기억하자” 다시 떠오르는 참사랑 정신

선종 10주기 이태석 신부 ‘꿈’ 실현 위한 실천 줄이어 남부민 생가 뒤 기념관 개관·다큐 ‘슈크린 바바’ 상영

지난 1월 14일 고(故)이태석(35회)신부 선종 10주기를 맞았다. 그를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날 그의 10주기를 맞아 생가(부산 서구 남부민2동2) 뒤편에 설립된 ‘이태석 신부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지상 4층(연면적 89,380㎡) 규모로 1층 카페 테리아, 2층 사무실·프로그램실, 3층 기념관, 4층 다목적홀로 꾸며졌다. 이 신부가 몸 담았던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운명을 맡아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칭송되는 이 신부의 ‘섬김’ ‘기쁨’ ‘나눔’ 등 참사랑정신이 구현될 산실로 조성된다. 살레시오회는 이 기념관이 지역 사회와 협력해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구청은 기념관과 그의 생가, ‘톤즈점방’ 등이 일대를 ‘톤즈밸리지’로 조성, 지역 명소로 만든다.

인제대는 지난 1월 14일 이 신부(인제대 3회 졸업)선종 10주기를 맞아 교내 이태석신부기념실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그의 인제대 의대 동기생 한명은 이태석기념사업회에 의료봉사비로 써달라며 익명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이 신부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의 후속편인 ‘슈크린 바바’(하느님 감사합니다)도 얼마 전 개봉되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한편 동문사회 일각에서는 이 신부의 10주기를 계기로 그의 참사랑정신을 동문회 차원에서 선양하고, 그가 자랑스



고(故) 이태석(35회) 신부

러운 용마라는 사실을 부각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벽을 허물고 소통하고 미래를 논하다

박 총동창회장, 자택서 3차례 송년 동문모임 가져

박종찬(25회)총동창회장이 지난해 연말 동문 초청 자택송년모임을 3차례 가졌다.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동창회 구축’이란 취지로 30대 기수와 40대 이후 기수 리더들의 만남 행사를 두 차례 가진데 이어 지난 몇 차례의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을 공개적으로 초대한 모임이었다. 행사는 지난해 11월 30일(토)과 12월 1일(일) 주말 연이틀과 12월 30일 오후에 각각 진행됐다.

앞서 두 모임에 참석한 경미회 회원들은 홀수(첫째 날) 짝수 기수로 나뉘었다. 이 행사에서 박 총동창회장은 자택 보유 술 26가지를 내놓고 ‘술 특강’을 펼쳤다. 저녁식사 메뉴는 이들 연속 김밥 족발 치킨요리였다. 다양한 다과와 후식이 나왔다. 젊은 기수 동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차림’을 도왔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동창회관 구입 모금 등 총동창회 현황과 미래 비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차세대 기수들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요청했다. 참가자들은 선후배 간 뒤섞여 격의 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 최정상급의 야경 감상은 덤이었다.

특히 첫째 날 모임 자리에서 정신(47

회)동문이 동창회관 구입기금 100만원 기록에서 2,900만원을 추가, 최막내(중전 탁정환 동문·44회) 동관 고액기부자 기록을 경신해 갈채를 받았다.

이번 모임에서 40대 이후 기수는 지금처럼 계속 정진할 것을 약속했다.

세 번째 모임에서 박 총동창회장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총동창회관을 연내에 구입한 것을 자축하고, 동문들과의 소통을 보다 더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번 행사 참가자 ‘가족을 위한 선물’까지 마련해 전달했다. 둘째 날 참석한 허부남(37회)분과위원장도 참석자들을 위한 약밥 선물세트를 협찬했다.

◇참석자 <첫째 날>=박종호(31회) 이종휘(32회) 정윤희(36회) 김태호(38회) 백창봉 전삼록(41회) 강병규 김대영 김영휘(43회) 구자삼 권우일 손창오 조청래 조태성 최상호(45회) 배준수 정신(47회) 신종국 이충현 최진영(49회) 박보순 신석진 정유석(51회) △사무국-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윤원욱(39회) 동창회보 영상편집위원

(기사 26면 넘김)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지난해 연말 자택에서 동문 초청 송년모임을 3차례 가졌다. 박 총동창회장은 동문 간 소통하고 미래를 논하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지난해 11월 30일의 송년 모임. (중)지난해 12월 1일 송년모임. (하)지난해 12월 30일 송년모임.

43회, ‘랩소디2.0 피칭’ 경남고 야구부에 기증

투수 피칭 분석 활용...44·53회는 ‘우정의 찬조’



43회 동기회가 경남고 야구부에 피칭 종합 분석 첨단장비인 ‘랩소디 2.0 피칭’을 기증했다.

43회 동기회가 연초에 장한 일을 해냈다. 43회는 지난 1월 15일 모교 경남고에 ‘랩소디2.0 피칭’이라는 고가의 야구부 장비를 구입, 설치해주었다. ‘랩소디2.0 피칭’은 투수가 피칭할 때 피칭궤적, 구속, 공의 회전수, 투구 모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첨단장비이다.

43회는 지난해 졸업 30주년 홈커밍 데이 행사를 맞아 이 장비를 지원키로 한 약속을 지켰다. 자체 지원금 500만원에서 부족분을 44회와 53회 후배들의 ‘우정의 찬조’로 메워 더 보람찬 기

증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프로팀에 막 보급되기 시작한 이 장비는 부산 지역 고교야구계에서 경남고가 처음이다. 모교 선수들의 우수성과 발전방향을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 수 있어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날 장비 전달식에는 정대호 교장과 전광렬(44회) 경남고 야구감독이 참석했다.

◇43회 참석자=김영휘 동기회장, 박승삼 사무국장, 박형규 전 회장, 이진배 전 총무, 김대영 30주년 준비위원장.

야구이야기



경남고 야구부 후원의 밤 행사에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참석 동문들은 '모교 야구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용마라는 별칭을 덤으로 얻어 갔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경남고 야구부 후원의 밤 “뜨거웠다”

야구부 신입생들 환영의 박수 받으며 대성 꿈 키워 새 출발 경야회 주관

경남고 야구부 후원의 밤 및 신입생 환영회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경남고 체육관에서 경남고 야구부와 경야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경남고 야구부 선수와 2020년도 신입생, 정대호 교장 등 교사,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과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 요원, 김부겸(29회) 부산시야구협회장, 송승준(53회) 이대호(55회) 등 경남고 야구부 출신 프로야구 선수, 야구 애호 동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정대호 교장은 격려사에서 “올해 프로야구단에 6명이 진출했다. 큰 성과였다.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며 선수단에 최선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자리서 박 총동창회장은 야구부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경야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어 박 총동창회장은 “야구부 훈련장 보수는 어떤 형태로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은 “경남고 야구사 없이는 대한민국 야구역사가 없다”면서 “후배 야구부 선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른 인격과 건강한 신

체로써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렬(44회) 경남고 야구부 감독은 “뒤통수까지 해준 학부모와 후원해준 동창회 및 동문들께 감사하다. 내년에는 ‘감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신승환(51회·배우)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입생들은 무대에 올라 자기소개를 하면서 큰 박수를 받았다. 학부모회에서는 전임 회장단에 감사패를 전했다.

총동창회는 이 자리서 올해 각 기수별로 분담 조성한 야구부 후원금(동계 훈련비 용도) 2,500만원을 정 교장에게 전했다. 또 경야회에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덕형리그(회장 이문열·29회)는 1,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경야회는 5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44회 동기회는 14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와 동기회 명의의 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사전행사로 모교 운동장에서 덕형올스타 vs OB올스타, 경남고 OB vs YB 경기가 펼쳐졌다.

경남고 야구부 송년회 “새해 도약 다짐”

허부남(37회) 동문 협찬...“후배 사랑하는 마음”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부산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경남고 야구부 송년회가 열렸다. 송구영신의 자세로 새해엔 큰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야구부 코칭스태프, 재학생과 모교에 진학할 야구부 신입생 및 학부모, 그리고 야구를 사랑하는 동문 등 8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허부남(37회) 총동창회 문화집행분과 위원장의 협찬으로 이뤄졌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총동창회관을 구입했다. 임대수익이 나오면 모교 지원금이 상향될 것이다”면서 “야구부 선수들은 스포츠맨십을 배우고 기량 연마에 전념해달라”고 말했다. 전광렬(44회) 감독에게는 내년 도에 한번이라도 전국대회 우승을 실

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하여 박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작은 거인’이라 칭해진 허부남 동문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뛰어준 야구부 후배들을 격려하고, 모교에 진학할 새내기들을 가까이서 보며 선배로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총동창회장과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을 비롯, 류명석(31회) 정책집행분과위원장,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동창회장, 이윤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장,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동창회장, 신동훈(38회), 백창봉(41회), 안병규, 임정훈, 탁정환(이상 44회) 동문 등이 참석했다.



허부남(37회) 동문이 협찬한 경남고 야구부 송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25면 이어받음>

<둘째 날>=류명석 오민일 이병태 홍성수(31회) 류장근(33회) 허부남(37회) 권두성(38회) 배병훈 우영환(경미회 회장) 한수열(40회) 최영준(41회) 박동식 신봉준 정용중(42회) 박형규(43회) 손창오(45회) 김동현 김정현(50회) 김민철 김지운 김현진 정상중(52회) △사무국-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동창회보 영상편집위원.

<셋째 날>=배대결(13회) 김화욱(14회) 김종명 황유명(29회) 박종호(31회) 이종휘(32회) 이용희(34회) 신승렬(36회) 이수환(37회) 김계동 박용한 백기현 이상학(39회) 박승삼 심문섭(43회) 이승철 조청현(44회) 신현식(51회) 이재필(54회)

“2020년 성적 기대감” 막판 우승 낭보

경남고, 기장국제야구 대축제서 대구고 꺾고 패권

“경남고 야구부의 2020년 시즌 성적을 기약할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11월 30일 폐막한 2019기장국제야구 대축제 고등부 결승전에서

초대 우승팀 대구고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경남고 야구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경남고는 이날 부산 기장군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구장에서 열린 대회



경남고 야구부가 2019기장국제야구 대축제에서 우승을 거두고 축하 프레임을 받고 있다.

에서 대구고를 5-1로 격파, 우승을 하면서 새해 전망을 밝게 했다.

경남고는 이날 ‘눈 야구’로 다수의 볼넷을 얻어 승기를 잡았다. 게다가 선발 김창훈은 4⅓이닝 동안 노히트 피칭을 펼쳤다. 특히 4회말 김창훈은 3실책, 1볼넷에도 무실점 역투를 하는 등 위기 관리 능력까지 보여 주목을 받았다. 5회말 1사후에 마운드에 오른 김주완 역시 ‘지물쇠 피칭’으로 대구고 타격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올해 이렇다 할 대회 성적을 내지 못했던 경남고는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우승기를 거머쥐어 다음해를 희망찬 해로 맞이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번 동계훈련에서 쏟은 땀의 양이 얼마일지가 관건이다.

‘정독실 책걸상 비용’ 선배 쾌척에 큰 감동

천신일(15회) 동문, 후배 면학 도움 줄 ‘사랑의 선물’ 경남고, 동창회에 야외훈련장 보수비도 지원 요청서

경남고(교장 정대호)는 오는 3월 초 새 학기를 맞아 정독실 개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가장 문제가 되던 책걸상 구입비용 조달이 극적으로 성사돼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큰 기대에 차 있다. 책걸상 구입비용 2,500만원을 15회 졸업생인 천신일 동문이 전액 쾌척, 감동이 배가되었다.

경남고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남중고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경발위 포함)에 지원 요청서를 각각 보냈다. 야구부 야외훈련장 보수공사 예산과 정독실 책걸상 구입 예산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이다. 야구훈련장 보수공사 예산은 1

억2,480만원(건축사무소 이상향 설계)이며, 정독실 책걸상 예산은 2,500만원(조당 27만원×90조=2,430만원)이다.

요청서에 따르면, 야구부 야외훈련장은 2008년 11월 변용준(24회) 동문이 기탁한 조립식 건물로 노후화 되었고, 지난해 몇 차례 덮친 태풍으로 지붕이 30% 이상 날아가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 되는 상태이다. 게다가 샌드위치 패널 소재라 화재 및 붕괴 위험으로 교육청의 철거 명령 대상이다. 학교 건물 포화로 이전 장소 확보가 곤란해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독실은 학교 정문 앞 아파트 건설

에 따른 전망권 피해보상으로 이수건설에서 건립해 기부채납 될 ‘수위실 및 역사관’(2층 철근콘크리트)내에 설치된다. 3월 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은 확보했으나 책걸상 구입 예산 조달이 어려워 동창회에 호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대호 교장은 “야구부 야외훈련장 보수는 학생들의 안전한 운동 공간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독실 책걸상 구입은 면학 분위기 고양을 위해 실현돼야 할 과제였는데 동문 선배님의 기부로 해결돼 매우 기쁘다. 후배들도 선배님의 사랑과 기부 뜻을 잘 이해하고 공부에 정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교장은 “정독실에는 1,2학년생을 반반씩 수용한다. 지도교사실까지 마련, 면학에 집중할 계획”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경남고 정독실 모습.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라고 설명했다.

총동창회는 야외훈련장 보수공사비 9,480만원(부산시교육청 지원 3,000만원 제외)을 총동창회와 재경경발위가 50%씩 나눠 각기 4,740만원을 부담하자고 제의했었다. 그러나 재경경발위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총동창회는 학교와 이 문제를 두고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관련기사 10면〉



경남고 용마축제 개최

경남고는 지난해 12월 24일 교정에서 용마축제(사진)를 개최했다. 용마축제는 크게 공연, 미술작품전, 먹거리장터, 동아리체험활동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미술작품전은 김윤애 선생님의 지도로 용마갤러리에 자화상, 풍경화, 카툰 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먹거리장터는 학생회에서 주관, 학생들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였다.

동아리체험활동은 농구동아리, 축구

동아리, 도서동아리, 메이커스동아리, 학생회동아리, 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동아리 등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등 참가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주었다.

용마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공연은 학급별 장기자랑, 밴드 공연, 댄스 공연, 찬조출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공연을 통해 모든 학생은 그동안 학교생활과 학업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말끔히 풀었다.

〈경남고 주백돈 교사 도움말〉

운동부 청렴도평가 최우수 학교에 선정

경남고가 2019학년도 학교운동부 청렴도평가 최우수 학교에 선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증서와 청렴패(사진) 지원금 2,400만원을 받았다. 경남고는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홈페이지 공개, 학교장 주재

운동부 학부모 간담회 개최 등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9학년도 학교경영 우수학교 선정

경남고가 부산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19학년도 고교 지원장학 및 학교 교육활동 평가에서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지난 2월 3일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시 소재 고교 중 공립 2개교, 사립 2개교, 특성화고

1개교가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경남고는 학생참여중심수업 확산 노력, 인성·생활교육 및 학폭예방활동 노력, 메이커 교육 등 미래역량 강화 노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영택 교사, 장학금 300만원 쾌척

경남고 조영택 교사가 부군인 김사백 씨의 명의로 지난해 12월 장학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조 교사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태도로

학업에 임하는 재학생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해왔다.

경남중, 국외문화체험학습 실시

총동창회서 매년 예산 지원해 와

경남중학교(교장 김미정)는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국외문화체험 학습을 실시하였다. 이 체험학습은 경남중고 총동창회 지원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019학년도 학생회장 3학년 황민기 군을 비롯, 13명(1학년 3명, 2학년 4명, 3학년 6명)의 학교교육활동

우수학생이 3박 4일간 중국 상해 지역을 방문하였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인 노신공원 등을 방문, 애국열사의 얼을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더불어 이번 체험 학습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유적지, 윤봉길 기념관, 동방명주 전망대.



고, 발전된 중국의 모습을 발견하고 숙지는 기회가 되었다.

〈경남중 류정혜 교사 도움말〉





동기회 및 직능단체

9회 동기회 = 정기총회

9회 재경동기회 2019년도 정기총회가 지난해 12월 14일(토) 퇴계동 41길 31에 소재한 동기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서해량 회장은 2019년은 부산 9회 동기회가 종연을 고하고 재경동기회만 남은 어쩔 수 없는 세월의 소용돌이 속에서 9회가 힘든 한해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이날 '현 회장단 전원 유임'이 확정됐다. 회장 서해량, 부회장 김경희·이환원, 사무국장 홍기표, 감사 박남수 동문이다. 참석 동문들은 이춘식(로사그린 대표) 동문이 기탁한 5만원상당의 황금비누와 권영대(오리엔트해운 대표) 동문이 기탁한 2020년 캘린더를 선물로 받아 즐거웠다. 이날 남해횃집에서 송년 만찬을 즐기며 정겨운 대화를 나눴다.

14회 동기회 = 송년회



14회 동기회(회장 유충일)는 송년회 겸 정기모임을 지난해 12월 18일(수) 범일동 더파티 범일점 17층 뷔페에서 가졌다. 50여명의 동기들이 모였다. 이날 강주신 동기가 차기회장에, 박현목 동기가 차차기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술과 음식을 즐기면서 황준성 동기의 시조창과 그 일행의 시조창, 대금연주를 감상하고 행운의 추첨으로 행사를 끝냈다.

일육산악회 = 12월 정기산행



16회 동기회 동호회인 일육산악회(회장 정우광, 국장 서고명)는 지난해 12월 15일 가덕도 산행 후 김무광 동기의 별장 초대를 받았다. 김 동문은 이날 굴, 가리비구이 및 삼겹살 파티를 베풀었다. 박민소 동기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다. 앵콜송 '오 데니 보이'는 가덕도 전역에 울려 퍼졌다.

◇참석자: 권명석내외 서태복내외 손송방내외 안국정내외 이겸일내외 정우광내외 최정일내외 강종국 김무광 김한선 박민소 서고명 엄종원 엄주익 홍정길 최설악(동기부인)

16회 동기회 = 정기총회




33회 산우회, 네팔 원정산행

33회 산우회(회장 김태훈)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환갑 기념 및 제800차 네팔 원정산행을 다녀왔다. 동기 부부커플 6쌍, 솔로 1명, 동기 부인 1명 그리고 윤원욱(39회) 동창회보 영상편집위원이 참가했다. 일행은 담푸스 오스트레일리아 캠프 트레킹과 일부 패러글라이딩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헬기투어를 병행하며 안나푸르나 산군을 둘러보았다. 이어 석가모니 탄생지 룸비니를 순례하고 마지막으로 카트만두에 돌아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들을 탐방했다.

◇참석자(부인)=김법영(김미란) 김태훈(이수정) 남택은(이명진) 민병현(공미형) 이윤조(오미옥) 정영학(김미경) 지창근 윤서현(김종만 동기부인) 윤원욱(39회).

33회 산우회 네팔원정팀이 마치 그림 같은 저멀리의 히말라야 설산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었다.

지난 1월 17일(금) 구포집에서 결산안 통과 후 임원(손송방 회장, 서고명 감사, 김한선 국장) 전원 유임과 활기찬 동기회 계속 유지를 다짐했다.

◇참가자: 강종국 권명석 김정갑 김한선 박민소 박영수 방수근 변일수 서고명 서정호 손송방 송규정 안국정 엄종원 엄주익 옥무웅 윤세진 이겸일 이맹립 이명수 이방소 이양근 이종철 임실 장사중 정신극 정영일 정우광 최양주 최정일 하주열 현승부 홍정길

17회 동기회 =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지난해 12월 27일(금) 남포동 영도다리 횃집에서 동기와 동기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참석자: 김기식 김길호 김병문 김상천 김성락내외 김승현 김용남 김원일내외 김종국내외 김준연 김지창내외 문석웅내외 박신도 박영두내외 박영일내외 박재구 박정홍내외 박흥식내외 서정승 송영문 송영태 송유근 신정아내외 오태식 윤성욱 윤수성내외 이건우 이정보내외 이종혁 이형우 주상한 최좌삼

18회 동기회 = 송년의 밤



지난 12월 10일(화) 마리나블루키친에서 동기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공산우회 = 납회산행



지난해 12월 15일(일) 행사 식순으로 정승창 회장의 인사에 이어 남경열 국장이 1년간 출석현황 등을 보고했다. 김일석 동기의 재정적 도움 공로 소개에 모두 감사의 박수. 이날 김일석 동기는 참석자 전원에게 새해 선물세트, 김두영 동기는 좋은 술을 선물하였다. 이날 부산대 캠퍼스를 관통, 급경사의 등산로 산길을 걸었다. 산행거리 약 5km로 추정.

◇참석자: 김두영 김일석 남경열 박기상 이상익 이종열 장병호 정승창 주창훈 표문배

21회 동기회 = 송년회



지난해 12월 9일(월) 38명의 동기와 동기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횃집(중앙동)에서 송년모임을 하였다. 정영천 동기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직전회장 송원경 동기의 건배 제의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날 찬조금 100만원, 대형의료기(발마사지) 1점(시가 100만원 상당), 음이온기 3점, 고급캘린더 40부 등이 들어와 송년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9면에 계속)





동기회 및 직능단체

〈28면에 이어서〉

23골프회 = 송년회



이삼골프회의 송년모임을 지난해 12월 11일(수) 남천동 소라횃집에서 가졌다. 이날 이영흔 회장이 직접 수배하여 찬조한 대방어(12kg·40만원대 이상) 횃감을 손수 손질, 요리했다. 참석 회원들은 수준 높은 셰프의 작품 정통 회요리를 원도 한도 없이 즐겼다. 모든 회원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만장일치로 ‘2019년 한해 무척 행복’에 의견을 모았다. 2020년도의 행복을 책임질 이삼회 신입 회장에 원인건 동기가, 신입 사무국장에 전상대 동기가 각각 지명되었다.

◇참석자: 김태용 원인건 윤순현 윤일한 이병찬 이상렬 이상수 이영흔 이충호 전상대 정상건 정용호 채행운 최인식

24회 동기회 = 정기총회 겸 송년회



지난해 12월 20일(금) 38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장춘방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노상우 회장의 모두인사를 시작으로 김인구 사무국장의 주요행사 결과 보고 등 2019년 마감을 하였고, 2020년 임민호 신입회장의 인사말과 2020년 운영에 산안심의 및 승인을 하였다.

◇참석자: 강동우 강종문 곽두희 권수찬 김경남 김규철 김도인 김도현 김동은 김성권 김성득 김인구 김인철 김장현 노상우 박흥규 배종갑 손성호 안명수 안태인 여성근 여철우 이상룡 임민호 장수현 장한중 정기춘 정영석 조영태 주점권 차동렬 최동우 최승국 최우림 최원주 태창업 한승철 황규선

25회 동기회 = 송년회



지난해 12월 10일(화) 서면 부광횃집에서 송년회 모임을 가졌다. 1차 부광횃집 식사비는 서병수 동기가 쾌척했다. 이날 송정규 동기 40만원, 박종찬 총동창회장 20만원, 김종현 동기 20만원, 이한식 동기 30만원 찬조. 그 외 김상수 동기가 탁상달력을, 옥동훈 사무총장이 타월을 각각 찬조.

◇참석자: 김진우 김동진 김구화 김영명 김옥권 박광용 서보민 서병수 송정규 여성조 옥동훈 이동석 이상화 임상택 이태근 양계현 임무홍 안희석 장승엽 장세훈 전상태 전섭태 제영성 최재환

25회 산우회 = 동기회 가을여행 겸 정기산행



지난해 11월 9일(토)~10일(일) 1박2일 일정으로 20명의 동기가 동기회 가을여행 겸 정기산행을 김수환 추기경 생가(경북 군위)에서 문경새재길 구간으로 다녀왔다.

◇참석자: 김길수 김영국(문경 거주) 김용수 김유환 김중현 김태선 서보민 송정규 양계현 여성조 옥동훈 이동석 이상화 이신화 이태근 임상택 장승엽 정동운 제영성 탁준길

26회 동기회 = 제3차 에코투어



지난해 12월 7일(토) 25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3차 에코투어를 다녀왔다.

자갈치, 송도 암남공원, 태종대, 자갈치 크루즈 투어를 하고 자갈치 회센터에서 대방어, 밀치, 광어 등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김상현 김종우 박재창 배흥규내의 송진성 신형진 왕정일 유봉식 윤홍석 이경호 이광태 이상원내의 이영학내의 장경재 정익교 정인수 최수일 최의수 하길태내의 허종내의

27회 동기회 = 송년회



지난해 12월 27일(금) 65명의 동기와 동기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 외식일번가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이원익 재미 동기부부, 상주 농민 서명식 동기, 이홍걸 재경동기가 참석하여 더욱더 뜻깊은 자리되었다.

이원익 동기 20만원, 김재섭(사진 작가) 동기 작품사진 2점, 서명식 동기 아로니아즙 3박스, 유영호 동기

“동창회보 구독료 1천 달러 입금”

조성우 LA지역동창회 사무국장 박 총동창회장에게 직접 전달

“멀리 이국에서라도 경남중고 졸업 동문임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갖고 싶은 심정이다.”

미국 LA지역동창회 조성우(36회) 사무국장(지난해 12월 12일 송년모임에서 회장으로 추대)이 고국을 찾아와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에게 한 말이다. “고국에 다니러 왔다”는 조 동문은 LA지역동창회의 동창회보 단체 구독료 1천 달러를 전달(사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박 총동창회장을 만났다.

이날 박 총동창회장은 남구 용호동 W아파트 상가 중식당 ‘하준’으로 조 동문을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사무국팀과 32회 양호진 정윤희 동문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서 조 동문은 LA지역동창회의 현황을 소개했다. 선배 기수의 고령화, 후배 기수의 참여 저조 현상 등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걱정했다. 구독료 1천 달러 전달과 관련, 조 동문은 “박 총동창회장의 LA지역동창회 방문과 고국의 총동창회 활성화 소식에 현지 교포동문들이 고무돼 있다. 동창회보 구독료 4천 명 달성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모임은 박 총동창회장의 초대 형식이었으나 양 동문이 ‘동기간 우정’을 고집하면서 1, 2차 행사 경비를 부담했다. 2차 자리엔 36회 동기 박진용, 최필조 동문과 김태호(38회) 동문 등이 합석했다.



27년산 매실주 5병 외 선물용 미니술 90병, 남궁정화 여사 그림달력 40점 등 찬조.

◇참석자: 강봉호 김대용내의 김병호내의 김상문 김석운내의 김안석내의 김용섭내의 김용태 김재섭 김주호내의 김지연내의 김지원내의 박찬석 박찬용 박철기 박현호 방문성내의 배병록내의 배병호내의 백민호내의 변재국 서명식 신한원 내의 양태종내의 유영호 윤석건 윤일근 윤지한내의 이상열내의 이원익내의 이종경내의 이종찬내의 이태주내의 이형복내의 이홍걸 장기남내의 장인철 전창민 조용수 조태화 태기섭 허한내의

〈30면에 계속〉





동기회 및 직능단체

<29면에 이어서>

27산우회 = 시산제



27회 산우회(회장 방문성)는 지난 1월 12일 금정산에서 회원과 가족 등 13명이 모인 가운데 올해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산행을 비는 시산제를 지냈다.

◇참석자: 강봉호 강영건 김재섭 김지원 박찬석 박현호 방문성 변재국 윤석건 윤지한부부 이현 장기남 홍종만

28산우회 = 송년산행



지난해 12월 8일(일) 승학산(497m)으로 28산우회 송년산행을 다녀왔다.

28회 동기회 = 용마바둑대회



지난해 12월 15일(일) 몇 년 만에 재개된 용마바둑대회에 참여해 28회팀이 최강부(김용섭, 박래섭, 이관선) 우승, 일반부(김정유, 소유남, 전학명) 준우승을 하였다.

13회~40회까지 20팀, 70여명이 출전한 가운데 28회팀은 5팀이 출전해서 수상을 휩쓸면서 기왕(棋王)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29회 동기회 = 송년회



K29 본부동기회 송년모임이 지난해 12월 16일(월)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34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남상경 동기가 30만원, 장만 동

박 총동창회장, 25회 기부자 동기 초청 만찬

총동창회관 구입 기금 모금운동 과정에서 25회 동문의 경이적인 참여율이 동문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박총찬(25회) 총동창회장이 기부 동기 초청, 감사인사의 자리를 세 번째로 마련했다(사진).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남천동 프랑스 요

리전문 트레빙식당(39회 함충민 동문 운영)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 25회 동기는 박 회장 외 김구화 김영명 김태선 서보민 양계현 오태관 임상택 동문과 옥동훈 총동창회 사무총장이다. 그밖에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등이 참석했다.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면서 동창회관 구입 기부금을 낸 오태관 동문은 고국에 다니러 왔다가 연락이 닿아 이날 참석하게 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 소요 경비는 박 회장 사비로 집행됐다.



기가 발렌타인30년, 조니워커블루를 협찬하였다. 2차는 용호동 W상가 수제맥주집에서 11명이 참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참석자: 김기영 김대욱 김영 김영기 김영화 김순기 김종명 김철오 김태완 김한일 김호성 남상경 박상길 박성철 박영환 손용택 안청홍 양승오 오덕현 윤종경 이강훈 이남중 이문열 이충원 장만 장현경 전장화 정길 정란 한휘철 현응렬 홍택중 황맹균



30회 동기회 = 신년회 겸 정기총회



지난 1월 9일(목) 53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서재원 동기가 경영하는 광안리 수변공원 대교횡집에서 신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명건 회장 인사를 시작으로 2019년 하반기 결산 및 행사보고와 경자년 새해 업무보고가 있었다. 동기근황, 동기회 기금 및 사랑의 기금 현황 설명에 이어 친교의 시간, 경품 추첨 등을 갖고 후라경고로 마무리했다.

◇참석자: 강수철 권택술 권용택 김경수 김기섭 김기수 김병기 김성은 김영주 김우현 김유기 김인섭 김재수 김재중 김정웅 노치훈 명효준 박동욱 박모철 박영홍 박흥식 박희관 배성근 서강태 서재원 서하수 송한식 신영주 신인기 왕순모 우홍제 유영록 윤인태 이광봉 이명건 이영준 이원경 이원용 이재순 이학수 이한수 이호준 인준승 전화원 정성원 정용하 정종범 정채화 정해석 최우철 최인근 홍인기 황철민

30회 울산동기회 = 11월 월례회

30회 울산동기회(회장 김치영) 지난해 11월 월례회가 26일 오후 남구 달동 어가회집에서 열렸다. 9명의 동기와 울산지역동창회 박철중(36회) 사무국장이 참석,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김승범 김치영 박성태 박원호 신교선 안호종 양문섭 이진걸 정진국 박철중(36회)

31회 동기회 = 송년회



지난해 12월 21일(토) 37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동래구청 뒤편에 있는 산골수육(최광수 동기 운영)에서 동기회 송년회가 개최되었다.

한 해 동안 참석 동기들 모두가 건강하고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누었다.

◇참석자: 공종렬 권해철 김광현 김병기 김성규 김용호 김운택 김태근 김학현 김효연 남기태 문성일 박세환 박종규 박흥배 배정우 배정호 서동균 서수교 심재현 심재홍 안병곤 예현수 윤정수 이기범 이석우 이성식 이종만 이희준 임종태 조성제 천장호 최경우 최광수 최상규 최주홍 최재식

32회 동기회 = 리마인드 수학여행



<31면에 계속>



동기회 및 직능단체

<30면에 이어서>

32회 동기 35명이 지난해 11월 16일(토)~17일(일) 1박2일로 김상권 동기가 운영하는 남해 미라도르 펜션에서 리마인드 수학여행을 가졌다. 첫째 날에는 펜션에서 여흥을 즐겼고, 둘째 날 남해 독일마을 문화예술촌 관람 후 점심을 먹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참석자: 권학률 기영수 김규원 김대경 김상권 김상범 김성환 김영도 김원근 김재학 김태홍 박기노 박성철 박종호 설옥일 신승학 윤병조 이규봉 이동영 이득우 이문경 이문영 이병훈 이상현 이웅길 이종휘 이환용 장기호 정성수 정영철 정현상 정현옥 조준현 허정 황문찬

33 야구단 = 단합대회



33야구단은 최근 제51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기 기별야구대회 우승기념 단합대회를 거제도 가조도에서 가졌다. 김운성 33동기회장, 공진우 야구단장 및 박상국 감독 등 10명 동기가 참가, 거제도 관광 후 숙소 황금노을펜션에서 '우승 감격'의 여흥을 즐겼다. 이 자리서 33야구단은 향후에도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적극 참여키로 다짐하였다.

34회 동기회 = 송년회



34회 동기회는 지난해 12월 13일(금) 오페라프리마 웨딩홀 뷔페(송환성 동기 운영)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대구에서 박영호 동기, 동기회 처음 참석 김교민 동기 등 모두 42명의 동기가 참석. 백운창 동기가 참석자 이름을 각각 새겨 맞춤제작한 고급 불펜을 선물했다. 송환성 동기는 행사 현수막과 주류 및 음료수 일체를 찬조하고 식대까지 할인해 주었다. 최대한 동기회장과 이성엽 홈커뮤니티 추진위원장은 합심하여 100만원 상당의 안동간고등어 45세트를 찬조했다.

◇참석자: 강윤모 권대식 권병웅 김교민 김두섭 김인철 김중근 김창영 김태하 김현용 노인선 문창영 박기훈 박영호 박우현 박창표 박철호 배성산 배윤환 백운창 손병걸 송환성 옥재명 유승민 윤성배 이상도 이상운 이성엽 이용희 이재완 이정철 이천식 전충수 정하태 조선 최대한 최봉근 최웅철 한원일 허윤모 황기운 황병주

36회 동기회 = 야유회

지난해 11월 10일(일) 35명의 동기와 동기가족이 참석 한 가운데 회동수원지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회동수원지 땅피산 산행 후 하동집에서 식사하며 족구와



경품 추첨도 하며 한해 전체모임을 마무리 하였다.

◇참석자: 곽상호 김경무 김경찬 김광수 김동기 김동현 김수용 김정현 김중구 김종일김창일 김철원 박용철 박형출 손진규 안재익 우현주 이동희 이성호 이정범 이학수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장창용 전영목 정병기 최상도 최원식 최태섭 (부인: 김금희 김민정 서준희 임미애 황미란)

36회 울산동기회 = 신년회



36회 울산동기회 2020년 신년회 및 전입 동기 환영회가 지난 1월 21일(화) 중구 다운동 민지수산해물에서 박성만 회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윤희 동문은 TBN울산교통방송 편성제작국장으로 1월 2일자 부임, 울산동기들과 다시 만나게 돼 고맙다면서 울산동창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퇴사 후 해운대로 이사한 김지현 동문과, 어르신 병수발을 드느라 참석이 뜸했던 정영호 동문이 모처럼 합류했다. 이날 이원석(울산동기회 국장·전 울산지검 근무)동문이 1차비용 전액을 찬조했다.

◇참석자: 강태원 김지현 박성만(회장) 박철종 이원석(국장) 정영호 정윤희 제갈재환

37회 동기회 = 송년모임



지난해 12월 10일(화) 중앙동 달토끼에서 25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2019년도 37회 동기회 송년모임을 가졌다.

39회 동기회 = 송년회



지난해 11월 29일 대연동 부산토담오리(운동배 동

기 운영)에서 박근태 동기회장과 15명의 동기가 모여 2019년 동기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은 못했지만 목포에서 박준곤 동기가 택배로 목포 세발낙지를 보내왔다. 함께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담았다. 강석재 동기가 모처럼 참석하여 무척 반가웠다. 연말이라 참석률은 저조했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임기를 다 채운 박근태 동기회장은 후임이 없어 1년 더 수고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동창회관 구입 개별기부와 동창회보 구독료 4,000명 달성 납부 캠페인에 관심을 당부하였다. 김종업 사무국장은 2019년도 동기회 사무 및 회계사항 경과보고를 했다. 이 자리서 2020년부터 2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대한 경조사 지원금 인상안이 채택됐다. 부모 상사 조문답례로 안영준(해의 출장 중 불참) 동기 30만원, 여동섭 동기 20만원 협찬.

◇참석자: 강석재 김병기 김용태 김윤홍 김종업 김형보 노성수 박근태 박인석 여동섭 윤동배 윤상훈 원원욱 이상학 이종욱 정우영 하순호

40회 동기회 = 신년회



지난 1월 10일(금) 14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웨프의 부대찌개(47회 정신 동문 운영) 영도점에서 2020년 신년회를 가졌다.

◇참석자: 김동근 김병주 문태영 박근성 박훈재 배영진 신영석 우영환 이강욱 이승배 이창진 이태욱 임태영 최용석

41회 동기회 = 송년회



지난해 12월 13일(금) 힘찬민물장어에서 2019년 마지막 동기회를 하였다. 기별야구대회에서 장년부 준우승을 하며 멋진 경기를 펼쳐준 동기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전삼록 현 회장이 1년간 더 수고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더욱더 파이팅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했다.

◇참석자: 강병오 김동한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 백창봉 장기조 전삼록 한창희 허치희

42골프회 = 2019년 회장배 골프대회



<32면에 계속>



동기회 및 직능단체

<31면에 이어서>

경남중고 사이(42)골프회 2019년 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해 11월 20일(수) 김해 롯데스카이힐CC에서 열렸다. 3조 12명이 선의의 경쟁으로 라운딩을 즐겼다. 김수용, 김영태, 신봉준, 이영환, 장일천 동기는 아쉽게 뒤푼이에 참가. 시상은 메달리스트 한봉균 동기, 신페리오1우승 한봉균 동기, 니어리스트 곽창우 동기.

정용중 동기가 홀인원 볼 2박스, 신봉준 동기가 파워치 1점, 김현오 동기가 캘리웨이볼, 현대용 소화기, 와인 1병, 텀블러 2개, 곽창우 동기가 맛있는 쌀 10kg을 찬조해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참석자: 곽창우 김현오 김효진 박기열 박동식 박상욱 성장우 여인환 유경상 윤종득 이승훈 한봉균

42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해 12월 6일(금) 오투기식당(중앙동소재)에서 2019년 경남중고 친구42 마지막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동기회 발전에 기여한 동기 2명에게 특별한상이 수여됐다. '동기대상'에 등산부 산악대장인 고장석 대장, '친구42상'에 직장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주말뿐 아니라 항상 동기모임에 참석하고 동기회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강인호 동기가 각각 선정됐다.

◇참석자: 강인호 고장석 곽창우 김세현 김영태 김원주 김현오 문지성 박동식 송정열 신봉준 안상현 안용진 안정일 양정규 유경상 윤영기 윤영덕 이대희 이승훈 이영도 이정철 한태희 그 외 동기들

43회 동기회 = 송년회



지난해 12월 6일(금)해운대 센텀 후다담춘천닭갈비 김민석 동기 운영에서 여러 동기들이 모여 좋은 시간을 나누었다. 멀리 서울과 거제도, 양산, 울산에서도 참석했다.

◇참석자: 강병규 강진만 고양렬 김동현 김민석 김영희 박경근 박승삼 배진국 심문섭 엄흥국 오일남 윤성진 이상필 이석민 이정렬 이진배 정창석 정효범

45회 동기회 = 송년회



지난해 12월 6일(금) 32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해찬들 왕소금구이와 익스믹스에서 45회 송년회를 가졌다. 멀리 서울에서 참석해 준 동기도 고맙고, 남미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얼굴 보러 온 동기도 고마웠고, 많이 참석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참석자: 강민수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대영 김동규 김동완 김병한 김상수 김성준 김영주 김종현 김창균 박상우 박양호 박준오 박진수 박진환 손창오 신상호 안형오 이광석 이동희 임석범 정종훈 조청래 조태성 최상배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45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1월 17일(금) 27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중식당 취원에서 2020년 새해 첫 정기모임을 하였다. 주말에 첫 모임에 많이 참석해 준 동기들이 정말 고맙았다. 올해도 더욱 파이팅하는 45회가 될 것이다.

◇참석자: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대영 김병한 김상수 김성준 김영주 김종현 박준오 박진수 손창오 안형오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동희 이좌철 이진호 임석범 정종훈 정행덕 조태성 최지우 추현상 하인수 황귀웅

47회 동기회 = 송년회



지난해 12월 14일(토)정신 동기회장이 운영하는 영도 '셰프의 부대찌개'에서 30여명의 동기가 모여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기별야구대회 우승과 덕형리그 플레이오프 4강 진출 등 야구 성과를 자축했다. 정신 회장은 송구영신 멘트와 앞으로 동기회 활성화를 독려하고 본부, 재경 등 47회 모두가 함께하는 동기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단별(야구단 서정민 감독, 골프단 최경훈 단장, 산악단 이승택 단장) 각오를 다지고 향후 단별 행사와 활동도 더욱 왕성히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47회 동기회는 2020년에는 총동창회에서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결의했다.

47회 동기회 = 부산·재경 회장단 모임



부산회장단이 1월 17일(금)~18일(토) 양일간 서울에서 재경회장단과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20주년 홈커밍 이후 공식적 회동은 사실상 처음. 별난회집(45회 선배 운영)을 시작으로 거의 무박 2일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된 내용은 3년 앞으로 다가온 2023년 30주년 행사. 하나 된 47회가 되자는 큰 뜻을 나누었다.

◇참석자: 감기환감사 김동휘국장 서정민야구단감독 정신회장(부산 회장) 김중석국장 박갑동 배민호 정기주(재경 회장)

49회 동기회 = 송년회



지난해 12월 13일(금) 장림동 소재 별난돼지(고용배 동기 운영)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2차는 쓰리몽키즈보수점(홍민호 동기 운영)에서 하였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석자: 고용배 김종배 김현중 배승한 백상훈 신종국 예병삼 이승일 이충현 장형철 전성광 최유탄 최진영 홍민호

50회 동기회 = 정기총회 및 송년회



지난해 11월 30일(토) 15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서면 흥유단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하였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식전 한잔을 시작으로 식순에 따라 김정현 동기회장이 정기총회 개최 선언을 하고, 이어 김동현 사무국장이 2019년 동기회 활동내용과 회계 재무 발표를 하였다.

◇참석자: 구경모 구민수 김동현 김석훈 김재호 김정현 박복열 백광선 백송현 서석진 이상구 이상준 이종환 이주현 황현후

50회 동기회 = 용마당구대회 출전



<33면에 계속>





동기회 및 직능단체

〈32면에 이어서〉

지난해 11월 30일(토) 뉴다빈치당구장에서 개최한 제7회 용마당구대회에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에도 출전했다. 그런데 막내다~; 이른 아침부터 나온 선수들과 응원해준 친구들 모두 고생했다. 내년에는 준비 많이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회 개최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인사 드린다.

◇참석자 : 백광선 백송현 최종빈 황현후(선수조) 김동현 김정현 김재호 이주현 이종환(응원조)

51회 야구단 = 덕형리그 결승전



지난해 12월 21일(토) 덕형리그 결승전에서 52회 야구단에게 석패하여 준결승에 만족하였지만 2019년 큰 성과를 이룬 한해였다. "51회 친구들아! 2020년 선수수급 문제가 발생하였다. 야구 하고픈 친구들은 언제든 연락 다오!"(손현직 감독 : 010-4761-2227 / 김동연 총무 : 010-3551-0727)

◇참석자 : 감동익 구민석(단장) 김동연 김동주 김영권 김재규 손익선 손현직(감독) 송상민 신우승 안승훈 우영진 이건영 이정우(코치) 정유석

52회 동기회 = 송년회



지난해 12월 21일(토) 덕형리그 결승전을 마친 후 우승기를 앞세우고 꽃마술로 이동, 동기회 송년회를 진행하였다. 약 40여명의 동기 및 가족들이 3연패의 기쁨을 나누었다. 2019년 동기회 사업을 돌아보며 내년 사업에 관해 개략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여흥도 즐겼다. 내년 1/4분기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새 집행부를 선임하기로 했다. 고교 졸업 후 22년 가까이 큰 짐을 어깨에 메고 희생해 준 김지운 회장이 고맙기 그지없다.

행사 경품으로 51회 정유석 선배가 탈모로 고생하는 후배들을 위해 고릴라 샴푸의 다수를 찬조, 김지운 동기회장이 MVP 부상인 쿠쿠 밥솥을 비롯해 다수의 물품을 후원하였다. 그 외 멀리 홍콩에서 성원섭 동기 20만원, 박상현 동기 30만원, 정현철 동기 20만원 후원. 2차 뒤풀이 경비는 박정규 동기가 찬조했다.

54회 동기회 = 신년회

지난 1월 17일(금) 17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2020년 신년회를 하였다. 1차는 사상 야끼짬(조종완 동기 운영)에서 참석인원 각출로, 2차는 사상 노래주점에서 조종완 동기회장 전액찬조로 진행되었다.

◇참석자 : 강성윤 김상훈 김성규 김영빈 김진욱 남승태 양현진 이동하 이재필 이태경 임길환 전명진



정준섭 정채민 제재철 조상우 조종완

기독교동문회 = 동문 만남의 밤



경남중고기독교동문회(회장 이요섭 · 27회)는 지난해 11월 7일 서면 이비스 엠베서더호텔에서 '이재철 목사(21회 · 전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초청, 동문 만남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 박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란 주제 강연을 했다. 이날 행사는 동문 100여명과 내빈 5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옥동훈 사무총장, 신승렬 사무국장, 윤원욱 영상편집위원 등이 참석했다. 총동창회는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했다. 동문회문의 김대현 총무(010-9890-3235).

경미회 사회공헌분과 = 무료급식 봉사



지난 1월 21일(목) 오전 9시30분에서 낮 12시까지 초읍 어린이대공원 무료급식봉사센터에서 무료급식봉사에 참가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 사회공헌분과위원회(사공과)는 국제라이온스협회와 제휴, 사랑의 무료급식 합동봉사를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진행하고 있다. 사공과는 A조, B조로 나눠 봉사 활동(조와 상관없이 참석 가능) 중이며, 매달 무료급식 재료비 3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날 최영준(41회) 사공과 위원장이 무료봉사 회원 간식거리로 피자 10판을 쏘았다.

◇참석자 : 최영준(41회) 김대영 김영휘(43회) 구자삼(45회) 김민철(52회)

경불회 = 정기가족법회



지난 1월 18일(토) 부산시청 법계정사에서 경불회(회장 정영천 · 21회) 새해 첫 정기가족법회를 가졌다. 13회 장영길 동문과 28회 법천 스님 포함, 16명 참석. 이날 현재 부산불교 연구원장으로 여러 신행단체의 법사로 활동 중인 고순호 법사를 초빙, '자기변혁 - 대승경전의 시작'이란 주제의 법문을 청해들었다. 법문 후 팔지성도경 합승과 사홍서원으로 법회를 마치고, 부근 자연밥상 큰상뷔페에서 저녁공양을 함께하며 새해 첫 행사를 여법하게 끝냈다.

대구지역동창회 = 송년음악회



지난해 12월 20일(금) 오후 6시 30분 경남중고 대구지역동창회(회장 김종호 · 31회 · 김종호한의원 원장)에서 주관한 송년음악회가 아트 1989홀에서 다양한 출연진이 참가한 가운데 다채로운 순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 31명의 동문 가족들이 참석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있는 시간을 함께하였다.

◇참석자 : 김종한 송석진 조규증(15회)내외 강양수 채경일 하호길(16회)내외 이용규(19회)내외 허규관(20회)내외 정수민(23회)내외 양준영(26회) 남병우(28회) 남상경(29회) 이상구(30회) 김상용 김중권(31회)내외 김종호내외 서정호(31회) 김철홍(33회)내외 오흥국(35회)내외 박근태(39회) 이시원(51회)내외

생우회 = 신년회



지난 1월 11일(토) 2020년 새해 부산 생우회 1월 정기모임 및 신년회를 중앙동 다물촌(양광장전문)에서 가졌다. 이날 고영호(31회) 동문이 그동안 아껴두었던 집에서 담근 5년산 더덕주와 김세정(35회) 동문이 가져온 중국술로 모임의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았다. 한편 송년회는 지난해 11월 9일(토) 중앙동 소재 다물촌에서 11월 정기모임을 겸해 열렸다. 재경생우회도 지난 1월 17일(금) 서울 사당동 약초마을서 1월 모임을 가졌다. 김광우(29회) 오전균(30회) 이주형(32회) 김지윤(34회) 김광우(44회) 동문 참석.

◇참석자(부산) : 이민우(28회) 고영호(31회) 이진호(32회) 박태종 김태훈(33회) 김세정(35회) 박용한(39회) 서정민 옥진형 황성현(40회) 김동원(41회)

〈34면에 계속〉





동기회 및 직능단체

<33면에 이어서>

용건회 = 송년회



경남중고 출신 건설인들의 모임인 용건회(회장 이영학·26회)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범일동 포항회집에서 2019년 마지막 정기모임 및 송년회를 가졌다. 회원 27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참가자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고, 동창회관 건립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찬호(15회) 원로동문이 “내일을 함께하자”는 격려사를 했다. 류종우(18회) 동문이 ‘10분 스피치’ 시간에 “건설인은 경기가 어렵고 다사다난 하여도 멋지게 살자”면서 경험을 소개했다.

내년 2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임원진 구성을 변경(회장 1, 부회장 2, 사무국장 1, 사무부국장 1명)했다.

박찬호 동문 50만원, 류종우 동문 30만원, 이규봉 동문 20만원 찬조, 이병훈(32회) 동문 고금불펜 선물.

현대자동차동문회 = 신년회 및 정기모임



지난 1월 22일(수) 외식명가 삼산정에서 10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신년회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이효성(35회) 정성훈(38회) 진조석(39회) 정찬홍(43회) 양민우(51회) 김상조 유동욱(52회) 최석기(53회) 정민철(57회) 정류환(61회)

한편 지난해 12월 4일(수) 16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명촌 양지옥과 트레비아에서 12월 정기모임 및 32회 차경남 동문 정년퇴임식을 하였다. 차 동문에게 정년퇴임패와 상품권 및 꽃다발 증정을 하였다. 차경남 동문이 15만원, 윤병욱(34회) 동문이 10만원, 김현범(34회) 동문이 5만원, 유종아(40회) 동문이 5만원 찬조.

◇참석자 : 정인영 차경남 김상갑 김현범 윤병욱(34회) 이효성(35회) 정성훈(38회) 진조석(39회) 유종아(40회) 정찬홍(43회) 정상희(46회) 김상조 김정민(52회) 이기주(53회) 정재석 조지훈(59회)

현대중공업동문회 = 정기총회 겸 송년회

현대중공업동문회 2019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가 지난해 12월 6일(금) 울산 삼산동 수라간 한정식에서 열렸다. 회원 18명 중 17명과 동문가족 14명, 내빈 등 모두 31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미국선급협회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소장인 박부곤(39회) 동문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1부 정기총회에서는 최종수(39회)

경영에서도 빛난 ‘용마인 저력’

구본준(24회) (주)LG 고문, 최고경영자대상 수상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기술혁신부문 최고경영자상
이정기(28회) 동문 대표인 한국선급, 경영품질부문 대상

사회적책임경영품질컨벤션 시상

용마인의 저력이 또다시 사회적으로 입증됐다. 경남중고 동문 경영인 2명과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19(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주최, 지난해 11월 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 개최)에서 의미 있는 큰 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상은 사회적 책임경영과 경영 품질 혁신에 앞장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것이다.

(주)LG 고문인 구본준(24회·사진 오른쪽) 동문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으로 최고경영자대상을,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회장상으로 제이텍 대표인 박종찬(25회·사진 왼쪽) 총동창회장이 기술혁신부문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또 이정기(28회) 동문이 대표로 있는 한국선급이 경영품질부문 대상을 받았다.

동창회 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 총동창회장은 “오랜 시간 크루즈선 인테리어를 위해 투자하면서 계속 R&D 하는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날 시상식 자리서 만난 구본준 선배와의 만남이 ‘귀한 인연’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박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관 구입과 동창회보 발간 등 사업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남중·경북고 출신인 구본준 동문은 “동창회의 경남중 홀대에 실망감이 크다. 개인적으로 경남중고 동창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는 지속적으로 경남중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펼친 경남중 지원 사례 등을 전하며 총동창회에 대해서는 오해를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이텍은 ‘방화댐퍼와 소화장치가 결합된 주방환기시스템’을 개발, 미국안전규격인증(UL) 테스트를 완료했다.



현 회장이 참석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유임, 1년간 더 회장직을 맡게 됐다. 이 자리서 울산지역동창회 박철중(36회) 사무국장이 동창회 격려금을, 현대중공업에서 퇴사한 최정학(36회·선보공업 이사) 동문이 금일봉을 각각 전달했다.

강석빈(46회)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송년모임에서는 백희석(37회) 동문의 찬조금(30만원)과 동문회 재원으로 준비한 선물들을 모든 동문 가족에게 전달하는 자리도 가졌다. 백 동문은 2년 전 현대중공업을 퇴직한 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자회사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상무로 재직 중이다.

부산시 용마회 = 송년의 밤 행사

2019년 부산시 용마회(회장 안종일·35회·부산시의회 사무처장)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시청 맞은편 ‘힘찬민물장어’에서 열렸다. 이날 김주찬(39회) 동문의 오키리나 동우회의 멋진 공연과, 선물추첨 아이디어(이상형·49회) 등 다양한 준비로 즐겁고 풍성한 송년모임이 됐다. 이날 조길우(16회·전 부



산시의회 의장) 동문과 옥동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사무국원이 참석했다. 부산시 용마회는 부산시청, 사업소, 구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동문 모임으로 현재 149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바로 잡습니다>

동창회보 제426호 기사 중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6면 본문 17번째 줄 ‘50주년’은 ‘20주년’의 오식입니다. △12면 북부산지구동창회 참석자 중 ‘김경근(38회)’은 ‘김경곤(39회)’의 오식입니다. △16면 용마산악회 기사 중 ‘횡산벌’은 ‘화엄벌’의 오식입니다. △18면 ‘기인 동문’ 기사 중 ‘충북대’는 ‘충남대’의 오식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해량을 바랍니다.



“선배로서 조그마한 축복의 손이 되려...”

서해량(9회) 동문, 연 1천여만원씩 6년째 장학금 기탁



경남고 모교 후배들을 위해 매년 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6년째 기탁해온 동문이 있다. 지난해 12월 말 중무식에서도 경

남고 1,2학년 50명이 선배의 사랑이 담긴 ‘희망 장학금’을 받았다. 미담의 주인공은 서해량(9회·사진) 동문이다. 서 동문은 지난 2014년 ‘서해량 희망 장학회’를 설립하고 경남고의 추천을 받아 1,2학년생 50여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지금까지 기탁한 장학금 총액은 6천140만원이며 모두 307명의 학생이 수혜받았다.

서 동문은 자신의 장학사업에 대해서 “내일이라는 값있는 미래를 창조하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사기

진작과 향학열 고취를 위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 동문은 “평소 후배들이 방황할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조그마한 축복의 손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 동문은 경구회(재경 9회 동기회) 회장을 12년째 맡아 봉사해오고 있다. 9회 동기회 졸업 50주년과 6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도 주관했다. 또한 4천세대가 넘는 서울 반포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직을 6년째 맡고 있다. 그의 봉사정신은 또 하나의 ‘용마의 표상(表象)’이다.

서 동문은 경남 밀양 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용산세무서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현재 ‘서해량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홍규(24회), 부산한일친선협회 신년회



박홍규(24회·사) 부산한일친선협회 회장) 동문은 지난 1월 14일 오후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사)부산한일친선협회 신년회를 주최

하고, 일본 삿포로시 일한친선협회와의 교류협약에 서명했다.

김기표(26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발탁



김기표(26회·전 법제처 차장) 동문이 지난 1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명되었다. 부산 출신인 김 동문

은 부산대 법대 졸업 후 영국 런던대서 법학 석사학위, 경희대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19회 출신의 김 동문은 농림부 농업경제국 사무관으로 공직사회에 첫 발을 디딘 정통 관료다. 이후 법제처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실 사무관, 법제관, 법제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제9대 원장을 맡았고 현재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용원(28회), 출판기념회 가져



김용원(28회·변호사) 동문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책명은 ‘진실과 거짓 2030 전

쟁’이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의 저자인 김 동문은 이번 책에서 아름답고 진솔한 무료변론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장화(29회),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이사장



전장화(29회·한겨레치과 원장) 동문이 지난해 12월 6일 재단법인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부산형사회연대기

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부산형 중소기업 발굴과 육성 등의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에 오거돈(21회)부산시장도 참석, 축사를 했다.

박창주(34회), 외교부장관 표창 수상



박창주(34회·상하이백의천사단(白衣天使團)단장) 동문이 최근 민간 차원의 한·중간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외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동문은 ‘백의천사단’을 주도하면서 기부 릴레이, 바자회 개최 등을 통해 중국 장애인 돕기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윤경만(38회), 중소벤처기업장관 표창



윤경만(38회·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장) 동문이 최근 중소벤처기업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업 발전과 간

고(故) 손석보(21회) 동문 칼럼집 출간

‘시대와 삶을 읽다-폴 손 칼럼’ 시대의 정곡 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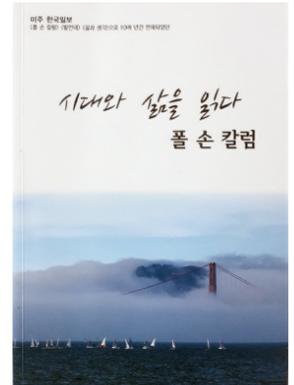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조국의 미래를 가름할 것이다.’

지난해 말 출간된 고(故)손석보(21회·사진) 동문의 칼럼집 ‘시대와 삶을 읽다-폴 손 칼럼’(도서출판 구암 퍼냄)의 첫 장에 나오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란 제목의 칼럼에 나오는 말이다. 2009년 7월의 글이다. 시대의 정곡을 찌르는 말로서 오늘 이 순간에도 간절한 울림이다.

손 동문은 미국에서 40여년을 살아오다 2018년 8월 급환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손 동문의 미국명은 ‘폴 손’이다. 원자력 발전의 전문엔지니어였던 손 동문은 미주 한국일보에 ‘폴 손 칼럼’ ‘발언대’ ‘삶과 생각’이란 타이틀로 지난 10여년 동안 글을 썼다. 이번 칼럼집은 이 글들을 주제별로 엮어 발간한 것이다.

칼럼집은 고인의 부인 손(김명화)여사의 노고로 완성됐다. ‘조국을 세우는 사람들’ ‘평화의 대비는 평화로울 때...’ ‘자유만큼 소중한 가치’ ‘영어보다 문화...’ 등 9가지의 주제별로 140개의 칼럼



이 실렸다. 사진작가이기도 한 손 동문의 사진 작품 34점도 함께 수록했다.

손 동문의 칼럼은 한인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시원한 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의 글 곳곳에 이민자로서 바라본 조국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다. “부조리한 한국의 정치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희생되는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념의 글”이라고 부인 손 여사는 그의 글을 회고했다.

생전 올곧고 정의로웠던 손 동문은 모교와 동문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 부인 손 여사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총동창회관 구입 모금에 2만7천 달러(한화 3,064만원)를 기부했다(동창회보 제 420호에 게재).

편 결제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했다. 성격이 원만하고 겸손하는 등 신망이 두터운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

여근섭(41회), 6번째 개인전 열어



여근섭(41회·화가) 동문이 지난 1월 6~31일 영주동산복도로 소재 ‘달리미술관’ 초대로 여섯번째 개인전을 개최했다. 최근작과 지난 작품 등 40여점 출품. 여 동문은 전업작가로서 창작 활동에 매진해 오고 있다.

유수호(41회), 울산세무서장 부임



유수호(41회) 동문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울산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강대를 나온 유 동문은 울산세무서 부가세과장,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박종현(50회), 국무총리 표창 수상

박종현(50회·쥬로탈 대표) 동문이 지

박종기(28회)·이용희(34회) 동문 새 편집위원 위촉

총동창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초 총동창회 밴드를 통해 편집위원을 공개 모집했다. 박종기(28회·사진 오른쪽)이용희(34회·사진 왼쪽) 두 동문이 참가 신청을 해왔다. 위촉된 두 편집위원은 취재와 기사 작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경성대 앞 찻집에서 김종명(29회)편집주간과 회의하는 모습.



난해 12월 1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19 벤처창업진흥 유공자 포상 및 벤처천역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로

봇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와 물류 로봇을 개발 납품하고 있는 박 동문은 특허 20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전도양양한 중소기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요즘 어떻게

‘거목’ 박종구(5회) 동문 타계

‘통 큰’ 기부, 동창회 발전에 공



경남중고 동문 사회의 ‘거목’이었던 박종구(5회·사진) 재경동창회 고문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광장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임종했다. 향년 88세.

박 고문은 재경동창회 제4대 회장을 맡는 등 동창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특히 재경 측 발전기금 모금에 의명으로 10억원을 냈고, 총동창회를 향해서는 용마장학회에 3억원을 기부하는 등 동문회를 위한 일에는 곧잘 거금을 쾌척해왔다. 사회적으로도 50억원을 출연해 삼구복지재단을 설립해 사회복지사업을 펼쳤고, 2000년도에는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에 120억원이라는 ‘통 큰’ 기부를 하기도 했다.

경남 밀양 초동면 유지의 차남으로 태어난 박 고문은 당시 6년제 경남중에 입학했다 1950년 6·25사변을 맞았다. 자원입대해 전장을 치르고 전역 후 고려대 정경대 정치학과를 나와 1956년 사회에 진출, 사업을 시작했다. 갖은 고생을 겪고 1975년 무역회사 삼구통상(주)을 설립해 성공을 거두었다. 6차례나 수출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1995년도에는 삼구쇼핑을 설립, 홈쇼핑계의 선두를 달렸다. 그뒤 삼구쇼핑을 CJ에 매각한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나섰다.

박 고문은 일로써는 끈질긴 집념과 추진력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했으며, 성격적으로는 과묵하고 겸손하면서 따뜻한 분이였다. 많은 선행을 하고서도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김경희(9회) 재경동창회 고문은 “박 선배님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기분을 지키는 분”이라면서 “후배들에게 ‘구경꾼 근성을 버려라. 높은 산은 돌아서가라’라는 충고와 용기를 주셨다”고 회고했다.

모교 야구부 초대 감독 장종기翁 별세



1945년 해방 이후 모교(당시 경남중) 야구부 창단의 주역으로 초대감독을 역임했던 한국 야구계 원로인 장종기翁이 지난 1월 4일 오후 숙환으로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99세.

동래고보와 일본 와세다대 재학 시절 투수로 활약했던 고인은 모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 야구부를 창단했으며, 실업야구팀 창단에도 큰 공을 세웠다. 고인은 1940년 부산향일학생의거(일명 노다이사건)의 주역이기도 하다.

고인은 모교 야구부 감독 시절 고(故) 장태영 선수를 거성(巨星)으로 키워내는 등 모교 야구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발전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9회>

△김경희 = 재경동창회 고문, 12월 10일 보라매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아직은 목욕 못하고 약주는 더욱 어렵다고. △김성호 = 전 수협은행 감사. 허리 다쳐 고생 중. 얼마 전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 외로운 갈매기가 되었다. △박성조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종신 정교수. 지난해 6월 6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강의하고 귀국 후 담석증 수술. 9월엔 몽골 국립대학 초청으로 2주간 특강을 하고 베를린으로 귀임하여 갑상선과 담석증에 관한 최종 검증 결과를 12월 내에 내렸다는 소식. 몸 관리 단디 하이소! △심재훈 = 미국 내과의사로 16년간, 이웃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 타이티 등의료봉사를 끝내고 지금은 플로리다의 자택에서 찾아오는 환자 주3일을 진료하고 있다고. 부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고생. DR, JAE H, SHIM, MD. / 13747 Via Aurora / Eelray Beach, Florida 33484 / USA. / (352)396-5151

△조규대 = 2019년 12월 10일 15시 40분 숙환으로 타계. 1936년 12월 18일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조 동문은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 마산방직 이사를 거쳐 경인상사를 창립하였다. 그 후 사명을 티티경인으로 바꾸고 중국에도 진출. 9회 재경동기회 회장, 재경동창회 부회장으로도 봉직한 알뜰한 용마였다. 12월 12일 먼저가신 윤광자 여사가 누워있는 모란공원에 안장되었다. 그의 유족으로 장남 상현, 차남 우현, 딸 선영 2남 1녀이다. △조용길 = 전 독일 Cho Trans사 대표. 남해 독일마을로 영구 귀국하여 생활하다 건강이 좋지 않아 삼천포병원에서 진료, 호전되어 다시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84-4로 귀임. 동무들의 안부를. △최성욱 = 전 경구회(9회 동기회) 국장. 9회 동기회가 해산한 이후 그동안 소홀했던 집안 일을 알뜰히 챙기고 있다고. 부산시 북

구 덕천로 194, 8동 204호(만덕동 럭키 1차아파트). 010-9281-3723 연락 바랍니다. △최성학 = 전 신한은행 오사카 지점장. 최근 무릎 부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소식. △황호승 = 예비역 소장. 코마상태로 국립보훈병원에 입원중입니다.

<19회>

△김진호 = 모친상. 10월 23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창조 = 빙모상. 11월 2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심재구 = 아들 하늘군이 2월 8일(토) 14시 아펠가모 공덕에서 결혼식. △이양환 = 2020년 1월 4일자로 2021년 진주 지수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준비위원 위촉.

<20회>

△윤봉태 = 빙모상. 1월 17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장병두 = 차녀 지수 양이 11월 30일(토) 14시 브라이드밸리에서 결혼식.

<24회>

△김규철 = 장녀 정신양이 12월 7일(토) 14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부산에서 결혼식. △김정안 = 부친상. 12월 8일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문섭제 = 모친상. 1월 9일 인창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재성 = 빙모상. 12월 6일 창원 파티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장동현 = 부친상. 1월 6일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태윤 = 모친상. 12월 13일 서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5회>

△서병수 = 부친상. 1월 15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6회>

△김영명 = 아들 수한 군이 2월 8일(토) 12시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결혼식. △김우성 = 모친상. 1월 22일 서울 청구성심병원 장례식장

에서 발인. △박효대 = 빙부상. 12월 21일 대구 드림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성백운 = 장녀 지은양이 11월 16일(토) 13시 부산가정성당에서 결혼식. △신대철 = 장남 재욱군이 11월 24일(일) 14시 30분 더채플앳청담에서 결혼식. △오승학 = 빙부상. 12월 19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경호 = 모친상. 1월 21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삼용 = 아들 정운군이 12월 21일(토) 18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결혼식. △정철주(김정곤) = 모친상(빙모상). 12월 24일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홍형택 = 부친상. 12월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7회>

△김우진 = 빙모상. 1월 11일 분당 서울대병원 영안실에서 발인. △김홍채 = 아들 찬우 군이 2월 3일(월) 12시 일본 고베시 TVB-Kobe에서 결혼식. △김황열 = 빙부상. 12월 5일 부산대학병원 영안실에서 발인. △박갑성 = 모친상. 11월 27일 수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문수 = 부친상. 1월 1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유봉 = 부친상. 12월 5일 체천 제일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원익 = 장남 어진 군이 12월 16일(월) 하와이 리츠 칼튼에서 결혼식. △이종경 = 모친상. 12월 16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제룡 = 빙모상. 12월 1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인. △이흥걸 = 비치울트라 마라톤 기록 14시간 45분 완주.

<28회>

△권혁우 = 아들 세훈 군이 2월 1일(토) 14시 노블발렌티 대치점에서 결혼식. △김광태 = 빙부상. 1월 27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성권 = 아들이 12월 14일(토) 13시 센텀사이언스파크 웨딩홀에서 결혼식. △박종기 = 모친상. 1월 11일 해운대 성가정성당에서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종구(5회) = 11월 23일 작고
- ▶박선호(7회) = 12월 5일 작고
- ▶조규대(9회) = 12월 10일 작고
- ▶강호정(13회) = 2월 6일 작고
- ▶김문웅(13회) = 1월 15일 작고
- ▶심관섭(13회) = 12월 30일 작고
- ▶최관철(18회) = 1월 17일 작고
- ▶김길춘(19회) = 1월 28일 작고
- ▶김광석(23회) = 1월 13일 작고
- ▶차문공(24회) = 12월 24일 작고
- ▶김흥식(26회) = 12월 10일 작고
- ▶김찬규(30회) = 1월 24일 작고
- ▶이일우(30회) = 1월 8일 작고

발인. △양종명 = 모친상. 11월 20일 부산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이만수 = 빙모상. 10월 29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영희 = 부친상. 11월 29일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철행 = 아들이 12월 15일(일) 12시 서울 CJ인재원에서 결혼식.

<29회>

△김도태 = 장남 효승 군이 11월 30일(토) 11시 남산제이그랜드하우스에서 결혼식. △김대우 = 장녀 미현 양이 2월 15일(토) 17시 여의도웨딩컨벤션에서 결혼식. △박성호 = 장남 상수 군이 11월 23일(토) 14시 30분 노보텔 엠베서더호텔에서 결혼식. △박창언 = 장남 상민 군이 12월 21일(토) 13시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결혼식. △서영학 = 장녀 민지 양이 11월 23일(토) 15시 센텀 사이언스파크웨딩홀에서 결혼식. △정성표 = 장남 현우 군이 1월 18일(토) 13시 20분 웨스턴 베니비스에서 결혼식. △최기훈 = 장녀 송화 양이 12월 21일(토) 15시 30분 센텀 프리미어호텔에서 결혼식.

<30회>

△강해운 = 빙모상. 1월 5일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권택술 = 모친상. 12월 27일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기섭 = 차남 경목

2019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3,412명 2019. 12. 31.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53-6722-04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박종찬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3회(7명)

문병집 송두호 신현익 윤태운 이안규 정원준 하덕모

4회(9명)

김경식 김희수 박홍기 송호길 양종학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황갑성

5회(12명)

김석호 김인택 김재관 김진후 박장후 박종구 상기중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홍관식

6회(20명)

김상엽 김중철 김태환 박기복 박웅진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유상환이강운 이해훈 이희문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최석원

7회(27명)

강병희 고석수 김갑성 김명관 김삼현 김용우 김중순 김진홍 김태배 김호용 노상석 박영섭 박환배 배중현 송외득 양종완 오장은 윤용우 이동우 이창범 이태림 이효명 임성규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허중호

8회(34명)

강성태 김동훈 김봉길 김상식 김영길 김영철 김영환 김재범 김진석 문창화 박우상 박재범 박희옥 배기현 배주원 백낙오 안종열 엄덕양 이상목 이윤조 이정운 이종택 이준혁 이창규 이준기 이현문 이희순 장혁표 전영배 정금출 최경태 최재혁 홍광수 홍기성

9회(23명)

김경희 김기관 김영국 김 청 김태영 박영복

박화철 서해량 신용익 안규현 유금열 유병철 윤일명 이영구 이주한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정해돈 조이호 지삼봉 최성욱 한동대

10회(42명)

강희운 고용재 김기호 김민희 김상규 김상태 김선동 김성규 김용규 김정학 김창덕 박경수 박철민 신규태 심영환 오강욱 윤부환 윤재모 이계창 이근태 이봉원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윤수 이의도 이재순 이정호 이현수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무길 정종만 조길수 조상진 조종제 진 강 최병도 최성열 최해만 하영수

11회(75명)

강병희 강용대 고한준 공상기 광정출 광태엽 권병용 김광석 김기주 김병기 김상진 김성규 김수정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원형 김운택

김인섭 김재곤 김재환 김창하 김태호 김태홍 김학수 김항곤 박관호 박성우 박수경 박종술 박창순 박태오 박희태 서영호 서자윤 성기득 손봉길 신유기 심재홍 심재홍 안강태 양수택 양향두 오길훈 오정광 유홍중 유홍수 윤재관 이강우 이계찬 이균우 이 명 이상태 이성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종주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병수 정운표 제정오 조양현 지창호 천금준 천동호 최동영 최득호 최성욱 최창욱 최태원 하영득 하중선

12회(84명)

강본순 강창수 구진용 구창희 권시길 권언호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명희 김봉성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렬 김석곤 김선일 김수원 김영수 김용호 김우성 김익도 김장욱 김중련 김종일 김지희 김현주 김훈호 남기용 문준화

대전환기 2020년, 변화를 기대하며...

2020년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대전환기를 맞았다. 동창회관 보유라는 역사적 과업을 실현, 이를 바탕으로 도약의 길로 매진할 기회를 잡았다. 이를 위해서는 동문의 결속과 대동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도 많이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지적한다. 결코 특정 집단이나 단체, 기수에 대한 비난과 힐책이 아니며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이다.

첫째, 재경동창회의 경남중 지원하기.

재경 경남중고발전위원회와 용마장학회는 70여

억원의 모교발전기금과 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모금은 분명 '경남중고'의 발전을 위해서 거둔 것이다. 그런데 재경에서는 경남고만 지원할 뿐 경남중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 원래의 모금 취지대로 경남중에도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

둘째, 48회 동기회, 동문회 정식 재활동.

48회 기수는 개인별로 몇몇이 동문회와 연결되어 있을 뿐, 동기회 전체적으로는 '사고기수'로 분류되어 있다. 각종 동문회 집행부에 가입한 동문이 없고 총동창회에 연회비도 내지 않고 있다. 총동창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불편했던 감정은 버리고 대범

하게 단합과 화합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셋째, 22회 동기회 야구후원금 부담하기.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22회 동기회는 장기간 계속해서 야구후원금 납부를 거부하는 유일한 기수이다. '22회 동기회'라는 타이틀을 사용한다면 동문사회의 '물'을 지켜야 한다. '동문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전체 기수의 동창회관 기금 모금 참여하기.

동창회관 기금 모금에 누락된 기수가 8, 10, 11, 12, 20회이다. 이들 기수 중 단 한명이라도 모금에 참여하기 바란다. 동창회관 개관 시 기부자 명단게시판에 빠진 기수가 드러나게 된다. 동문 전체의 '자랑'에 작은 얼룩으로 남게 된다. '10만원의 결심'으로 용마의 자존심이 더 커지길 기대한다.

군이 1월 19일(일) 11시 헤리움웨딩에서 결혼식. **△김성은** = 장녀 민아 양이 2월 8일(토) 14시 센텀프리미어호텔에서 결혼식. **△김우현** = 빙모상. 11월 30일 부산침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정국** = 1월 16일 재경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에서 자랑스런용마상 수상. **△서민석** = 장남 원진 군이 대를 이어 세무사시험에 최종 합격. **△서하수** = 부친상. 1월 15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경우** = 장녀 영화 양이 1월 19일(일) 12시 디도 서초점에서 결혼식. **△이덕원** = 모친상. 1월 7일 동아대학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동대** = 모친상. 1월 16일 동아대학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성호** = 장녀 여진 양이 12월 15일(일) 12시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결혼식. **△하진근** = 부친상. 12월 13일 부산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황규태** = 빙부상. 12월 21일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황상순** = 장남 진성 군이 1월 9일(목) 14시 미국

캘리포니아 UC버클리 Newman성당에서 결혼식.

<31회>

△김부영 = 모친상. 11월 9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병기** = 차남 호동 군이 11월 23일(토) 14시 30분 서울 호텔PJ 뮤즈홀에서 결혼식. **△김정택** = 차남 윤재 군이 1월 10일(금) 10시 30분 천주교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김형수** = 딸 전현 양이 12월 21일(토) 13시 해운대 팔레드시즈 노블레스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김현울** = 빙모상. 11월 26일 동래 대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석두** = 빙모상. 12월 13일 광안동 서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영석** = 빙모상. 11월 20일 초량 인창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소순호** = 아들 준의 군이 11월 23일(토) 16시 서울 메이필드호텔 카라홀에서 결혼식. **△임길호** = 아들 재민 군이 12월 7일(토) 17시 30분 서울 파티오나인 나인하우스에서 결혼식. **△정용식** =

장남 성호 군이 12월 27일(금) 10시 천주교 부산교구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지현철** = 모친상. 12월 12일 대구 한패밀리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홍정표** = 딸 흥경 양이 11월 17일(토) 12시 30분 웨라톤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34회>

△김두섭 = 빙부상. 1월 20일 사상 삼신장례식장에서 발인. **△노인선** = 모친상. 1월 9일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기태** = 딸이 2월 22일(토) 16시 센텀사이언스파크웨딩홀에서 결혼식. **△변성수** = 아들이 12월 14일(토) 11시 라온웨딩홀에서 결혼식. 모친상. 1월 6일 괴정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하태** = 모친상. 12월 19일 부산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37회>

△김영문 = 1월 11일(토) 14시 KTX울산역 옆 더M컨벤션에서 북콘서트 개최. 울산 울주군 삼남면 도호길 31 금

아드림스퀘어 9층.

<39회>

△김해성 = 모친상. 1월 13일 서울의료원 발인. **△이영수** = 환경정책연구원 부원장 영전. **△김원범** = LG전자 전무이사 승진. **△이승기** = 바우네 나주곰탕 부산부평동점 개업(학교로 부평시장 입구 흥일한의원 옆 건물)T. 254-3953 / 부산 중구 흑교로 16-1

<41회>

△여근섭 = 여근섭 초대전 1월 6일(월)~1월 31일(금) 개최. 달리 미술관(부산 중구 영주로 8, tel.051-467-2004)

<44회>

△이윤식 = 부산지방경찰청 경정 승진.

<51회>

△김영권 = 신장개업 「왕건이부대찌개」 1월 4일(토) 개업. 부산 명지국제 12로 19번길 20-9, tel.051-203-4752

선남부자 명단 (회보구독료)

- 8회 김동훈 2020년
- 11회 김광석 2021년, 서영호 이종백 조양현 2020년
- 12회 이상현 2020년
- 13회 김정균 윤기갑 이종영 2020년
- 14회 전병순 최성웅 2020년
- 15회 김판열 문옥륜 장중호 2020년, 임영길 2022년
- 16회 김광용 김박일 2020년
- 17회 김부근 김준위 정용화 2020년
- 18회 강덕용 강영호 최희영 2020년, 홍우재 2024년
- 19회 성낙환 성한진 2020년

- 20회 남기석 2020년
- 21회 조상호 2020년
- 22회 박언표 홍순옥 2020년
- 23회 박재호 2028년, 이부식 최영목 2020년
- 24회 김은호 박홍규 장현동 정윤상 한상렬 2020년
- 25회 김진우 문재인 서병수 송동준 한헌교 허만택 2021년, 문창진 박종찬 이길현 장대락 2020년, 임창운 2051년
- 26회 강수남 김태년 김태용 이순철 이정근 이희준 황광수 2020년, 강익규 박경수 2021년
- 27회 김수인 김중욱 이양현 이 현 장인철 조용수 한수길 2020년, 문성기 2021년
- 28회 안 풍 2022년, 임상규 2021년, 하재근 2028년

- 29회 김기수 최영식 황유명 2020년
- 30회 강석철 양문섭 이기환 최우철 2020년, 박정국 2022년, 박철우 2027년, 최진근 2021년
- 31회 이민재 최진섭 2020년
- 32회 송기수 임채균 최춘호 2021년
- 34회 김두섭 김상갑 진양호 2020년
- 36회 김병국 2021년, 김길호 양호진 윤경준 이한호 임창섭 2020년
- 37회 김기동 김중휘 정익수 2020년, 서동욱 2021년
- 38회 김경근 2020년, 주영록 2021년
- 39회 김윤홍 김천술 이성태 2020년
- 40회 최용석 2020년
- 41회 김형률 홍석우 2020년
- 42회 정용중 2020년

- 43회 김희경 2020년
- 44회 황재훈 2020년
- 46회 한영길 2022년
- 47회 성상용 정하윤 2020년
- 48회 김중호 2023년
- 49회 이종현 장형철 최진영 2020년, 장민건 2021년
- 50회 박종현 2028년
- 52회 최중연 2020년
- 53회 박성영 박우진 2020년
- 54회 엄도용 2023년
- 69회 정민기 2023년
- 경고학교운영위원회 등(1명)
- 명예회원 박희규(2020년)

박문기 박보국 박상도 박영운 박용운 박정운
 박종정 박창수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백응권 변동만 서병기 손재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엄태섭 오세정 오수봉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수영 이승태 이용언 이용희
 이원우 이준복 이현달 이환철 이희동 임상원
 임창완 장동석 장일근 정대식 정수복 정영철
 정호중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경균 최병훈
 최신일 추영재 탁해정 허은도 허정욱 홍두표

13회(98명)

고송구 고시준 구덕건 구문평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동호 김무조 김민철 김상치 김신부
 김영길 김영호 김일수 김장웅 김정균 김정일
 김정태 김중의 김치득 김한규 김형태 김홍수
 김홍철 남방울 문 창 박길만 박민보 박안남
 박영주 박원길 박일웅 박정웅 박종택 박진태
 박홍표 배대결 배정운 백길오 서시주 서영웅
 성정호 송문일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신하근 안성문 안준수 윤기갑 윤정의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경준 이근도 이명진 이범경
 이병한 이상문 이상택 이웅재 이종달 이종영
 이준범 이종광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랑 이학수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로상
 정문하 정은섭 정중현 제병민 조병성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부웅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최태환 추지석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대

14회(72명)

강동삼 권 명 김덕행 김동화 김무남 김무웅
 김성부 김익명 김재도 김준우 김창기 김태희
 김형수 김화옥 노수덕 류종일 문운용 박남조
 박병선 박순일 박종철 박철수 배종현 백대우
 성이경 손영목 송성달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오종철 유정호 윤영현 윤정남 윤대규
 이경우 이광언 이광우 이길미 이명재 이상동
 이수남 이승우 이재돈 이현영 이효근 이훈일
 장삼식 전병수 전상배 정선언 정용마 정현구
 조광명 조규향 조기정 조영봉 조정현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봉현 최성웅 최종락 하문수
 하찬봉 한규환 허 증 황수길 황원규 황원재

15회(79명)

강무송 강민조 강부남 강부부 강창일 권승부
 김경일 김길영 김상차 김소현 김승평 김쌍열
 김영훈 김옥규 김완식 김정길 김정환 김종태
 김중환 김준근 김중광 김중식 김판열 남기주
 남암순 문옥륜 박복만 박영길 박영길 박영무
 박찬호 박철알 박호파 배성훈 배 훈 백승진
 서병길 서영진 손부홍 신승기 신현희 안경숙
 오봉석 윤우경 윤휘정 이승남 이의일 이정부
 이종수 이종일 이종희 이철성 이태창 이필언
 임영길 장봉고 장중호 정석우 정영선 정행남
 조영일 조진환 주정중 최광웅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진모 최태덕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허경도 허광길 허중덕 홍익찬 황건세
 황중부

16회(83명)

강상권 강영주 강원경 강중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수 김광용 김박일 김상웅
 김상호 김운진 김인국 김일규 김정우 김정호
 김 조 김중덕 김중길 김형석 노원소 문성환
 민신웅 박기용 박두영 박소웅 박영수 박용일
 박정욱 박종덕 박중봉 박춘호 박 흥 박수근
 서정호 성기석 성진호 송순방 송용석 송규정
 송자문 안국정 엄종원 여성국 영광해 오광치
 옥무웅 옥윤석 유영명 윤세진 윤호주 이길홍
 이명수 이무근 이무영 이방소 이성남 이양근

이영재 이재룡 이종철 이재언 이철수 이철원
 임승언 장사충 전도봉 전무갑 정우광 정원철
 정태성 조길우 조원제 주기민 지수신 진병일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황규호

17회(69명)

김정은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부근 김상천
 김성락 김영환 김영환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준연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김효남
 남궁성은 노동섭 박기식 박신도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종구 박 찬 박청홍 박홍식 서정승
 손성근 송승구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 종
 신희규 심문섭 양상진 양성일 어윤대 오진식
 오충환 윤성욱 유수성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이재형 이종혁 임우택 장길성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동길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용화 정태일 조준연 차성철 천용광
 최성호 하영수 허진행

18회(96명)

강대원 강덕용 강만수 강성태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길제 김만근 김만수 김병호
 김사권 김성건 김영국 김영욱 김영일 김영철
 김옥길 김용기 김재창 김경래 김중금 김중문
 김중상 김중철 김지호 노정규 류중우 문창열
 문희욱 박건태 박대웅 박덕봉 박동우 박민학
 박성욱 박석도 박선동 박성철 박영복 박 용
 박용주 박용현 박종만 박종만 박준성 박헌태
 박호영 백승래 서부원 서재봉 설현기 손무열
 손찬구 송상일 안창범 양동건 양세수 오수명
 우원호 윤봉수 이근희 이영범 이영호 이재일
 이종남 이형석 임재영 장기영 전기준 전병희
 전영석 정대섭 조성재 주상섭 차명석 천두갑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하영일 한기철 허도행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허태열 홍우재 황광근

19회(100명)

강동완 강영범 강재욱 강준권 권정덕 김경우
 김경재 김근수 김덕규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 김순호 김영복 김영우 김영탁
 김영태 김윤기 김일천 김재근 김중우 김중우
 김근국 김진호 김철호 김 현 남진현 노덕현
 노은영 노대규 박갑진 박동화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박준우 배우삼 서승성 석무관 성낙출
 성환진 손기태 손말현 손철수 신동인 신윤철
 심영섭 심재구 안정모 오태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복춘 이상만 이상우
 이성달 이양환 이용조 이용홍 이인철 이장희
 이종영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현 이창희
 이준만 임창주 임재원 장성구 장주호 장충의
 전영석 정규범 정규영 정수남 정승수 정용식
 정원찬 정태을 조성환 조재윤 진수상 최병수
 최상원 최화익 탁준식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허홍우 황승표 황태경 황태원

20회(77명)

강기철 강부덕 강석근 강위수 강현진 김대업
 김두영 김성룡 김성환 김세준 김수신 김영철
 김우홍 김원갑 김일석 김조동 김중민 김진환
 김찬만 김대선 김태영 김한원 김형기 김형오
 남경열 남기석 목일진 문성태 문시영 민영기
 민형기 박대근 박용덕 박 준 박지오 박철완
 배준태 배완균 백창열 손춘수 송상윤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여정호 오경석 유근준 윤병규
 유우성 이세형 이수호 이실근 이영오 이종열
 이천규 임성준 임세호 장상배 장춘식 전일준
 정규식 정동석 정세현 정승창 정을호 조영철
 조운태 차용환 최명호 최상인 최석립 최장하
 최중경 최 철 허남근 허주한 홍순태

21회(101명)

강민우 강상태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본능 구현수
 권용호 김기현 김남규 김대웅 김동우 김부근
 김상덕 김승수 김순일 김영삼 김우건 김익수
 김소영 김현태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봉흙 박상주 박성렬 박인협 박일승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박찬영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상철 성정근 신태운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병부 오익희
 오태규 육화원 윤대희 윤승근 이명환 이문수
 이상기 이상집 이영철 이영훈 이익규 이재택
 이재화 이재홍 이종규 이준성 이 혁 임경범
 임성출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근 조호제
 조희부 진영천 차동민 최동완 최민석 최원중
 최은영 최침수 최정림 최종린 탁원령 하영준
 한대운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황윤성

22회(101명)

강상대 강호일 고인준 광대훈 구자룡 김광국
 김광무 김대욱 김도살 김동욱 김동원 김명수
 김명준 김성재 김성태 김세근 김승규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근 김정민 김종인
 김진철 김창해 김철현 김학균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류명윤 박규묘 박승묵 박인표 박재구
 박재상 박준호 박형천 박호병 박호조 배병한
 배춘식 박봉주 변대석 변중호 부창진 서경덕
 서향윤 손연도 손용석 송현준 신중수 심재복
 안영수 안진환 양한식 오세길 유재락 윤성복
 이경상 이민성 이병수 이상주 이상협 이상모
 이용규 이윤제 이춘식 이흥기 임강택 장광훈
 장무성 장상규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순태 조원호 조장봉
 조흥기 주성민 최광모 최성철 최영택 최학봉
 하성일 하현성 한경규 한근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홍순욱 황영환

23회(110명)

김인홍 강구현 강창보 고용석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동욱 김상영 김상태 김상현
 김석현 김성호 김영기 김형철 김영훈 김용기
 김익근 김태복 김중배 김중훈 김주찬 김중광
 김태웅 김태정 김태홍 도명세 문명우 문창호
 박기흥 박대동 박영호 박인권 박재호 배세훈
 배중순 배준석 백승찬 백창영 서승환 서한현
 손근식 송영춘 송재섭 송충승 신경재 신동규
 신언국 안경섭 안범두 안병을 양희택 오도준
 유동현 유석산 유원형 유진무 육병천 윤길원
 윤만우 윤병조 윤종찬 윤대규 이강우 이기호
 이대우 이덕남 이동성 이병찬 이부식 이상렬
 이상수 이수백 이승구 이승현 이승호 이영재
 이윤석 이인택 이일원 이정욱 이충호 장기원
 장대의 장동국 장백기 장병규 전상대 전영조
 전영찬 전원익 전재홍 정귀출 정기웅 정동일
 정상건 정순구 정영철 정용호 정용성 조효근
 채행윤 최 승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하중기
 한명경 허병상

24회(117명)

강동우 강창흠 광두희 광재용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도현 김동운 김병배 김무성 김성권
 김성득 김승탁 김영만 김명민 김영식 김영철
 김유신 김윤수 김은호 김인규 김인철 김정신
 김태홍 김학성 김한근 김해룡 김한태 김효근
 남창영 노상우 문준석 문휘영 박국제 박맹렬
 박성표 박윤성 박재선 박천호 박성석 박홍규
 배중갑 백성제 변용준 변정규 서정대 서정득
 성중기 손성호 손세영 손인수 손찬호 신병식
 신장우 안상수 안형수 안홍모 양순권 여철우

우흥하 원동희 윤석만 윤지현 이 수 이광호
 이동진 이명복 이상룡 이상우 이상찬 이상학
 이영태 이재능 이창무 임덕철 임민호 임철호
 장민재 장세호 장원서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윤 정동화 정명근 정수민 정영석 정용호
 정윤상 조영수 조영태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찬 주승환 주점권 주정규 진병근 차동렬
 차문공 차한영 최동우 최원주 최진우 최현규
 태창업 하 욱 하재갑 한상렬 한태운 허구연
 황규선 황성동 황성훈

25회(180명)

강석철 강수명 고명식 광동원 구도근 구자훈
 권태용 김건우 김경환 김광동 김길수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봉철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연석 김영명
 김영수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원욱 김우환 김은주 김익수 김장형
 김정학 김중국 김중만 김중택 김중현 김진우
 김창욱 김창호 김철수 김창수 김태선 김형근
 노태욱 노태호 문재인 문창진 박건수 박경립
 박광용 박덕배 박동근 박명우 박문갑 박병철
 박성길 박세철 박영하 박원규 박을영 박인동
 박종기 박종찬 박진상 박창준 박창훈 박홍기
 배기동 배대관 배동명 배중우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석창재 손국영
 손기천 송기현 송동준 송무룡 송세경 송영근
 송정규 송효상 신경학 신성기 신성찬 심영재
 안대상 안영석 안희석 양계현 양승욱 양시욱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우경욱 이상조 우진태
 유용기 윤순기 윤영순 윤종렬 윤태석 윤희승
 이계성 이근만 이길현 이대우 이도진 이동석
 이동익 이명철 이민희 이상봉 이상화 이석호
 이승욱 이승원 이신화 이우석 이인근 이찬형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준 이한식 이홍성
 이홍익 임무홍 임상택 임창대 임창은 장대락
 장선근 장세훈 장승업 전성태 정성호 정신배
 정윤철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광도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주재걸
 진익철 최봉하 최재환 최차환 최태동 최현림
 탁준길 태명산 하성룡 한석정 한준석 한희교
 허만택 허영형 허 택 황근태 황기철 황호선

26회(102명)

강수남 강영녕 강영원 강익규 고석훈 권해국
 김광식 김기성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상현
 김 석 김섭권 김영섭 김영을 김원정 김재용
 김정무 김정원 김중우 김주병 김재영 김태년
 김태용 김택영 김호웅 김희국 박경수 박경재
 박근석 박동주 박두익 박상호 박소욱 박오익
 박원상 박원세 박희영 박창현 박재우 박오기
 박효대 백문현 서치호 서한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신기용 신대철 신동춘
 심덕수 심승택 왕정일 왕효석 윤경일 윤수현
 윤승용 이경호 이규용 이명진 이상돈 이상원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상수 이재봉 이정근
 이주형 이창식 이현섭 이희준 임철호 장경재
 장만욱 장인걸 장희석 정영문 정이교 정종훈
 정태현 정한경 정현조 조만석 조일제 주규철
 최명해 최석락 최수일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하주근 허진호 홍순하 홍청근 홍형택 황광수

27회(96명)

강문중 강봉호 강경진 강태영 광태홍 김강호
 김경진 김광철 김근우 김동조 김명기 김민수
 김병욱 김병철 김병호 김성문 김수인
 김안석 김영삼 김용태 김우진 김원용 김경희
 김중도 김중욱 김중하 김준기 김지언 김진명
 김진희 김태우 김학희 김호균 김황열 류재걸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병주 박영빈 박정민

박찬석 박춘규 박치호 박효근 반정열 배병록
 배효택 백민호 변재국 서기룡 신한원 안종택
 양태중 오봉인 유성모 유영상 유영호 윤문태
 윤석건 윤일근 윤정환 윤종락 윤지한 이기우
 이민부 이성득 이양현 이요섭 이원호 이인규
 이종경 이종찬 이천식 이 현 장인철 장창조
 전 풍 정남근 정두식 정재호 조봉관 조용수
 조우영 조진남 천우태 최석진 최영호 최용수
 최용호 최인성 최휴진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28회(99명)

강현안 고창준 구영소 권기택 김관세 김대생
 김만중 김명철 김부윤 김상윤 김선경 김용석
 김용희 김익성 김인준 김준배 김준연 김창준
 김형진 김흥국 노상천 노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근 박병준 박석환 박성권 박세혁 박영규
 박윤철 박임철 박재훈 박종기 박진화 배효진
 백무현 백선용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석안식
 신중현 안병직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엄재홍 엄호성 오현석 오호석 옥상근 유봉수
 유승일 윤경섭 윤대주 윤명수 윤일희 이경포
 이관선 이만수 이민우 이승열 이승하 이양훈
 이용남 이원철 이윤규 이정기 이종대 이종만
 이종환 이철행 이현오 임상규 임익선 임재덕
 전광병 전남식 전선호 전진호 정두현 정백수
 정성목 정영주 정인식 정치영 정해영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삼 최연욱 하재근
 한명재 한봉석 허남식

29회(125명)

강대용 강성훈 강희철 곽태섭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광우 김기민 김기수 김기우 김기영
 김기원 김대영 김대호 김문수 김부겸 김영준
 김부근 김석윤 김세원 김 영 김영준 김영훈
 김용희 김용채 김인술 김재현 김정암 김종권
 김종명 김종진 김철오 김태명 김태완 김한수
 김호성 김광수 박국인 박근우 박기찬 박동일
 박동혁 박동훈 박영섭 박병준 박병태 박상길
 박성근 박성철 박인균 박창언 박호근 배현호
 백경돈 백성우 변종만 사공운 서석철 서영학
 설동일 손영보 손태권 손홍근 송경문 송희태
 신현수 신호범 신홍기 안정훈 양승룡 양승오
 오경호 오세용 윤석희 윤 욱 윤종경 이남중
 이민열 이범익 이상용 이석조 이승호 이영태
 이정윤 이종포 이준환 이진욱 이충원 임광열
 임무택 임상훈 임채병 장강태 장 만 장현경
 전영상 전장화 전정국 전현수 정 길 정대현
 조 란 정성호 전진환 চে영모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조한옥 주재휘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범수 최영식 최정만 최중수 최종열 최진범
 하현태 한만수 한휘철 현계성 황유명

30회(118명)

강석철 구을석 구형건 권영택 김경섭 김경수
 김관일 김규성 김기섭 김기수 김기영 김상직
 김성복 김순구 김승대 김영일 김용한 김우삼
 김육성 김유기 김인섭 김재일 김정태 김종진
 김진영 김철광 김치영 김해근 김현태 남영호
 노동춘 문장호 박규원 박병규 박성태 박수송
 박원호 박인달 박재백 박정국 박정태 박중배
 박철우 박희관 배기경 배승한 백기연 변윤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서하수 석대식 석희원
 손승락 신고선 신구균 신윤원 신인기 심풍수
 양문섭 오경일 오광태 오홍주 옥우재 유재일
 윤인태 윤종순 이경우 이기환 이명진 이병규
 이성기 이성조 이수성 이인호 이종욱 이진걸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호걸 인준승 장봉규
 장석일 장호영 장준상 전은석 전준호 정경목
 정광덕 정기룡 정병효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정재화 정태환 정해도 정해성 조경제 조동호
 조병훈 조용업 조일래 채영재 최기훈 최영규
 최영식 최우철 최 욱 최진근 하규양 하재명
 한효용 허선행 홍인기 황철민

31회(109명)

고영호 공종렬 권해철 김광수 김기정 김 만
 김명우 김병기 김시현 김영완 김영철 김영학
 김원태 김의석 김재술 김경덕 김중호 김태근
 김태주 김학현 김현주 김형수 김호성 김호연
 남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석 마병진 문성일
 민중현 박경수 박석두 박세환 박인정 박종규
 박중호 박준석 박춘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배정우 서규영 서동균 서수교 서정호 서태교
 성보경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재구 심재현 심중식 안기수 안용모
 안중수 여상찬 오민일 오용환 오호철 옥봉근
 옥치호 원종인 윤정수 이광태 이민재 이병태
 이성식 이승원 이승진 임종태 장건호 장재훈
 장정철 장평우 전병규 정무석 정용정 정원규
 정주영 정창규 정철수 조봉우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천장호 최문삼 최부영 최상규 최상웅
 최인목 최재선 최진섭 최해영 최효식 하명수
 하병관 하학렬 한문성 한영오 허일현 홍 구
 홍성수

32회(53명)

강기상 권학률 기영수 김상범 김영길 김종식
 김중판 김창범 김태홍 민길식 박상학 박성철
 박운대 박종구 박진원 배준찬 설원실 송기수
 송승익 신국선 신명환 신철호 양문석 양한광
 염효선 오경명 오정국 우득현 윤병조 이관우
 이문영 이병준 이병훈 이상봉 이상용 이성호
 이성훈 이원천 이재수 이종희 임인섭 임채균
 장기호 정성수 정용수 정용문 정의주 최승찬
 최중호 최준호 최호영 허 정 황문찬

33회(67명)

고창석 공진환 김계주 김기산 김대현 김령환
 김범영 김성준 김원일 김윤성 김 일 김재도
 김재선 김종만 김종욱 김종현 김 철 김태훈
 김학성 김 혁 남경태 노경호 류장근 류종남
 민병현 박병진 박성병 박준은 박창완 박태중
 배성만 배성수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봉관
 송성림 송중현 안동문 안영호 안찬모 예영찬
 오항선 옥중훈 윤성국 이도근 이수환 이윤조
 이은우 이진우 이창훈 이혜수 이형근 이호인
 이 훈 장정석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윤남 최홍원 황경원
 황규태

34회(49명)

강승기 박수균 구동회 권병용 김두섭 김범석
 김상갑 김주섭 김중근 김창영 김태하 김현범
 김희영 노인선 박기훈 박민수 박재욱 박철웅
 박철호 백운창 서영화 송환성 양철용 오승대
 옥재영 유승민 이강희 이상운 이성영 이용희
 이재완 이재욱 이정철 이준권 이진호 장경원
 장현기 정노혁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최용철 홍승철 황기윤 황병주
 황호용

35회(51명)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인 김동일 김선택
 김세정 김우경 김우신 나동욱 마계성 박동렬
 박세종 박창석 박창제 백현호 서상욱 서석권
 성규원 성창용 손태섭 안준업 안종일 안창돈
 오문세 오시영 옥영희 윤명관 윤종호 이기석
 이복근 이상환 이영오 이용하 이종찬 이춘기
 이호성 임성배 임주택 장인화 전해진 정성윤
 정윤성 정효영 주귀홍 채인석 최근식 최기평
 최민석 홍성표 황용순

36회(71명)

공진식 박상호 권일복 김규선 김길호 김동일
 김병국 김병주 김상백 김수진 김영훈 김용진
 김용진 김재호 김정환 김중백 김중오 김중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남우진 류형우 박승근
 박영준 박영찬 박용철 박재운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백대민 서광원 송현욱 신승렬
 신용덕 안재익 양성용 양호진 윤경준 이동희
 이상준 이상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 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장창용
 정갑영 정병기 정병철 정윤희 정인식 정창규
 정홍원 제갑재한 차대일 차동업 최상도 최승호
 최원식 최태섭 하재철 한형식 홍의창

37회(46명)

강성욱 강태우 권기원 김기덕 김기동 김동명
 김상현 김성일 김성현 김영곤 김원범 김의렬
 김중희 김항기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만규
 박종진 박철우 서동욱 석영태 이수현 송경철
 신우진 유호섭 윤태환 이윤환 이수홍 이호진
 장원의 전인수 정익수 정재호 조성현 조성각
 조영규 조정민 조현철 천운찬 최재형 탁낙준
 하태민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59명)

강금성 강대식 강병균 곽동열 구동주 권두성
 김경근 김경태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석구
 김성철 김원철 김태원 김태호 김판준 김현민
 류인식 문귀상 문익현 박 원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태봉 박현수 방기대 백승은 변기열
 서승헌 신동훈 심재영 심 춘 안길수 오승언
 오중현 오희진 유관재 윤경만 윤병선 이수호
 이창호 이태훈 이희수 정인철 정재형 정준기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주영록 주재훈 차성철
 최 철 최휴경 한경민 한민득 한재필

39회(66명)

김경근 김대중 김병기 김명부 김용태 김윤홍

김종업 김진형 김진호 김천술 김태호 김형보
 노성수 문기호 문병운 박근태 박용한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박진열 백기현 송영호 심왕섭
 안승진 안영준 양원정 엄일규 여동섭 오민규
 오선호 우형철 원우광 유숙정 유인기 윤동배
 윤상훈 윤원욱 이가용 이상학 이상태 이승기
 이승민 이영수 이원영 이종욱 이종운 이태윤
 장봉근 장영욱 장윤혁 정순환 정연설 정영철
 정우영 정의창 정진해 정진훈 지흥준 천용준
 최경근 최보식 하순호 함중민 허중기 황영진

40회(53명)

강창지 고승성 권귀동 권병서 김근영 김동근
 김병주 김성진 김영수 김재영 김종철 김창민
 김춘강 문태영 박근성 박무성 박훈재 배병훈
 배영진 배윤성 배진수 서재원 서정민 서주현
 심재혁 심 철 염점철 예진원 옥진형 우영환
 윤경학 이강욱 이기록 이동현 이병완 이상백
 이성대 이승배 이영철 이정삼 이종인 이창진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장정욱 지창근
 최용석 최치언 한수열 황성수 황성현

41회(44명)

강석희 강 훈 김봉준 김승원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 김중균 김형률 문남진 박상환 박정기
 박정의 백선민 백창봉 성중훈 성찬기 신창훈
 안광근 안영주 원태용 육욱성 윤광희 윤성보
 윤성한 이경호 이광희 이명재 이양걸 이종민
 임병호 장윤호 전삼록 정필상 조재봉 천성원
 최영준 추교용 하범중 한정호 허중운 허중희
 허치회 홍석우

42회(35명)

고장석 광창우 김광철 김동수 김수용 김순근
 김재용 김태구 김현오 김희찬 남화정 문두진
 문지성 박기열 박동식 박영철 박일수 백영환
 서분규 서정호 성창욱 손삼식 신동복 신동호
 신봉준 윤영기 이영환 이재경 장일천 정용중
 정창한 정홍준 제정환 조명준 한봉균

43회(74명)

강병규 강상훈 강진만 강택용 구명진 김경훈
 김대영 김대훈 김도형 김동민 김동현 김성수
 김신현 김영재 김영희 김정남 김종술 김종식
 김희경 문영찬 박남기 박상순 박승삼 박영조
 박영학 박형규 방성수 배진국 백승업 백정운
 서원택 송대성 심문섭 엄홍국 여정섭 오일남
 윤상원 윤성호 윤성진 윤종현 이강수 이강훈
 이동주 이상민 이상필 이상환 이석민 이상춘
 이용상 이정열 이종택 이종연 이진배 이창우
 이현우 이호영 장시호 전세준 전순표 정영민
 정진우 정창석 정호범 조민호 최동환 최용석
 최원석 최한림 최홍업 하영수 허재원 현병희
 황만철 황준하

44회(42명)

강경호 고봉진 김성준 김성훈 김찬홍 김해근
 남경민 문형준 박민수 박정민 배봉근 안병규
 안성만 우도균 윤상훈 윤철홍 이동렬 이동원
 이승철 이창용 임정훈 임지훈 장원준 전광렬
 정도영 정중윤 제정환 조영호 조진현 조창현
 진성재 최현덕 최현욱 탁정환 한수성 황인주
 이대환 김 황 홍광호 이병희 허태욱 김형모

45회(20명)

구자삼 권우일 김상수 김성준 김중현 김현호
 나성태 박상화 박중호 박훈식 손창우 신상왕
 이상현 이수태 조청래 조태성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하인수

46회(35명)

강남구 권성기 권진근 김규태 김대기 김동욱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승원 김태영 김태준
 김희택 문용성 문정기 배동석 백경택 서승진
 서용택 신정일 안명기 오영훈 윤경환 윤성근
 이동수 이동업 이성민 이재광 정윤성 최경근
 최원석 하성룡 한영길 홍이준 황상철

47회(30명)

강동훈 강백중 강호찬 고달우 김동휘 김세준
 김영진 김재성 김태우 김하윤 박정민 배준수
 백상화 서영우 서정민 성상용 손효준 송창은
 윤필호 이승택 이 일 장소재 정기주 정민호
 정 신 정윤호 정하윤 조덕만 차기혁 최경훈

48회(7명)

권태현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이재희 이현우
 이형철

49회(31명)

강동준 고용배 공성경 김정옥 김종배 김태훈
 김학균 김현우 김현중 노성욱 박시영 박재승
 배기용 배승한 신중국 안명진 예병삼 이성욱
 이성형 이승일 이영환 이충현 장민근 장형철
 정일권 제민진 제정훈 조영철 최유탄 최진영
 홍민호

50회(47명)

강봉규 구경모 구원모 김기원 김동현 김문수
 김석훈 김영환 김유진 김재용 김재호 김정현
 김정희 남경현 박기수 박기태 박병규 박복열
 박인창 박중현 백광선 서석진 서영준 신성진
 안기범 안동운 오유준 유우진 윤준호 이기승
 이상구 이상준 이승현 이종환 이주현 정재우
 차승준 채현철 최용호 최정민 최호진 하수성
 하진일 한진우 허창호 홍광표 황국현

51회(32명)

강승호 구대서 구민석 김기호 김도영 김동규
 김동주 김영권 김영재 김형태 도희종 박보순
 반길호 서성호 성상원 손현직 송상민 신석진
 신현식 염범아 오성진 오준호 이근영 이 덕
 이동현 이정우 정성훈 정유석 정진우 조민제
 최우영 한성인

52회(101명)

강민석 강민호 강 석 강영철 강재식 강정오
 강희원 고정희 공영수 곽동현 구순모 구유성
 권기환 김남근 김도훈 김동우 김명중 김민수
 김민철 김병진 김상곤 김성화 김오령 김용권
 김용혁 김경민 김정학 김지운 김지훈 김현진
 김형수 김형준 김혜영 류상원 문성환 민중진
 박범기 박부일 박상수 박상현 박성호 박영진
 박정규 박정훈 박찬홍 박홍현 백선명 백수인
 변의현 변정환 성운용 심중배 양현승 유동욱
 이경용 이경원 이도경 이동휘 이상은 이상훈
 이승복 이신현 이원영 이재훈 이정훈 이종호
 이해곤 이현석 이현석 이호영 이환희 임치영
 장종진 장태원 정길수 정무준 정상중 정안근
 정현철 제정철 조민식 조범래 조영찬 조용수
 차상원 최범진 최병태 최석용 최영태 최정욱
 최중연 최형주 최호현 하상윤 한중현 허균형
 허근영 허홍만 홍중철 황대민 황창근

53회(19명)

강덕천 광상훈 김경찬 김권우 김상욱 문희규
 박성영 박우진 박정진 선재원 성진우 송승윤
 우재준 이원준 이진수 전세일 최동환 하병오
 한동인

54회(13명)

고강인 고지현 김병민 민병철 박신우 손희원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정준섭 제재철 조종완
 최우영

55회(3명) 김태련 이항림 최성원

56회(1명) 임재청

58회(1명) 김현윤

66회(2명) 김시준 성범석

67회(1명)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경고학교운영위원회 등(1명) 명예회원 박희규
 기수 & 이름 확인불명 92명

총동창회관 기금 기부 계좌 안내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새 지평을
 열 총동창회관 기금 모금에 동문 어
 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동창회관 구입기금(소액 및 고액)
 <기부금 영수증 필요 없는 분>
 - 부산은행 101-2053-6720-01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분>
 - 부산은행 029-01-030712-1
 (재)용미장학회 안강태

※모든 계좌는 송금 시 성명(기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 문의 : 총동창회 사무국
 051-245-7551~3
 경남중고총동창회장 25회 박종찬

since 1959



세계 50개국에 수출하는
목공·원예공구

No.1



태 흥 이 기 공 업 사
TAE HEUNG LEE KI IND. CO.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농공길 2-57(예림리) TEL : (051) 523-8496 FAX : (051) 526-0381
E-mail : thbaekma@naver.com/thbaekma@daum.net http://www.thbaekma.com

대표 우 영 환 (40회·경남중고 미래발전협의회 회장)